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Analytical Survey on the Condition of Facilities for Visual Art

김달진미술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Analytical Survey on the Condition of Facilities for Visual Art



김달진미술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 달 진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발 행 처 : 김달진미술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T.02)730-6214 F.02)730-9217
홈페이지 www.daljin.com
발 행 인 : 최명자
발 행 일 : 2007년 10월
편집제작 : 포아트커뮤니케이션(www.4art.co.kr)
인 쇄 처 : (주)상경커뮤니케이션즈
ⓒ 김달진미술연구소, 2007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전국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예술 시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적절한 개선과 지원의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2. 이 보고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 602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회신된 277곳의 설문지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미술대학 시각예술 시설 50개처의 분석은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3. 시각예술 시설을 크게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었습니다.

4. 산업자원부에 의한 개정 개량법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와 평(坪)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5. 수록된 설문내용의 기준 시점은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5.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 』: 도서나 보고서, 연구자료 등의 제목
   「 」: 논문 제목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 〉: 미술작품의 제목, 전시회 제목
   ‘ ’: 고유 의미를 가리키는 인용구나 구절
   “ ”: 직접 인용문

6.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의 내용은 달진닷컴 홈페이지 (http://www.daljin.com) 미술자료실 –〉 자료창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책임연구자 :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 공동연구자 :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서진수 (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박준헌 (Art Management Union 대표)
◎ 연 구 원 : 김미령 (베이징아트싸이드 큐레이터)
: 김창조 (문화네트워크 시월 전시기획팀장)
: 이수철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한수진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 한진희 (김달진미술연구소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2. 연구 내용 ····· 2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5

1. 모집단의 범위 및 대상 ····· 25

2. 조사표본의 선정 및 추출방법 ····· 26

1) 표본의 선정 ····· 26

2) 표본의 추출과정 ····· 26

3. 조사방법 및 시점 ····· 27

1)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 27

2) 자료 분석 ····· 28

제2장 시각예술 시설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시각예술의 개념 ····· 31

1. 시각예술의 정의 ····· 31

2. 시각예술의 범위 ····· 32

제2절 시각예술 시설의 범위 ····· 33

1. 문화기반시설 ····· 33

1) 미술관 ····· 34

2) 문화예술회관 ····· 36

2. 상업시설 ····· 37

3. 대안시설 ····· 38

1) 대안공간 ····· 39

2) 미술창작스튜디오 ····· 40

4. 기타 시설 ····· 40

1) 미술품 경매회사 ····· 41

2) 기타 공간 ····· 42

Contents

제3장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

제1절 일반현황 ····· 48
1. 미술관 ····· 48
1) 시설 현황 ····· 48
2) 소장 작품 현황 ····· 49
2. 문예회관 ····· 50
3. 화랑 ····· 51
4. 대안공간 ····· 52
5. 창작스튜디오 ····· 53
제2절 활동현황 ····· 55
1. 미술관 ····· 55
2. 문예회관 ····· 55
3. 화랑 ····· 58
4. 대안공간 ····· 59
5. 창작스튜디오 ····· 61
제3절 운영현황 ····· 63
1. 미술관 ····· 63
2. 문예회관 ····· 64
3. 화랑 ····· 65
4. 대안공간 ····· 66
5. 창작스튜디오 ····· 67
제4절 지원현황 ····· 69
1. 문화기반시설 ····· 69
2. 상업시설 ····· 69
3. 대안시설 ····· 70

제4장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일반 현황 ····· 75
1. 응답기관 특성 ····· 75
1) 설립연도 ····· 75
2) 법적성격 ····· 77

목 차

3) 소재지 ····· 78
4) 지리적 활동범위 ····· 80
5) 중점 활동 ····· 81
2. 공간 현황 ····· 84
1) 공간 구성 ····· 84
2) 전시 공간 ····· 86
3) 근무 공간 ····· 89
4) 수장고 및 창고 ····· 91
5) 복지 공간 ····· 93
6) 부속 시설 ····· 95
제2절 활동 현황 ····· 96
1. 전시 ····· 96
1) 연간 기획전 개최 수 ····· 96
2) 연간 대관전 개최 수 ····· 97
3) 주요 전시 개최 시기 ····· 98
2. 프로그램 ····· 100
1) 시행 여부 ····· 100
2)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 ····· 102
3.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현황 ····· 104
1) 교류 여부 ····· 104
2) 교류 횟수 ····· 105
3) 교류 내용 ····· 107
4) 국내외 시설 활용 현황 ····· 108
4. 기타 행사 ····· 110
1) 개최 수 ····· 110
2) 개최 시기 ····· 111
제3절 운영 현황 ····· 113
1. 재정 ····· 113
1) 연간 예 · 결산 편성 ····· 113
2) 입장수입 ····· 115
3) 지출 ····· 117

Contents

2. 인력 ····· 122
1) 유급 상근 직원 ····· 122
2) 인턴제도 ····· 132
제4절 지원 현황 ····· 138
1. 지원여부 ····· 138
2. 지원항목 및 건수 ····· 140
1) 공공지원 현황 ····· 140
2) 민간지원 현황 ····· 143
3. 지원 정책 ····· 144
1) 지원기금 정보 입수 경로 ····· 144
2) 지원정책의 만족도 ····· 145
3) 지원정책의 개선점 ····· 147
4) 지원의 우선순위 ····· 147
4. 시각예술인 지원 ····· 149
1) 전시활동 시 작가지원 범위 ····· 149

제5장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분석
제1절 시각예술 시설의 유형별 실태분석 ····· 154
1. 문화기반시설 ····· 154
1) 미술관 ····· 154
2) 문예회관 ····· 155
2. 상업시설 ····· 156
1) 화랑 ····· 156
3. 대안시설 ····· 158
1) 대안공간 ····· 158
2) 창작스튜디오 ····· 159
제2절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별 실태분석 ····· 161
1. 일반 현황에 관한 분석 ····· 161
1) 전시공간의 증가 ····· 161
2) 지역별 편중 ····· 162

목 차

2. 활동 현황에 관한 분석 ····· 164
1) 전시 및 프로그램 ····· 164
3. 운영 현황에 관한 분석 ····· 165
1) 재정 현황 ····· 165
2) 인력 현황 ····· 166
4. 지원실태에 관한 분석 ····· 167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시각예술시설 지원 정책의 실태 ····· 171
1. 비영리시설 지원정책 ····· 173
1) 건립지원 ····· 173
2) 운영지원 ····· 175
3) 활동지원 ····· 177
2. 영리시설 지원 정책 ····· 179
1)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 ····· 179
2) 국제미술행사 육성 ····· 180
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 181
제2절 취약부분 정책적 보완 방법 ····· 183
제3절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 188

Contents

부록

1.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 19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3

2. 연구 내용 ····· 194

제2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현황 ····· 195

제3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조사 결과 ····· 196

제4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분석 ····· 211

2.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3. 설문 참여시설 목록

4.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1] 설문내용 ····· 25
[표 1–2] 설문조사 발송과 회신 현황 ····· 27
[표 2–1]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통계 ····· 34
[표 2–2] 운영주체별 국내 미술관의 수 ····· 35
[표 3–1] 국내 미술관 현황 ····· 49
[표 3–2] 분야별 소장 작품 현황 ····· 50
[표 3–3] 국내 문예회관 건립 현황 ····· 50
[표 3–4] 문예회관 건립 추이 ····· 50
[표 3–5] 국내 문예회관 건립 예정기관 ····· 51
[표 3–6] 한국의 주요 대안공간 설립 현황 ····· 53
[표 3–7] 전국 국 · 공 ·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 53
[표 3–8] 전시 운영현황 ····· 55
[표 3–9] 요구하는 개선사항 ····· 57
[표 3–10] 미술관 운영인력 현황 ····· 63
[표 3–11] 문예회관 운영실적 ····· 64
[표 3–12]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싶은 새로운 직종 ····· 65
[표 3–13] 한국의 주요 대안공간 운영현황 ····· 67
[표 4–1] 시설유형별 · 지역별 설립연도 분포 ····· 77
[표 4–2] 시설유형별 법적성격 ····· 78
[표 4–3] 시설유형별 지역별 시설 분포 ····· 79
[표 4–4] 시설유형별 지리적 활동범위 ····· 81
[표 4–5] 유형별 · 법적종류별 중점 활동 ····· 83
[표 4–6] 시설유형별 공간 보유 실태 ····· 86
[표 4–7] 시설유형별 전시공간의 규모 ····· 89
[표 4–8] 시설유형별 근무공간의 규모 ····· 90
[표 4–9] 시설유형별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 ····· 92
[표 4–10] 시설유형별 항온, 항습 시설의 유무 ····· 93
[표 4–11] 시설유형별 복지 공간의 규모 ····· 94
[표 4–12] 시설유형별 부속 시설의 규모 ····· 95
[표 4–13]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기획전 개최 수 ····· 97
[표 4–14]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대관전 개최 수 ····· 98

표 목 차

[표 4-15] 시설유형별 주요 전시 개최 시기 ····· 100
[표 4-16] 시설유형별 해당 프로그램 운영여부 ····· 102
[표 4-17] 시설유형별 프로그램 진행상의 어려움 ····· 103
[표 4-18] 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 105
[표 4-19]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횟수 ····· 106
[표 4-20]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현황 ····· 107
[표 4-21]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내용 ····· 108
[표 4-22]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여부 ····· 109
[표 4-23]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이유 ····· 109
[표 4-24]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횟수 ····· 110
[표 4-25]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진행 여부 ····· 110
[표 4-26]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진행 횟수 ····· 111
[표 4-27]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개최 시기 ····· 112
[표 4-28] 입장료 유무 ····· 115
[표 4-29] 법적종류별 입장료 액수 ····· 116
[표 4-30] 시설유형별 관리 및 청소 인건비 연간 지출현황 ····· 118
[표 4-31] 시설유형별 청소비 지출 현황 ····· 119
[표 4-32] 시설유형별 임대료 지출 현황 ····· 120
[표 4-33] 시설유형별 각종 공과금 지출 현황 ····· 121
[표 4-34]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유무 ····· 123
[표 4-35]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수 ····· 124
[표 4-36]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구성 ····· 125
[표 4-37] 시설유형별 학예 연구원 수 ····· 126
[표 4-38] 시설유형별 관리인 수 ····· 126
[표 4-39] 시설유형별 테크니션 수 ····· 127
[표 4-40] 시설유형별 기타 유급 상근 직원의 수 ····· 127
[표 4-41]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연평균 인건비 ····· 129
[표 4-42]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여부 ····· 130
[표 4-43]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종류별 가입률 ····· 131
[표 4-44] 시설유형별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실시 여부 ····· 131
[표 4-45] 시설유형별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종류 ····· 132

표 목 차

[표 4-46] 인턴제도 시행 여부 ····· 133
[표 4-47]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수 분포 ····· 134
[표 4-48] 시설유형별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 135
[표 4-49] 법적종류별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 136
[표 4-50]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급여 지급 여부 ····· 137
[표 4-51] 시설유형별 인턴사원의 근무 여건 현황 ····· 137
[표 4-52] 시설유형별 지원 여부 ····· 139
[표 4-53] 시설유형별 중앙정부의 지원 액수 ····· 141
[표 4-54] 시설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 141
[표 4-55] 시설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액수 ····· 141
[표 4-56] 시설유형별 문화재단의 지원 현황 ····· 142
[표 4-57] 시설유형별 문화재단의 지원 액수 ····· 142
[표 4-58] 시설유형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현황 ····· 143
[표 4-5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액수 ····· 143
[표 4-60] 시설유형별 메세나의 지원 액수 ····· 143
[표 4-61] 유형별 민간지원 건수 ····· 144
[표 4-62] 유형별 정책 만족도 ····· 146
[표 4-63] 유형별 개선되어야 할 정책 요구 ····· 147
[표 4-64] 유형별 지원 우선 순위 ····· 148
[표 4-65] 시설 유형별 기획전 · 공모전 진행시 작가지원 범위 ····· 150
[표 5-1] 시설유형별 시설 설립연도 ····· 162
[표 5-2] 전시공간의 지역별 분포 ····· 164
[표 6-1] 박물관 1관 당 인구 수 ····· 173
[표 6-2]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정책 현황 ····· 174
[표 6-3] 공립미술관 건립 국가지원 현황 ····· 174
[표 6-4] 2004년 미술분야 청년인턴사업(7월~12월) ····· 177
[표 6-5]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특별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 178
[표 6-6] 2004년도 사립미술관 복권기금 지원사업별 현황 ····· 178
[표 6-7] 2005년도 사립미술관 복권기금 세부지원 내역 ····· 179
[표 6-8] 광주비엔날레 추진현황 ····· 180
[표 6-9] 부산비엔날레 추진현황 ····· 180

표 목 차

[표 6–10]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 ····· 181
[표 6–11] 한국국제아트페어 추진현황 ····· 182
[표 7–1] 지역별 미술 대학 내 전시실 설치 현황 ····· 199
[표 7–2] 전시장 상근직원 수 ····· 201
[표 7–3] 대학 내 미술관 상근 직원 수 ····· 202
[표 7–4] 전시 교류 횟수 ····· 207

그 림 목 차

[그림 1-1] 시각예술 시설 연구지형도 ····· 26
[그림 3-1] (사)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된 갤러리의 지역별 분포 ····· 51
[그림 4-1] 시설 설립연도 분포 ····· 76
[그림 4-2] 시설유형별 설립연도 추이 ····· 76
[그림 4-3] 시설의 법적성격 비율 ····· 78
[그림 4-4] 시각예술 시설의 지역별 분포 ····· 79
[그림 4-5] 시각예술 시설 지리적 활동 범위 ····· 80
[그림 4-6] 시각예술 시설의 중점활동 ····· 81
[그림 4-7] 시각예술 시설 유형별 중점활동 ····· 82
[그림 4-8] 시설의 기능별 공간 보유율 ····· 84
[그림 4-9] 시설의 전시공간 보유율 ····· 85
[그림 4-10] 시설의 근무공간 보유율 ····· 85
[그림 4-11] 시설의 수장고 및 창고 보유율 ····· 85
[그림 4-12] 시설의 복지관련 시설 보유율 ····· 85
[그림 4-13] 시설의 부속시설 보유율 ····· 86
[그림 4-14] 시설의 전시 공간의 규모 분포 ····· 86
[그림 4-15] 미술관 전시 공간의 규모 ····· 87
[그림 4-16] 문예회관 전시 공간의 규모 ····· 87
[그림 4-17] 화랑 전시 공간의 규모 ····· 88
[그림 4-18] 창작스튜디오 전시 공간의 규모 ····· 88
[그림 4-19] 대안공간 전시 공간의 규모 ····· 88
[그림 4-20] 시설유형별 근무공간의 평균 규모 ····· 90
[그림 4-21]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 분포 ····· 91
[그림 4-22] 시설유형별 수장고 및 창고의 평균 규모 ····· 92
[그림 4-23] 시설유형별 항온, 항습 시설 구비율 ····· 93
[그림 4-24] 복지 공간 규모 분포 ····· 94
[그림 4-25] 부속 시설 규모 분포 ····· 95
[그림 4-26] 시설유형별 연간 평균 기획전 개최 수 ····· 96
[그림 4-27] 시설유형별 연간 평균 대관전 개최 수 ····· 98
[그림 4-28] 월별 주요 전시개최 시기 ····· 99
[그림 4-29] 시설유형별 주요 전시 개최 시기 ····· 100

그 림 목 차

[그림 4-30] 프로그램 시행 여부 ····· 101
[그림 4-31] 시설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01
[그림 4-32] 프로그램 진행 시 장애요소 ····· 103
[그림 4-33]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여부 ····· 104
[그림 4-34]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횟수 ····· 106
[그림 4-35]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내용 ····· 107
[그림 4-36] 국내외 시설 활용 여부 ····· 108
[그림 4-37] 기타 행사의 개최 횟수 ····· 111
[그림 4-38] 연간 예 · 결산 편성 여부 ····· 113
[그림 4-39] 시설유형별 정기적인 예 · 결산 시스템 보유 비율 ····· 114
[그림 4-40] 법적성격별 정기적인 예 · 결산 시스템 보유 비율 ····· 114
[그림 4-41] 입장료 징수 여부 ····· 115
[그림 4-42] 입장료 징수액 현황 ····· 116
[그림 4-43] 연간 관리비 지출액 ····· 118
[그림 4-44] 연간 임대료 지출 현황 ····· 120
[그림 4-45] 연간 공과금 지출액 ····· 121
[그림 4-46] 유급 상근 직원 보유율 ····· 122
[그림 4-47] 유급 상근 직원의 수 ····· 123
[그림 4-48]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수 ····· 124
[그림 4-49] 유급 상근 직원 보유율 ····· 125
[그림 4-50] 유급 상근 직원의 연평균 인건비 분포 ····· 128
[그림 4-51]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 130
[그림 4-52]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유형 ····· 132
[그림 4-53] 인턴제도 시행 여부 ····· 133
[그림 4-54] 인턴사원 채용 인원 분포 ····· 134
[그림 4-55]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 135
[그림 4-56]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급여 지급 여부 ····· 136
[그림 4-57] 최근 1년간 물적 · 인적 지원을 받은 시설 비율 ····· 138
[그림 4-58] 지역별 시설의 외부의 지원 경험 ····· 139
[그림 4-59] 법적성격별 외부 지원 ····· 140
[그림 4-60] 지원기금 정보 입수 경로 ····· 145

그 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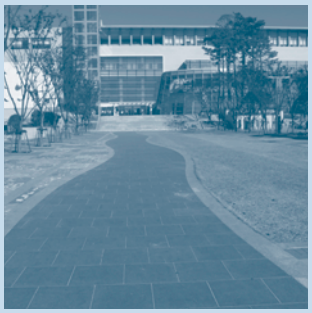
[그림 4-61] 지원기금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설유형 ····· 145
[그림 4-62] 만족스러운 지원정책 ····· 146
[그림 4-63] 개선되어야 할 지원정책 ····· 147
[그림 4-64] 전체 시설의 지원 우선순위 ····· 148
[그림 4-65] 기획전 · 공모전 진행시 항목별 작가 지원율 ····· 149
[그림 5-1] 법적 종류별 시설의 지리적 활동범위 ····· 163
[그림 7-1] 미술대학 설립연도 분포 ····· 196
[그림 7-2] 미술학부 학생 수 ····· 197
[그림 7-3] 미술대학 각 학과별 한 학년 학생 수 ····· 197
[그림 7-4] 학생당 학부 실기실 평수 ····· 198
[그림 7-5] 학생당 대학원 실기실 평수 ····· 199
[그림 7-6] 대학 내 전시 공간 현황 ····· 200
[그림 7-7] 대학 내 전시장 규모 ····· 200
[그림 7-8] 대학 내 전시장의 주된 용도 ····· 203
[그림 7-9] 대학 미술관의 주요 용도 ····· 203
[그림 7-10] 전시관 · 미술관 개별 사용 가능 여부 ····· 204
[그림 7-11] 교내 졸업 전시 이유 ····· 205
[그림 7-12] 교외 졸업 전시 이유 ····· 205
[그림 7-13] 전시 개최 시기 분포 ····· 206
[그림 7-14] 학생 대상 전시관련 별도 교육 실시 여부 ····· 207
[그림 7-15] 전시 및 행사 홍보 수단 ····· 208
[그림 7-16] 홈페이지 개설 년도 추이 ····· 208
[그림 7-17] 전시 현황 및 미술계 동향 자료 등재 여부 ····· 209
[그림 7-18] 년간 연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 209
[그림 7-19] 홈페이지 운영 주체 ····· 210

1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전국의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예술 시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적절한 개선과 지원의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시각예술 시설은 1970년대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시각예술 시설의 건립에 치중한 것에 비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사업이나 진단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미술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미술계 내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은 물론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시각예술의 활동 기반이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시각예술 시설의 운영과 활용에 대한 현황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 시설의 운영 주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 진단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작가, 기획자 등 미술계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시각예술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활동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며, 일반 미술 애호가들에게 보다 나은 감상과 향유를 위

한 일반적인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성격, 주요 행사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또한 본 조사는 미술을 비롯한 문화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한국 실정에 적합한 문화 마케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서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과 지원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지표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시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일반 시각예술 시설의 활동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시각예술 시설들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현재 한국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와 예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여 각 시각예술 시설의 환경과 활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 현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둘째, 현재 국내 시각예술 시설이 겪고 있는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시설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기본 재정현황, 즉 수입과 지출 항목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지원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의 기초적인 운영비에서부터 시설 재투자에 해당하는 직 · 간접 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시각예술 시설들의 실태와 활동 현황, 운영 현황에 대한 결과물이 시각예술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창작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모여 국내 시각예술 발전에 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설문내용

구 분	설문내용
일반현황	설립년도 법적성격 소재지 / 지리적 활동범위 공간 구성 – 전시 / 근무 / 수장고 및 창고 / 복지 / 부속시설
활동현황	중점활동 연간 기획전 / 대관전 개최 수 주요 전시 개최 시기 전시 외 프로그램 / 행사 진행 여부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현황
운영현황	연간 입장 수입액 연간 지출액 유급 상근 직원 인턴 직원
지원현황	지원여부 지원항목 및 건수 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지원정책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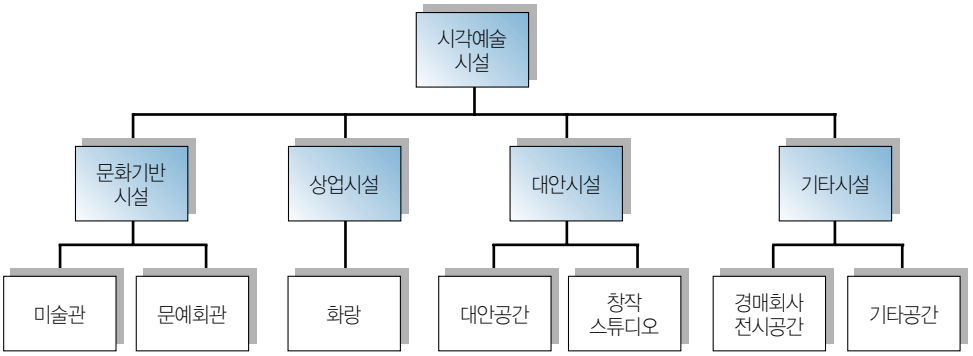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모집단의 범위 및 대상

시각예술 시설은 운영주체의 특성, 법적 성격, 중점 활동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었다.

문화기반시설에는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상업시설에는 화랑, 대안시설에는 대안공간과 미술창작스튜디오, 기타시설에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시설과 그 외 기타 공간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의 유형별 개념과 범위는 다음 2장과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그림 1-1] 시각예술 시설 연구지형도



2. 조사표본의 선정 및 추출방법

1) 표본의 선정

미술관의 표본은 (사)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미술관 79곳,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등록된 45곳,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미술관 데이터베이스 67개를 바탕으로 73곳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문예회관은 2006년 12월 기준 총 155개 처가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제공받은 100개의 기관 목록 중 90개 처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화랑의 경우에는 (사)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된 화랑 수가 125곳에 불과해,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와 미술잡지, 지방문예지를 바탕으로 조사된 화랑의 300여 곳 중 전시기획 및 대관 활동이 활발한 265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안공간은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조사한 18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도까지 조성된 54곳의 전국 국 · 공 ·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1] 중 시각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30여 곳의 공간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2) 표본의 추출과정

위에서 선정된 477곳의 시각예술 시설에 설문지를 발송해 회신을 받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 1차 자료집

[표 1-2] 설문조사 발송과 회신 현황

구분	발송(개)	회신(개)	회신 비율 (%)
미술관	73	44	60.2
문예회관	90	24	26.6
화랑	265	135	50.9
대안공간	18	13	72.2
창작스튜디오	31	11	35.4
합계	477	227	47.5

3. 조사방법 및 시점

1)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본 연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우편발송 후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 원본 파일을 요청하는 시설에게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다시 발송하였으며, 설문지가 유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다시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술관의 경우에는 그간 진행되어 왔던 여러 통계나 실태 조사를 통해 꾸준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설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타 시설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다.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접촉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마저도 전시실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없어 설문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화랑은 수입과 지출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염려되어 설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화랑 스스로도 활동 현황이나 재정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일부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대구현지의 문예지와 접촉하여 담당기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20곳의 시설을 방문한 결과 10여 곳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시각예술 시설의 모집단이 477개에 지나지 않아 전체의 47.5%라는 높은 회신률

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불성실, 내용의 부정확 등의 이유로 표본으로 사용된 것은 227개의 설문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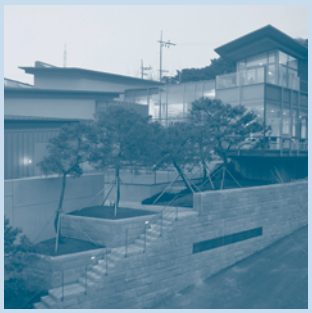
2) 자료 분석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와 자료입력 단계를 거쳤으며, 오류점검이 실시된 최종자료는 윈도우용 SPSS(Ver. 12.0)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 설문조사 항목으로 포함한 것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시설의 개별적 특성인 일반현황, 활동현황, 운영현황, 지원현황 등을 지역별, 법적 성격별, 시설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립연도, 지리적 활동범위, 유급 상근직원 수, 인턴제도에 대한 기본적 실태와 시설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들, 시설 유지비 및 인건비 및 각종 지출항목과 입장료와 같은 시설의 수입현황과 외부에서 받는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는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값을 구하거나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제2장 시각예술 시설의 개념 및 범위




제2장 시각예술 시설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시각예술의 개념

본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을 준비하면서 가장 예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시각예술에 대한 정의와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범위 설정이다. 분명한 정의와 명확한 대상이 설정된 후에 조사 설계를 해야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가 정의하고 있는 시각예술 시설은 시각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일반에게 공개해 시각예술문화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장소' 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예술은 무엇인가.

1. 시각예술의 정의

시각예술이란, 일반적으로 문자언어에 의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해 소통되고 이루어지는 예술형식을 말한다. 시각(視覺)이란 명사의 사전적 정의는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을 말한다. 시각예술(視覺藝術)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회화, 조각 등 시각만으로 감상하는 예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된다. 흔히 영어로는 visual arts라고 표기되는데 이때의 visual은 시각의(에 의한, 에 호소하는)라는 의미의 형용사다. 그렇다면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 정도로 해석되는 시각예술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미술, 공예, 디자인, 사진,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패션, 텔레비전, 컴퓨터그래픽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문화의 특성은 그래픽이나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의 영상에 따른 시각 세계의 확대이며, 오늘날 이들은 음성과 문자의 보정을 통해 의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와 병행하여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텔레비전 등은 단지 시각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촉각, 청각 등과 함께 보여 지는 예술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의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의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2. 시각예술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2000년 개정)에서 명시한 정책영역으로서의 미술의 일반적인 범위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부분으로 구분한다.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에 발표한 『새 예술정책』의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순수미술과 더불어 건축, 사진, 디자인, 공예 등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응용미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서는 2006년부터 미술이라는 표기대신 시각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르는 미술이라고 표기했던 2005년과 2006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공예 · 디자인 · 사진 · 영상 · 설치 등을 2005년 이전부터 포함하고 있어 이미 미술이라는 구분은 순수미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점차 다양해지고 탈장르화의 현상을 보이는 미술 분야의 변화는 시각예술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보다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책적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순수미술 · 공예 · 건축 · 사진 · 디자인 · 영상 · 설치 등이 포함되며, 순수미술에는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서예 · 판화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시각예술 시설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적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기존에 미술이라 불리던 것보다 확대된 개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예술 시설은 시각예술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시' 라는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 시각예술 작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 시각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위한 창작의 공간, 시각예술 활동을 일반인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국내외의 시각예술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간 등 시각예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시각예술 시설은 운영주체의 특성, 법적 성격, 중점 활동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기타시설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1. 문화기반시설

세계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기반시설이 증대하고 있는 이유는 각 나라의 미술관과 문예회관은 그 나라 문화정체성의 상징이자 대중소통의 핵심적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미술관은 국가적 문화수준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선진국일수록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문예회관은 대개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 속에서 문화 ·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역문화 창조의 거점이 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 미술관,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상 문예회관 등이 포함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종류를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0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공공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각 시설에 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표 2-1]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 통계[2)] (단위: 개)

시 · 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303	526	275	224	27	457	364	125	140	99	93	25	65	3	155	165

앞서 시각예술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 전시시설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등이 포함되지만, 이 중 박물관은 시각예술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고, 화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상업시설에서 비중 있게 다루기로 했다. 또한 조각공원은 작품의 설치 및 전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배제하였다. 한편 지역 문화활동의 발표의 장이 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중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두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래에서 두 시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미술관

미술관의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박물관의 정의를 먼저 언급해야만 한다. 국제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정관 제2조 1항에서는 박물관의 정의를 "박물관은 연구와 교육, 향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 환경의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며,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술관은 박물관의 하나로 Art Museum(미술박물관)의 번역어이다. 국제박물관협회(ICOM), 미국박물관협회(AAM,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영국박물관협회(Museums Association)는 미술관을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소장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연구하고 전시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2)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6, p.3
3) Timothy Ambrose, Crispin Paine. 『Some Definition of Museum』, Museum Provision and Professionalism, 1994, p.15~16

국내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별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미술관을 살펴보면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 ·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술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국립미술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미술관과 기업 및 문화재단,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미술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국 · 공 · 사립, 대학미술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국내의 미술관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운영주체별 국내 미술관의 수[4)]

(단위: 개)

시/도	미술관 (2006년 12월 31일 기준)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계	92	1	18	70	3

국 · 공 · 사립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활동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술품에 대한 수집 · 보존 기능, 전시 · 관람기능, 조사 · 연구 기능, 사회교육기능, 정보보급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한 미술관의 활동은 조사 · 연구, 수집 · 보관, 자료관리, 보존 및 복원, 교육, 전시, 서비스활동, 정보관련활동, 출판, 관련예술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5)]

국립미술관은 현재 경기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일하며 덕수궁미술관을 분관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미술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손실 등으로 인해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만이 남게 되었다. 1969년 5월 국립박물관이 덕수궁미술관을 흡수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 흡수 통합된 지 16년 만인 1966년 10월 한국민속관으로 개관하였다. 1969년 8월 직제가 제정되어 10월 경복궁 소전시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덕수궁미술관의 귀속 여부가 국립박물관으로 결정되고, 현대미술관이 국전을 여는 전시장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73년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관했다가 1986년 8월, 과천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에는 덕수궁미술관 분관을

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진흥비전 2020』, 2007, p.98
5) 정은영, 『공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2003, p.13

개관했고, 2006년 1월에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했다.

1984년 12월 법률 제3775호로 제정된 박물관 법은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박물관의 등록과 지원 육성, 학예직원의 배치, 준 박물관 시설의 지정 등으로 공 · 사립박물관에 대한 진흥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학미술관의 경우 협회를 결성(1961. 5. 5)하고 문교부의 교육설치기준령(1967)과 개정 대학설치기준령(1970)에서 대학미술관의 내용이 규정되면서 급격하게 설립되어 협회에 가입한 학교가 현재(2002. 12. 31) 90개교라는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이 중 대학미술관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미술관은 조선대와 경성대, 숙명여대 등 3곳에 불과했다. 2006년 6월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개관하였으며, 그 규모나 시설, 소장품 면에서 한 단계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 문화예술회관

국내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시설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 자치단체 당 1관 수준의 248개 지방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155개의 문예회관이 건립되었다.

문예회관은 과거 시 · 군 · 구민회관으로 불리던 다중집회시설에서 탈피하여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이 가능한 복합예술시설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문예회관의 전시실은 공연장에 비하여 부수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대관을 통하여 운영한다. 지방문예회관은 대부분 행정직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및 미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발표의 장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6) 김상희, 『문예회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1, p.3

2. 상업시설

시각예술과 관련이 있는 상업시설로는 화랑과 경매회사가 운영하는 전시 공간을 들 수 있다. 화랑은 미술작품의 전시장 및 그 전시장을 경영하는 조직으로 알렉산드로스대왕 시대에 수집 미술품을 저택의 회랑(回廊, gallery)에 진열한 데서 비롯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귀족의 저택이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곳이 많았으나, 대중의 미술 감상을 위한 장소로서 공개적인 진열장이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당대의 화랑은 주로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이를 계기로 작가와 작품 구입자 사이의 중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 화랑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을 발굴, 육성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미술사조를 형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우리나라 화랑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기 미술시장의 형태는 조선시대에 애호가들이 모여 서로의 화첩을 감상하는 정도이거나, 도자류나 주문에 의한 장인들의 공예품이 주를 이루었다.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주문에 실경산수와 풍속화를 제작, 판매하는 사사장인(私私匠人)을 등장시키며, 또한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를 등장시켰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미술품을 소유하려는 애호가들에 의해 미술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초기단계의 미술시장 형성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시를 통한 미술품 매매가 가능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20세기 초반에는 지물상이나 사진관, 표구사에서 서화나 그림을 주문 판매한 기록이 보이고 있고, '문방구'와 '화구상'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미술품의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등, 근대적 의미의 화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는 미술품 유통이 틀을 갖추기 시작하여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충무로와 명동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근대적 개념의 화랑인 '화신화랑', '죠지아(미도파)화랑', '미츠코시(신세계)화랑' 등의 화랑이 형성되었다. 이어 1947년에 상업화랑인 '대원화랑'과 '대양화랑'이 개점했고, 1956년에 전쟁이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여러 외국인들에 의해 서울 아트 소사이어티(Seoul Art Society)가 조직되어 반도호텔 내의 상설화랑인 '반도화랑'을 개설하여 서구적 경영체계를 반영한 본격적인 상업화랑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한국의 미술시장의 현대적인 구조는 1970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필방과 표구점을 비롯한 고미술관련 상가가 집중되었던 인사동에 1970년대 들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동덕미술관', '현대화랑', '명동화랑', '조선화랑', '진화랑' 등을 선두로 1, 2년 사이에 20여개의 화랑들이 생겨났고

1976년 화랑간의 친목과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화랑협회가 창립되었다.[7]

화랑은 미술품을 거래하는 시장이기는 하나 미술품은 그 사회의 문화예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경제학적인 논리로 따질 수는 없다. 때문에 화랑은 전시를 통해 미술가와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각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함은 물론 미술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역할과, 문화행정을 가능토록 하는 연출자의 역할, 문화 서비스자의 역할까지 부여되고 있다. 당연히 경제학적으로는 화랑은 자신의 이윤은 물론 생산 공급자인 미술가나 수요자(컬렉터, 미술애호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이윤을 도모해야 하며, 미술품 유통시장을 창조하고 개척할 뿐만 아니라 미술현장의 중심에서 관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랑은 예술성 있고 비전 있는 작가나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올바른 미술품 유통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8]

현재 국내 화랑은 활동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획전시를 주로 하는 화랑, 둘째 장소만 빌려주는 대관전시를 주로 개최하는 화랑, 셋째로 판매위주의 중개화랑으로 나눠진다. 본 조사에서는 판매위주의 중개화랑보다는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주로 개최하는 화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근 상업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미술품 거래의 중요한 방식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통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경매에 참가할 작품을 위한 전시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들이다. 때문에 경매회사의 전시공간도 시각예술 시설로 포함시켰지만 그 수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적고, 화랑과는 거래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상업시설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시설에서 일부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대안시설

대안시설이란 보통 비영리로 운영되며, 같은 비영리 공간인 미술관이나 문예회관, 혹은 영리공간인 상업화랑과 같은 기존의 미술공간과 차별되는 전시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대안공간은 기

7) 강재현, 『한국 현대미술시장에서의 상업화랑의 비즈니스모델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5. p.8-11 참고
8) 최진영, 『화랑의 성격에 따른 공간구성과 그 실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p.41. 참고

존 갤러리의 전시 양상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원래 '대안' 이라는 용어는 달리 취할 길 혹은 방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한자에서 大案도 또 다른 대신할 수 있는 제안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대안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방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방도를 가진 어떤 실천을 함축하고 있다.[9)]

1) 대안공간

한국에서의 대안공간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 기원은 1960년대 말 미국 뉴욕의 미술인들이 운영했던 비영리 공간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1960년대의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정신이 불러온 반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미술가들도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같이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술제도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의 대안공간들은 미술관과 상업화랑, 미술가협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험적인 미술을 수용했고, 1970년대에는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개념미술 등의 전시장으로, 여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계 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다원주의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말 속에는 비주류, 인디펜던스, 다양성 등과 같은 말들이 연계되어 반-문화의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다.

대안공간에서는 작가의 지명도나 상업적 가치를 떠나 작품성이 좋은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시기회와 작품제작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이들을 위해 점차 정부와 기업, 뜻있는 개인들의 기부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안공간의 성격이 더욱 다양해져 비디오 아트나 퍼포먼스가 행해지고 재단이나 시 당국 및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조직적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비영리갤러리 및 대안공간은 3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국내의 경우에는 99년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대안공간 섬 등 네 곳의 대안공간이 생겨났고, 점차 생성과 소멸을 거듭해 오면서 현재 20여 개의 대안공간들이 활동하고 있다.

9) 김성희, 『한국 대안공간의 실태와 정체성』, 미술평단 2002년 봄호, p.24

2) 미술창작스튜디오

본 조사에서는 대안공간과 더불어 대안시설의 하나로 미술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 한다"라고 미국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시각예술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창작스튜디오의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의 '미술창작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방의 폐교를 임차 · 개조하여 '미술창작실'이란 이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술창작실의 조성목적을 보면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창작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1998년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1998년 1개, 1999년 7개, 2000년 5개, 2001년 6개, 2002년 3개, 2003년 4개, 2004년 4개를 조성해 모두 30개의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지원했다. 2002년에는 국가가 직접 젊고 유망한 미술작가들에게 창작실과 전시실을 제공하여 미술창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가 건립되어 6월 14명이 첫 입주를 시작했으며, 이어서 2003년 11월에는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가 건립되어 거주 작가 이외의 외부작가들에게도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하고 전시장 활용 시 보도자료 작성과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위에서 살펴본 대안공간의 의미처럼 기존 갤러리의 전시 양상에 대한 대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이 이뤄지며,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표의 장이 열리며, 판매로부터 자유롭고, 같은 기간 입주해 있는 자국 · 타국 시각예술인과의 교류 및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문화예술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이나 상업화랑에서 소화할 수 없는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어 본 조사에서는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대안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4. 기타 시설

위에서 언급한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이외에도 시각예술과 관련된 시설의 종류

는 매우 다양하다. 상업시설에서 일부 언급한 미술품 경매회사, 미술관 및 화랑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제전시장, 음식점, 호텔, 병원, 골프장 등 일반인이 쉽게 미술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활용한 시설 등, 미술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가로 인해 전시에 대한 개념과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 미술품 경매회사

미술품 경매란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미술품이 낙찰되는 것을 말하며 공개된 가격 경쟁에 의해 작품이 유통된다. 미술품 경매는 공개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작품의 정확한 가격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 중에는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세계적인 조직망으로 국제미술품 경매의 주축을 자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술품 경매가 처음 시도된 때는 1979년 제1회 '한국근대미술품 경매전'이다.[10] 1979년 6월 8일 신세계 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품을 중심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첫 경매였다. 이 경매전은 1981년 제3회 한국근대미술품 경매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11]

이후, 각 화랑들을 통해서 소규모의 경매가 이루어지다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1998년 가나화랑에서 서울경매를 설립했고, 1999년 (주)마이아트에서 옥션아츠를 설립했으며, 2005년 K옥션이 설립되었다.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① 서울옥션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주)서울옥션은 1998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9년 9월 전용 경매장과 전시 시설을 갖춘 서울옥션하우스를 개관했다. 서울옥션하우스는 지하 1층 경매장과 작품보관창고, 지상 1층 전시장, 2층 사무실 공간, 3층 카페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2년 개관한 서울옥션센터는 전시, 페어, 이벤트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규모의 현대식 전시공간으로 1층 전시장 및 경매장, 2·3층 사무공간, 3층 작품보관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7월까지 107회의 메이저경매인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를 진행했고, 2007년 5월까지 9번의 열린경

10) 김달진,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발언, p.166
11) 민소영, 『한국 화랑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p.56

매, 2006년 9월까지 5번의 Cutting Edge, 2006년 12월에는 자선경매 White Sale 등을 진행했다. 2006년에는 서울옥션 인사점, 부산점, 강남점 등을 열었다.

② K옥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주)케이옥션은 2005년 9월 종로구 사간동에서 설립되었다. 2005년 11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2006년 총 8회의 경매와, 2007년 4회의 경매를 진행했다. K옥션의 2007년 3월 경매에서는 164점이 출품돼 134점이 낙찰되어 82%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총 낙찰 금액이 103억 원을 기록했고, 5월 경매에서는 118억여 원어치의 작품이 팔려 미술품 경매 시장의 활황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에는 전북 전주의 A-옥션(Ace Art Auction)과, 외국가구 수입업체 엠포리아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미술품 경매회사 D옥션, K옥션의 기술지원을 받아 대구MBC가 세운 옥션M, 부산 힐코리아 건설사의 전기열 씨가 세운 아르바자르의 온라인 옥션, 작가와 컬렉터 중심으로 세워지는 경매회사인 오픈옥션이 등 설립되어 첫 경매를 실시하는 등 미술품 경매시장의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 미술품 경매회사는 대부분 경매를 실시하기에 앞서 프리뷰 형식의 전시를 갖게 마련인데, 최근 미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 힘입어 신설 미술경매회사가 속출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개 이들 공간들은 고급화 · 대형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국내 시각예술의 시장 진입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기타공간

① 전시컨벤션센터

대표적으로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COEX)를 예로 들 수 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태평양홀은 규모 10,368㎡(약 3,136평), 신관 1층에 위치한 인도양홀은 규모 8,010㎡(약 2,423평) 규모로 국내에 시각예술관련 전시장 중 1개 층에 이만한 면적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 때문에 국제적인 미술전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이곳에서 열린다. KIAF 2007에는 전 세계 18개국 208개 화랑이 참여했다.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대체적으로 3일~1주일가량 열리는데 미술 전시 이외에도 한국결혼상품전, 교육박람회, 여행박람회, 취업박람회, 세계문화체험박람회, 서울국제도서전

등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전시가 진행된다. 2007년에 열린 시각예술관련 전시로는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5.9~5.13), 제1회 아트스타 100인전(7.17~7.22), 아트옥션쇼 인 서울(9.12~9.16) 등 3건이다.

② 카페, 음식점, 관공서, 호텔, 은행 등

생활패턴이 다변화 되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간들이 속출하고 있다. 관공서인 서울시 노원구청은 청사 로비에 892㎡(270평) 규모의 '갤러리카페 노원'을 5월에 개관했고 서울 풍납동의 '서울아산병원갤러리', 서울 중구 저동 삼일로창고극장 복도에 마련된 '삼일로창고갤러리', 종로구 부암동에 가로 세로 3m안팎에 불과한 미니 전시장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구에 개관한 '갤러리 아쿠아', 동숭동 샘터 출판사는 건물 지하창고를 활용한 '샘터 갤러리' 작가작업실과 카페가 공존하는 공간인 인사동 '갤러리 상 157', 외환은행 평창동 지점의 '로즈갤러리', 슈퍼마켓식 미술 상설 매장인 '쌈지아트마트' 등 점차 전시공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일반인과 미술의 간격을 좁혀 미술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역시 그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배재하기로 했다.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전시공간들 중, 그간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곳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미술관과 문예회관 정도였다. 본 조사에서는 그동안 활동 및 지원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화랑, 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 운영,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다.

3

제3장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






제3장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로 미술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현재 한국 미술의 활동기반이 되고 있는 주요 시각예술 분야의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건립 및 운영현황이 파악되고 있지만 사립시설에 대한 파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조사는 국·공·사립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당면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현대사회의 시각예술분야 시설은 지역사회와 시각예술가, 이용자를 위한 문화·예술·사회·교육·후생·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한 시점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 시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 연구가 제시해야 할 방향을 찾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번 장에서는 시각예술 시설에 관한 정부 간행물, 연구 기관에서 발간된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문헌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정리·분석해 보았다. 전국의 전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현황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된 전시시설을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시각·조형예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전시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초석을 마련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공공적 문화향수의 목적으로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전시시설의 역할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일반현황

1. 미술관

1) 시설 현황

2007년에 발간된 『미술관 진흥 비전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국 · 공, 사립 및 대학미술관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미술관이 등록 및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덕수궁미술관을 포함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일하게 운영되는 국립미술관이며, 공립미술관은 18개관으로서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9개관, 수원미술전시관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9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미술관은 총 70개관으로 국내 전체 미술관의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 경기 등 주로 수도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국에서 등록된 미술관의 55.0%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과 수도권의 미술 인프라에 심한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경우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춰 교내외에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지만, 정식 등록된 미술관은 조선대와 경성대, 숙명여대, 서울대 등 4곳에 불과하다.

[표 3-1] 국내 미술관 현황[12]

(단위: 개)

시/도	미술관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강원	3	–	1	2	–
경기	19	1	2	16	–
경남	3	–	2	1	–
경북	3	–	–	3	–
광주	3	–	1	1	1
대구	–	–	–	–	–
대전	3	–	1	2	–
부산	3	–	1	1	1
서울	29	–	1	27	1
인천	3	–	1	2	–
전남	7	–	2	5	–
전북	3	–	2	1	–
제주	4	–	2	2	–
충남	4	–	–	4	–
충북	5	–	2	3	–
울산	–	–	–	–	–
합계	92	1	18	70	3

2) 소장 작품 현황

국 · 공립미술관 및 등록 사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02,916점(국립현대미술관 5,936점, 공립미술관 28,310점, 사립미술관 68,67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한국화 10,385점, 서양화 14,240점, 드로잉/판화 6,425점, 조각 6,279점, 공예 11,250점, 서예 13,349점, 사진 11,999점, 미디어아트 210점, 기타 27,457점 등이었다.

그리고 1,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23개관(25.0%)이었으며, 200점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도 25개관(2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진흥 비전 2020』, 2007, p.98

[표 3-2] 분야별 소장 작품 현황[13] (2006년 12월 기준) (단위: 점)

구분	한국화	서양화	드로잉·판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	기타	계
국립	613	2,158	1,153	634	308	350	648	59	–	13	5,936
공립	4,290	3,727	1,652	689	5,965	7,498	722	37	1,006	2,724	28,310
사립	5,482	8,355	3,620	4,956	4,977	5,501	10,629	114	316	24,720	68,670
계	10,385	14,240	6,425	6,279	11,250	13,349	11,999	210	1,322	27,457	102,916

2. 문예회관

국내 문예회관은 1983년 문화공보부의 지역문화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확대,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 자치단체 당 1관 수준의 248개 지방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14] 2006년 현재 155개의 문예회관이 건립되었다.

[표 3-3] 국내 문예회관 건립 현황 (2006.12.31 기준)[15] (단위: 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수	13	6	7	5	4	2	2	22	13	8	12	15	13	16	16	1	155
건립예정수	1	2	1	–	1	–	2	3	1	2	2	3	3	4	3	2	30

[표 3-4] 문예회관 건립 추이[16] (단위: 개)

구분	1997	2002	2003	2004	2005	2006
문예회관	79	113	122	132	150	155

1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진흥 비전 2020』, 2007, p.101
14) 황정현, 『문예회관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3, p.6
15)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웹사이트(www.nanac.or.kr)자료실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06, p.29

[표 3-5] 국내 문예회관 건립 예정기관[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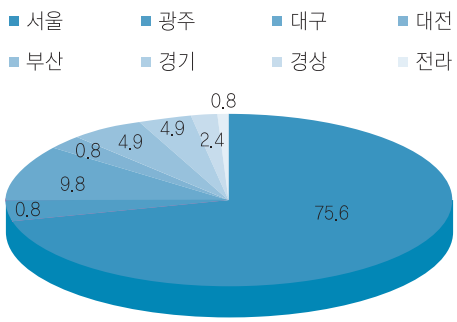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립예정 기관명	구로	해운대 영도	수성	-	동구	-	남구 울주군	고양 하남 이천	인제	옥천 음성	청양 아산	김제 장수 고창	화순 신안 장성	군위 청송 울진 울릉	마산 창녕 함양	한라 저지

3. 화랑

현재 국내 화랑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기가 어렵다. 화랑은 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설립과 폐업이 자유로워 통계를 추출하기가 힘들다.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의해 전국의 약 350개 이상의 화랑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사)한국화랑협회의 회원 화랑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화랑협회는 전국 화랑들의 모임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1979년 문화공보부 산하의 사회단체로 등록되고, 1991년 사단법인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현재 한국화랑협회의 회원수는 125곳으로 정회원 111곳, 준회원 14곳 이다. 이중 서울에 소재하는 화랑이 93곳으로 7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사)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된 갤러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17)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웹사이트(www.nanac.or.kr)자료실

4. 대안공간

대안공간은 전통적인 미술관과 상업화랑으로 대표되는 미술제도, 곧 국가권력과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한 비영리 공간을 지칭한다. 이러한 재정적 자율성이 주류미술의 보수성을 넘어서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미술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고, 이를 기초로 미술관이나 상업화랑에서 쉽게 고갈되는 작가적 상상력과 도발적 작품의 생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안공간이 존재하는 의미라고 폭넓게 말할 수 있다.[18]

1999년에 인사동에 생겨난 대안공간 풀은 전시 못지않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담론 형성에 무게를 실어왔고, 같은 인사동의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은 작가 중심의 전시를 본격적으로 기획했다. 홍대 앞의 대안공간 루프는 초기에 작가들이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앞서 다룬 대안공간의 개념과 운영 방식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상업자본과 국고지원으로 설립된 대안공간도 있는데 그 예로, 태광그룹 흥국생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주아트하우스는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주)쌈지가 설립한 쌈지스페이스, 국고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주요 대안공간들은 1990년대 말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에 이후에는 인천, 부산, 대구 경기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쌈지스페이스,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소나무, 대안공간 마루, 스페이스 빔, 대안공간 반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에는 홍익대학교 부근이 대안공간의 메카로 부각되고 있는데 초창기 대안공간 루프와 쌈지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아트스페이스 휴, 대안공간 미끌, 대안공간 팀 프리뷰 등이 설립되어 신진시각예술인의 활동과 홍대 앞 특유의 지역색이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18) 백지숙, 「대안공간의 허와 실 – 동시대 한국 대안공간의 좌표」, 월간미술, 2004. 2

[표 3-6] 한국의 주요 대안공간 설립 현황[19]

지역	대안공간명	설립년도	지역	대안공간명	설립년도
서울	대안공간루프	1999.2.6	인천	스페이스빔	2002.1.19
	대안공간풀	1999.4.2	부산	대안공간반디	2002 (1999 대안공간 섬)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1999.10.20	대구	대안공간싹	2006.9
	쌈지스페이스	2000.6	경기 고양	비닐하우스 AA	2003.7
	인사미술공간	2000	경기 안성	대안공간소나무	2002.4.6
	일주아트하우스	2000.10	경기 수원	대안공간눈	2005.4.23
	아트스페이스휴	2003.4.4	경남 창원	대안공간마루	2001 (1995 창원갤러리)
	대안공간미끌	2005.12	제주	아트스페이스C	2006.5
	대안공간건희	2005.4.16		대안공간 제주결	2006.11.11
	대안공간 팀프리뷰	2003			

5. 창작스튜디오

작품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작품공간과 일정기간 보관해 둘 수 있는 공간, 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품 창작의 특성상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크기의 작업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어서 작가들에게는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작스튜디오는 창작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창작스튜디오 등이 설립되어 왔는데,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부터는 민간기업과 미술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동 ·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의 경안창작스튜디오, (주)쌈지에서 운영하는 쌈지스튜디오, 서울시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3-7] 전국 국 · 공 ·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20]

(단위: 개)

비고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2	1	–	–	–	–	–	–	1	–	–	–	–	–	–	–	–
공립	29	1	–	1	–	2	–	–	2	4	3	1	3	1	6	5	–
사립	23	2	–	1	–	–	–	–	13	1	1	–	1	1	–	3	–
합계	54	4	–	2	–	2	–	–	16	5	4	1	4	2	6	8	–

19) 「대안공간 9곳에 묻는다–대안공간에 대한 이유있는 발언」, 월간미술, 2004. 2 참고로 재구성
20) (2006년 기준)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 1차 자료집, p.3

이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의 역할과 더불어 숙식, 거주 기능을 확보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화센터, 국제문화교류의 현장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작업실과 오픈스튜디오 정도로만 개방했던 창작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이 함께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 고양창작스튜디오도 『새 예술정책』의 발표에 의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스튜디오로 전환되어 국내 예술인 뿐 아니라 외국예술인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시설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2005년에는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유망 작가 5명을 초청해 지원했다.

문화관광부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목적을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기회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 주변의 문화공간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킴"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에서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미술창작스튜디오 협력망 구축사업'을 시행해 단순히 작업실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곳이 아닌 지역연계프로그램, 학술행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2절 활동현황

1. 미술관

미술관의 역할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미적가치를 지닌 작품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술관은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관람자들에게 작품이 지니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관은 전시라는 활동을 통해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고전적인 전시형태가 일방적인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현대에는 적극적인 관람객의 수요, 요구, 기호를 파악하여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적' 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전시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구분되고 있다. 상설전시란 그 미술관이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상시 전시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포함된다.

국 · 공 · 사립미술관에서는 연간 434개의 기획전시(국립 15개, 공립 119개, 사립 300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기획전이 없이 상설전만 운영하는 기관도 10개관(공립 1개, 사립 9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 전시 운영현황[21]

(단위: 회)

구분	기획전시	상설전시	소계
국립	15	5	20
공립	119	20	139
사립	300	61	361
계	434	86	520

2.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대개 공연장, 전시실, 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다. 공연장의 공연은 대관과 자체기획 등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해당 문예회관 내에서 주로 결정한다.

2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진흥 비전 2020』, 2007, p.101

대표적 시각예술시설인 전시실의 경우는 공연장에 비해 그 비중이 낮으며 대부분 대관을 통해 운영된다. 문예회관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문예회관의 운영에 대한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문예회관의 활동영역 확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기능 이외에 문화강좌, 체육시설, 예식장 등 다목적 시설로 1999년에 건립되었다. 이 시설은 문화강좌,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특별기획행사, 영화상영, 월간지발간 등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개설된 문화강좌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음악 · 댄스, 요리 자격증반, 교양 · 취미 · 공예 등에 그쳐 타 문화시설과 차별화가 이뤄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소년 벼룩시장, 댄스 연습공간 제공, 회관 광장에 식물 재배, 전문예술단체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공연 등이 진행됐다.

위의 단편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의 성격이 지역민의 예술 활동 진흥이나 예술 교육을 통한 예술인 양성이 프로그램의 목적보다는 보편적으로 운영이 용이한,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적 재능과 욕구가 있는 학생 및 성인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단편적이지만 미국의 한 문예회관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케네디 센터의 교육부서에서는 어린이, 젊은이, 가족, 성인, 교육자들에게 공연예술의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용, 버라이어티, 음악, 오페라, 인형극, 스토리텔링, 연극 등 7개 영역에 걸친 공연장르를 포함한 작품을 학교그룹에 제공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공연작품은 현대적인 스타일에서 고전적인 스타일까지 포함하며, 동화 · 힙합 · 대중음악 · 희극 코메디 · 무성영화 · 음악과 유머 · 말잇기 놀이 등이 결합된 공연으로 구성되고, 각 나라의 정신적 가치 및 전통적인 특징을 살린 작품도 포함된다. 또한 수학과 무용, 수학과 음악, 과학과 음악,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예술로 교과과목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공연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케네디 센터에서는 매년 2개에서 4개의 작품을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학교를 투어하며 학생, 교사, 아이들, 부모들에게 공연을 제공한다. 이때 공연지침서와 교사들의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 포함하여 진행된다. 공연지침서는 학생들에게 연기자, 디자이너, 감독, 저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비록 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시각예술분야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예를 들어보아도 국내의 문예회관과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회관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과 지역민을 예술로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예술향유층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예술가로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00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한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살펴보면, 150개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곳의 문예회관이 응답했고, 그들이 응답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시설 확충 및 개선(56.8%), 재정확충(47.7%),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개발(47.7%), 조직 및 인력 확충(43.2%)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3-9] 요구하는 개선사항[22)]

(단위: %)

중점 부분	응답률
시설 확충 및 개선	56.8
재정확충	47.7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개발	47.7
조직 및 인력 확충	43.2
교육/홍보 강화	13.6
문화예술행사 증가	9.1
공연건수 증가	9.1
전시횟수 증가	4.5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시설, 재정, 인력,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문예회관 내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06, p.78

현재까지는 지역문예회관들의 비전문적 운영과 질이 낮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를 통해 문예회관의 활동 및 운영 실태를 수치로 증명하였다.

3. 화랑

2장에서 화랑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랑은 기획전시를 주로 하는 화랑, 대관화랑, 중개화랑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사)한국화랑협회는 화랑의 활동 중 미술품 유통의 투명화와 아트페어 개최, 국제아트페어 참가지원 등을 통해 화랑의 역량강화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한국화랑협회의 주 활동으로는 미술품감정, 화랑미술제 개최,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술품 감정은 미술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그 진위와 시가를 감정하는 것으로 1982년에 미술품에 대한 전문 감정인으로 구성되는 감정위원회가 설립되어 매월 2회 소집되며, 접수되거나 의뢰된 미술품의 감정을 실시한다.

둘째로 화랑미술제는 1979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미술견본시장으로 매년 개최하며 협회의 모든 회원 화랑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화랑이 발굴하거나 제휴하는 대표작가의 우수한 미술품을 전시 및 거래한다. 80곳의 화랑이 참여하며 관람인원은 2~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이다. 소요자금은 참가화랑의 참가비로 조달하며, 미술유관업체의 참가비와 입장객의 관람료를 수익으로 한다.

셋째, 한국국제아트페어(이하 KIAF)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100여 개의 국내외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시대미술을 볼 수 있다. KIAF는 2007년 6회째를 치뤘고, 제1회는 부산의 BEXCO에서 제2~4회는 서울 COEX 인도양홀에서 열렸고, 제5회는 COEX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참가화랑은 200여개 화랑이며 관람인원은 5~6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넷째,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지원금으로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는 화랑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 미술의 세계무대 진출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

진되는 사업이다. 1998년 10월 발표한 정부의 새 문화 정책 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국제아트페어 참가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한국화랑협회가 선정되었고, 매년 2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참가지원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국제화 지원사업 기본 방침"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 경비 중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경비(부스비 등) 중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일정률로 배분된다.

한국화랑협회의 사업 중 국내아트페어 개최 및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이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다. 아트페어란 보통 다수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하는데, 작가 개인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화랑간의 정보교환, 작품판매 촉진과 시장의 확대를 위해 주로 화랑간의 연합으로 개최된다. 1980년을 전후해 세계 각지에서 아트페어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미술작품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고, 해외 미술품의 유입과 동시에 자국의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아트페어에서 미술작가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작품판매의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며 미술계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주도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23]

스위스 바젤(Art Basel), 미국의 시카고(Art Chicago), 프랑스의 피악(FIAC)을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개의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있는데 1979년부터 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화랑미술제가 있고, 1996년 서울국제미술제(SIAF), 청담동의 화랑들이 주최한 청담미술제, 국내외 작품을 모아 전시한 뒤 일반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마니프(MANIF),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등을 들 수 있다.

4. 대안공간

대안공간은 실험적인 미술과 젊은 작가들의 소개로 우리 미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이제 대안공간은 우리 미술계의 하나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내 대안공간의 모델이 된 미국의 비영리 대안공간들은 신진작가의 첫 개인전 지원, 아시아 아메리칸 작가들을 위한 기관 설립,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전시, 실험적인 미술의 소개 등으로 현대미술을 지원해 왔다.

23) 더불어 세계 경제동향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서지형, 『한국 미술시장 지원제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6

유럽의 대안공간은 전시뿐만 아니라 매거진, 신문, 도록 등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을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 작업에 대한 이해와 맥락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 정치, 사회, 미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작업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통과한 정제물과 같은 기록물이 나온다. 때로는 기록물 자체도 작가의 작업으로 제작되며, 필름, 사진, 책, 신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내의 대안공간들은 대부분 자체 기획전을 통한 신진 작가 발굴, 작가와의 교류, 국제교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 주요 대안공간들의 전시 및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다.

대안공간 루프는 재능 있는 젊은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신진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들의 후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화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술문화의 시야를 넓히고자 한다. 뛰어난 해외 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를 개최하고, 외국 대안공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대안공간 풀은 〈기획초대전〉을 연 4~5회, 연 1회 공모로 개인, 회화, 그룹 세 분야를 선정하는 〈새로운 작가전〉, 연 1회 신진작가 발굴 그룹전인 〈새로운 시각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시 이외에 상설 아카데미, 대안공간 네트워크 국제 워크숍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은 다양한 현대미술의 형태를 개척하고, 명확한 주제와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작업을 위해 전시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구현하는 구체성을 찾고자 한다. 한편 전시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전시 후 작가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다른 공간과 큐레이터 집단에게 소개하는 등, 작가의 다른 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쌈지스페이스는 전시프로그램의 경우 아방가르드, 언더그라운드 정신과 탈장르를 추구하며 연례기획전과 특별기획전으로 구성된다. 각 전시에는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일반관객과 적극적 소통을 시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제토론을 통해 전시하는 작가나 전시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 담론 형성을 유도한다. 1년에 6~7회의 자체 기획전으로만 운영되며 참여작가는 쌈지스페이스 스태프가 직접 발굴하고 초청한다. 쌈지스페이스는 국제교류전을 통해 한국작가와 미술을 세계무대에 전략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미술의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인사미술공간은 신진작가, 아카이브, 국제교류관련 다양한 형태의 전시, 워크숍, 심포지엄,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작가 발굴과 작가들의 해외진출 모색 및 적극적인 작가지원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5. 창작스튜디오

199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방의 폐교를 임차 · 개조하여 '미술창작실'을 조성한 이후로 그간 전국에 50여 개의 창작스튜디오가 설립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창작스튜디오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미술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 연극, 전통문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창작스튜디오의 건립은 양적으로는 비교적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이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작스튜디오의 개념정립 및 법적근거, 지원방향, 활동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건립 수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창동미술스튜디오는 외국작가를 선발해 거주 전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 관계자를 작업실로 초청하여 작업을 소개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입주가 끝난 후 다시 국내 전시에 초청되어 방문하게 되거나 해외전시에 국내작가를 초청하는 사례를 이끌어내 국내 입주 작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창동, 고양과 같은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전시, 공동 워크숍, 작가 연구 세미나, 전문가와의 대화,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술비평가, 큐레이터 등 국내 미술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공립 미술창작스튜디오는 1995년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설립한 팔각정창작스튜디오와 양산동창작스튜디오를 들 수가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연 1회의 오픈스튜디오, 입주기간중 1회의 전시회, 출판물 발간 및 홍보, 개인전 개최 지원, 국내외 창작스튜디오 작가 교류 추진, 입주작가 매니지먼트 지원 등을 제공한다.

민간에 의해 시행된 사립창작스튜디오의 시초는 1995년 파주에 설립된 '하제마을'을 꼽아 볼 수 있으며, 1998년 (주)쌈지의 쌈지 창작스튜디오, 2000년 대유문화재단의 경안 창작스튜디오,

2002년 가나화랑의 가나아뜰리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제마을의 입주작가 설정은 기존 입주 작가의 추천과 설립자와의 면담으로 이뤄지며, 작가들은 개인 작업 외에 정기적인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비정기적으로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열고 있다. 쌈지 창작스튜디오는 1년간 입주하는 '개별 입주작가'와 3개월 단위로 입주하는 '단기 거주작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단기 거주작가' 프로그램은 해외 미술가와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제 미술계에 한국의 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경안 창작스튜디오는 작업공간, 숙소, 식당, 도예공방, 세미나실 등을 마련해 창작과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본격적 의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처럼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대부분 단기 체류를 통한 작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레지던시를 병행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개 1년이나 2년 정도의 사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시적인 작업실 사용은 일정부분 신진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프랑스의 정부지원작업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주거용 아파트 단지 내에 섞여 있으면서, 집과 아파트를 같이 제공한다. 임대료는 보통 집값의 35~50% 수준이며, 사용기간의 제약이 없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3절 운영현황

1. 미술관

『2005 미술관백서』에 의하면 사립미술관의 재정자립도는 14.2%에 불과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폐관된 미술관이 곳곳에 있는가하면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상설전만 열거나 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이 전무한 미술관도 상당수 드러났다.

국내 국 · 공 · 사립미술관의 총 예산규모는 81,490,666천 원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한 공사립미술관의 예산규모는 54,448,324천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체수입 비중은 공립미술관의 경우 총 지출예산 대비 5.1%에 불과한 반면, 사립미술관은 48.0%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립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수입과 일부 운영수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반면, 사립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이외에도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수입이 많았고, 자체기부금수입, 기부금, 후원금 및 기타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운영 인력은 총 845명이었으며 국립 97명, 공립 283명, 사립 465명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종사자 가운데 학예직 240명, 학예직 이외의 전문직(별정직 등) 165명, 일반직원이 44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학예직이 한 명도 없는 미술관이 12개관이나 되었으며, 관장 1인이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전시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는 지역미술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미술관 운영인력 현황[24](2006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예직		전문직	기타직원	계
	자격증 有	자격증 無			
국립	9	9	39	40	97
공립	33	30	33	187	283
사립	77	82	93	213	465
계	119	121	165	440	845

2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진흥 비전 2020』, 2007, p.99

2.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광역시 · 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시설이며 대부분 사업소로 운영되어 진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을 통한 예산배정과 조직구성, 운영이 이루어진다. 관장은 임명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므로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전문성은 약하다. 재정의 경우는 공공문화시설로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출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를 참고해 큰 변동 없이 책정되고 수입이 생기면 그대로 지자체의 재정에 편입된다.[25]

대부분의 문예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107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단법인(9개), 시설관리공단(19개), 민간(3개)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인력의 전문성 미비, 사업예산의 부족, 관객층의 미형성 등으로 운영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표 3-11] 문예회관 운영실적 (2006년 기준, 총 155개처 대상)[26]

구분	인력 (명)		이용자 (명)		재정 (백만원)		공연일수
	직원수	전문직원수	이용자수	공연유료 관객	연간운영비	공연·대관수입	
합계	2,809	1,419	18,435,284	6,855,538	395,857	18,803	27,235
평균	18	9	118,937	44,229	2,554	121	176

문예회관의 공연시설은 점차 관심이 더해가고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330㎡(100평) 이상의 전시시설은 지역민 · 지역문화와는 전혀 무관한 전시와 작품성을 입증 받지 못한 대관 위주의 전시만이 행해지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결국 시각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서울 중심의 편중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문예회관 스스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분야 등 전문직 인원의 충원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25) 이성환, 『문예회관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6)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웹사이트(www.nanac.or.kr)자료실.

[표 3-12]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싶은 새로운 직종[27]

직종	필요성
홍보 요원 충원	공연참여율이 저조해 작품 홍보 전담요원 충원 필요
학예 담당	공연예술사자료 보존 및 연구
전문 인원	일반직원으로는 전문기획 공연 등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연출 기획 전문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인력 관리 등 공연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 필요
문화예술 전문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 영입 필요
무대, 조명, 기계, 전문인력	무대, 조명에 전문적인 인력 있어야 원활함
공연, 전시를 유치할 전문가	기획전, 초대전, 기획공연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

아울러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위주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문예회관의 운영이 운영자 스스로 각성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3. 화랑

화랑은 시각예술 시설 중 대표적인 상업시설이지만 소수 대형화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기획전시나 시각예술인의 창작후원과 같은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은 타 시각예술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화랑운영을 위한 전문인력보다는 화랑주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관리인 혹은 사무업무를 위한 직원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인력의 부재는 질 좋은 기획전시의 부재로 이어지며, 신선한 작가들의 발굴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랑은 작품의 판매를 주 활동으로 하지만 작품의 매매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시각예술인의 발굴을 통해 그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며 발굴한 작가의 작품을 보여 줄 수 있는 질 좋은 전시를 기획해야만 한다. 또한 시각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고, 국내외 전시를 참가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것이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 또한 한 화랑이 성장하는데 가장 구심점이 되는 활동이라 하겠다. 앞으로 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화랑의 재정 및 인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

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06, p.81

리를 추구하는 시설이며, 그의 지원이 타당성을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각예술을 구성하는 핵심시설인 화랑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의 판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대안공간

국내 대안공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체 혹은 기타 단체 등의 후원금에 대부분 운영자금에 의존한다. 대안공간은 재원 조성에 있어 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후원금만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물론 운영 자체에도 많은 부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대부분 자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나 각종 세미나, 아카데미 등의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술이 국제적 현대미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안공간 풀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있어 예산, 기획심의 권한, 기획 제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운영자금은 공공기금 50%, 기획대관 20%, 아카데미 20%, 후원 및 기타 10%로 구성된다. 사루비아다방-운영자금은 전시기금과 운영기금으로 운영된다. 전시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세 종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운영위원 사재출연금, 초기 사재출연금 적립금, 매년 1회의 기금마련행사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쌈지에서 설립한 쌈지스페이스는 1년 예산 중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후원으로 받고 있다. 나머지는 국공립 기관의 지원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는데, 국공립 기관의 지원금액에 따라 기업의 후원금액 비율이 달라진다. (주)쌈지는 재정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쌈지스페이스의 프로그래밍과 운영방식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타 대안공간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문화관광부가 젊은 작가 육성책의 하나로 2000년 5월에 개관했다. 정부는 방송발전기금 10억 원을 지원해 인사아트센터 3층에 396㎡(120평)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해오다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13] 한국의 주요 대안공간 운영현황[28]

대안공간명	설립년도	재원조성	인적구성
대안공간 루프	1999.2.6	국가지원 소규모 기업의 지원 운영자가 직접지원	디렉터 2명 큐레이터 2명 인턴 2명
대안공간 풀	1999.4.2	공공기금 50% 기획 대관 20% 아카데미 20% 후원 및 기타 10%	기획위원 4 큐레이터 1명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1명 인턴 큐레이터 2명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1999.10.20	문예진흥기금 (전시) 국고보조금 (전시) 서울시문예진흥기금 (전시) 운영위원 사재출연금 초기 사재출연금 적립금 기금마련행사 지원금 의존도 80%	이사장 1명 운영위원 7명 큐레이터 2명
쌈지스페이스	2000.6	(주)쌈지로부터 80~100%에 해당하는 후원금 국공립기관 지원금	관장 큐레이터 2 갤러리스트
인사미술공간	2000	문예진흥기금	큐레이터 3명
아트스페이스휴	2003.4.4	사재 개인 및 기업 후원금	디렉터, 실장,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1명
스페이스빔	2005.12	지자체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기반시설 비용 지원금 전시실 대관수익 아카데미 강좌 후원회원 회비	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 후원 · 일반회원, 사무국 학예팀, 전시기획팀, 교육팀, 공공미술팀, 디자인팀
대안공간반디	2005.4.16	운영자 전액 조달	디렉터 1명 기획자 2명

5. 창작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역시 국 · 공 · 사립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국립의 경우에는 그 설립과 운영비용 일체가 국고 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립창작스튜

28) 「대안공간 9곳에 묻는다-대안공간에 대한 이유있는 발언」, 월간미술, 2004. 2 참고로 재구성

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와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2곳이 존재한다.

공립스튜디오는 공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총 공사비 14억 원을 들여 2006년 4월에 개관했다. 연면적 849㎡(257평)에 지상 2층 건물로 총 17실의 스튜디오와 사무실, 세탁실, 휴게실, 야외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진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팔각정미술창작스튜디오는 건평 297㎡(90평)에 49㎡(15평)의 원룸 작업실 6실을 작가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운영비 등 기본적인 관리비는 시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2007년 3월 국비 10억과 시비 32억, 총 사업비 42억여 원을 들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했다. 개인 작업실 15개와 전시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청주 시내 거주자 10명과 타 지역 거주자 5명 등이 입주해 있다.

민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살펴보면 (재)대유문화재단은 2000년 11월 경기도 광주에 영은미술관과 경안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 · 운영하고 있고, (재)금호문화재단 산하 금호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 (재)한미문화재단 산하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영남방송의 후원을 받아 경북 안동에 한미사진창작스튜디오를 조성했다.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와 한미사진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운영 및 유지 관리비 전액을 재단과 미술관 측에서 부담한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사례는 (주)쌈지에서 1998년부터 운영해온 쌈지스페이스를 들 수 있다. 상업화랑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로 가나아트갤러리에서 운영하는 가나아뜰리에를 들 수 있다. 장흥아트파크가 2006년 9월에 마련한 장흥아뜰리에는 총 23실의 스튜디오 중 일정 수의 스튜디오를 타 갤러리 또는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체 측에서 입주작가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지역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경비 등을 입주작가들이 부담하는 경우, 또 입주작가들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광주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양산동스튜디오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의 유상임대 방식으로 월 24,000원 임대료를 입주 작가가 지불하며,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입주 작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제4절 지원 현황

1. 문화기반시설

현재 국 · 공 · 사립미술관의 건립 시 국립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공립미술관은 건립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사립미술관은 직접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간접지원만 이뤄진다. 정부는 등록박물관의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문예회관의 경우는 건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산하 통합복권기금운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박물관 · 미술관에 특별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3천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 기획전시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었다. 집행은 한국박물관협회 등을 통한 지원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이 교부되었다. 또한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2004 청년인턴사원채용제'가 실시되었는데, 월 60만 원씩 6개월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시행은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와 한국화랑협회 두 곳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다. 교부된 지원 총액은 2억 2천 9백만 원이었으며, 참여인원은 95명, 미술관 규모에 따라 1~2인의 인턴이 배정되었다.

2. 상업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건립 및 운영 지원은 현재 문화정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건립과 운영의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자산 형성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및 국제미술행사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2006년 1월 미술품 감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미술품 감정인력 육성 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사업의 수행기구인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에서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 그리고 한국고미술협회와 공동으로 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는 1995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와, 2000년에 시작된 부산비엔날레가 대표적이며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6년 개최된 제2회 금강

국제자연비엔날레, 제1회 대구사진비엔날레, 2007년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에도 일부가 지원되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아트페어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사)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창설한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연간 3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해외 유명 아트페어 참가화랑들의 경비를 (사)한국화랑협회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국내 37개 화랑이 참여하였다.

3. 대안시설

대안공간의 경우는 건립에 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문화관광부의 1998년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조성할 계획을 세웠었고, 2004년 발표된 '새 예술정책'에 의해 2008년까지 2,000개의 스튜디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에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설립된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건립예산이 30억 원(부지매입비 23억 원 포함), 2004년 설립된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는 32억 원(부지매입비 10억 원 포함)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창동 · 고양 미술창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비 전액인 5억 5천만 원이, 2005년도 운영사업비 전액인 10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총 공사비 14억 원을 들여 2006년 4월에 개관했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팔각정미술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운영비 등 기본적인 관리비는 시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2007년 3월 국비(國費) 10억과 시비(市費) 32억, 총 사업비 42억여 원을 들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했다.

위의 지원실태에서 살펴보듯이 문화기반시설 및 대안시설 등 국 · 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은 건립지원부터 운영, 인적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및 사립시설은 건립부터 운영까지 설립주체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립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제 혜택과 일부 전시활동, 운영에 대해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다음 4장에서는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의 일반현황, 활동현황, 운영현황, 지원현황 등을 파악해 위에서 살펴본 각 시설별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 · 검증하였다.

4

제4장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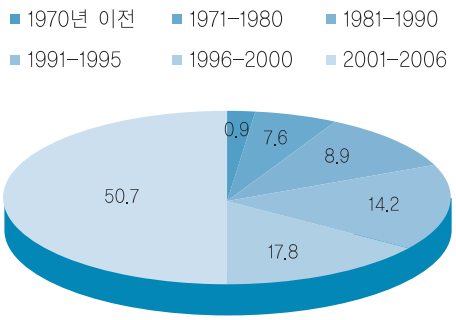
1. 응답기관 특성

1) 설립연도

시각예술 시설의 설립연도는 시각예술 분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대안공간 지원 정책의 신설 등 문화계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환경, 대중의 인식 등의 큰 변화가 있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각예술 시설의 설립의 증감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1991년 이후부터는 5년 간격으로 단위를 좁혀 결과를 집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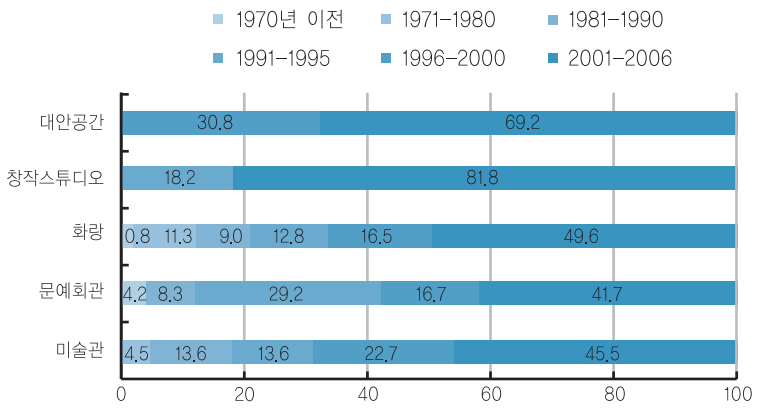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001~2006년 사이에 설립된 시각예술시설이 전체 응답 시설의 과반수 이상인 114개(5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996~2000년이 17.8%, 1991~1995년이 14.2% 순으로 나타나 국내 시각예술의 설립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시설의 설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시각예술 시설의 양적 확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시설 설립연도 분포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2001~2006년 사이에 설립된 시설이 가장 많았다. 특히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81.8%가 2001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대안공간의 경우는 응답 시설의 100%가 1996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시각예술 시설에 있어 대안공간과 창작스튜디오의 본격적 활동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유형들에서 설립의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볼 수 있었다. 단, 예외적으로 화랑은 1980년대, 문예회관의 경우는 1996~2000년의 설립이 잠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4-2] 시설유형별 설립연도 추이 (단위: %)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13개 지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상 등 8개 지역에서는 2001~2006년에 설립된 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나머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시각예술분야 시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별 문화향수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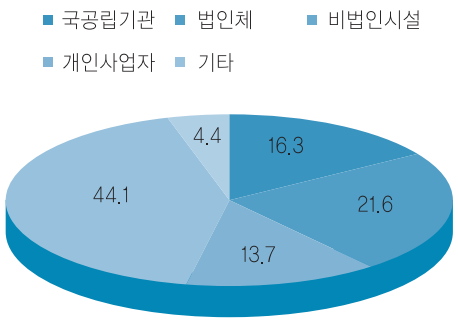
[표 4-1] 시설유형별 · 지역별 설립연도 분포 (단위: %)

구분		응답자	1970년 이전	1971~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6
전체		100.0 (225)	0.9 (2)	7.6 (17)	8.9 (20)	14.2 (32)	17.8 (40)	50.7 (11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	4.5 (2)	13.6 (6)	13.6 (6)	22.7 (10)	45.5 (20)
	문예회관	100.0 (24)	4.2 (1)	–	8.3 (2)	29.2 (7)	16.7 (4)	41.7 (10)
	화랑	100.0 (133)	0.8 (1)	11.3 (15)	9.0 (12)	12.8 (17)	16.5 (22)	49.6 (66)
	창작스튜디오	100.0 (11)	–	–	–	18.2 (2)	–	81.8 (9)
	대안공간	100.0 (13)	–	–	–	–	30.8 (4)	69.2 (9)
지역별	서울	100.0 (125)	0.8 (1)	11.2 (14)	7.2 (9)	11.2 (14)	15.2 (19)	54.4 (68)
	부산	100.0 (7)	–	14.3 (1)	14.3 (1)	–	57.1 (4)	14.3 (1)
	인천	100.0 (3)	–	–	–	66.7 (2)	–	33.3 (1)
	대전	100.0 (5)	–	–	–	–	80.0 (4)	20.0 (1)
	대구	100.0 (15)	–	13.3 (2)	6.7 (1)	20.0 (3)	13.3 (2)	46.7 (7)
	광주	100.0 (9)	–	–	–	44.4 (4)	11.1 (1)	44.4 (4)
	강원	100.0 (4)	–	–	25.0 (1)	25.0 (1)	25.0 (1)	25.0 (1)
	경기	100.0 (22)	–	–	22.7 (5)	9.1 (2)	13.6 (3)	54.5 (12)
	충청	100.0 (12)	–	–	16.7 (2)	25.0 (3)	16.7 (2)	41.7 (5)
	전라	100.0 (7)	–	–	–	14.3 (1)	28.6 (2)	57.1 (4)
	경상	100.0 (11)	9.1 (1)	–	–	18.2 (2)	9.1 (1)	63.6 (7)
	제주	100.0 (4)	–	–	25.0 (1)	–	–	75.0 (3)
	무응답	100.0 (1)	–	–	–	–	100.0 (1)	–

2) 법적성격

시각예술 시설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시설이 개인사업자(44.1%)였고, 국공립기관이 16.3%, 법인체가 21.6%, 비법인 사설이 13.7%, 기타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형태가 다른 법적 성격의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번 조사 대상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랑이 주로 개인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림 4-3] 시설의 법적성격 비율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 유형은 문예회관(79.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창작스튜디오(54.5%), 미술관(22.7%) 순이었고, 반대로 화랑(1.5%)과 대안공간의 경우(0%)는 국공립기관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체는 대안공간(38.5%), 미술관(31.8%), 창작스튜디오(27.3%) 순이었으며, 비법인사설은 미술관(29.5%), 대안공간(23.1%), 화랑(10.4%)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그 편차의 폭이 크지 않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화랑이 65.2%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안공간이 23.1%, 미술관이 13.6% 순이었다. 개인 사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시설유형은 문예회관(8.3%), 창작스튜디오(9.1%)였다.

[표 4-2] 시설유형별 법적성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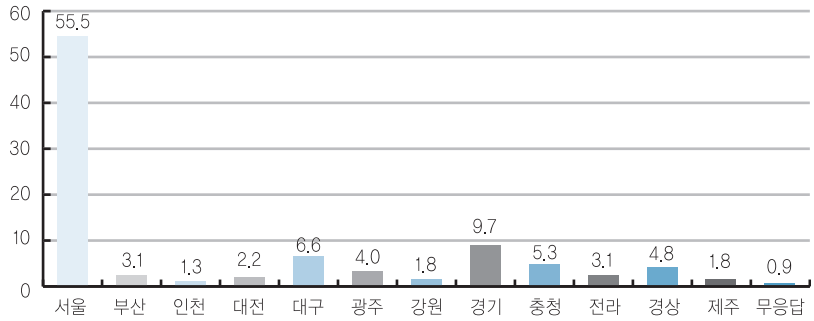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국공립기관	법인체	비법인사설	개인사업자	기타
전체		100.0 (227)	16.3 (37)	21.6 (49)	13.7 (31)	44.1 (100)	4.4 (10)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2.7 (10)	31.8 (14)	29.5 (13)	13.6 (6)	2.3 (1)
	문예회관	100.0 (24)	79.2 (19)	4.2 (1)	–	8.3 (2)	8.3 (2)
	화랑	100.0 (135)	1.5 (2)	19.3 (26)	10.4 (14)	65.2 (88)	3.7 (5)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27.3 (3)	9.1 (1)	9.1 (1)	–
	대안공간	–	100.0 (13)	38.5 (5)	23.1 (3)	23.1 (3)	15.4 (2)

3) 소재지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시설이 서울 지역에 집중해 있

어, 그 외의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지역은 경기(9.7%), 대구(6.6%), 충청(5.3%) 등의 순으로 전부 10%미만이었다.

[그림 4-4] 시각예술 시설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각 시설 유형 별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은 서울지역에 가장 많은 시설이 집중해 있었으나, 문예회관과 창작스튜디오는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광주, 충청, 전라 등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전체 44개 시설 중 38.6%인 17개 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22.7%)에 위치한 곳이 많았다. 화랑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곳이 7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은 대구(9.6%)였고, 대안공간은 서울(61.5%), 부산(1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예회관은 충청(29.2%), 경상(16.7%) 순이었고,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광주와 전라가 각각 27.3%였으며, 다음이 서울(1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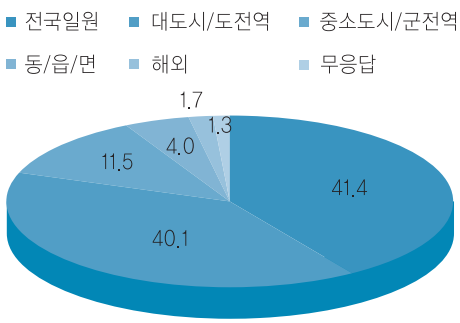
[표 4-3] 시설유형별 지역별 시설 분포 (단위: %)

구분		응답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무응답
전체		100.0 (227)	55.5	3.1	1.3	2.2	6.6	4.0	1.8	9.7	5.3	3.1	4.8	1.8	0.9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38.6	2.3	–	4.5	–	2.3	4.5	22.7	4.5	2.3	9.1	6.8	2.3
	문예회관	100.0 (24)	8.3	–	4.2	4.2	4.2	8.3	8.3	8.3	29.2	8.3	16.7	–	–
	화랑	100.0 (135)	71.9	3.0	0.7	1.5	9.6	2.2	–	5.9	1.5	0.7	1.5	0.7	0.7
	창작스튜디오	100.0 (11)	18.2	–	–	–	–	27.3	–	9.1	9.1	27.3	9.1	–	–
	대안공간	100.0 (13)	61.5	15.4	7.7	–	7.7	–	–	7.7	–	–	–	–	–

4) 지리적 활동범위

시각예술 시설이 활동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는 시설의 활동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각 시설의 지역에 대한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대해 전국 일원, 대도시/도, 중소도시/군, 동/읍/면, 해외지역, 기타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일원을 선택한 시설이 41.4%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도시/도 범위에서 활동하는 시설이 40.1%였으며, 중소도시/군이 11.5%, 동/읍/면이 4.0% 순으로 국내의 경우 활동의 범위가 작아질수록 해당 시설의 수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외지역의 경우는 가장 낮은 1.7%로 나타났다.

[그림 4-5] 시각예술 시설 지리적 활동 범위 (단위: %)



시설의 유형별로 지리적 활동범위를 살펴보면 시설의 활동범위가 전국 일원이라고 답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대안공간(53.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관(47.7%), 창작스튜디오(45.5%)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문예회관은 20.8%에 그쳤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중소도시/군의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이 54.2%로 다른 시설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문예회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중추 문화활동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읍/면 범위에서 활동하는 시설의 비율은 창작스튜디오가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비교적 작은 단위의 지역에 대한 개입을 고민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설의 비율은 창작스튜디오(9.1%), 대안공간(7.1%), 화랑(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시설유형별 지리적 활동범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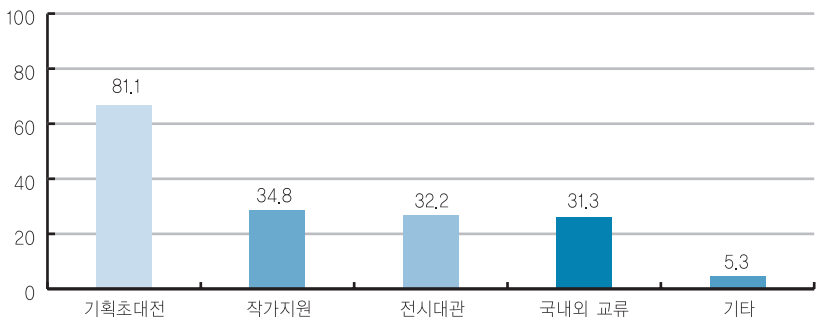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전국일원	대도시/도	중소도시/군	동/읍/면	해외지역	무응답
전체		100.0 (227)	41.4 (94)	40.1 (91)	11.5 (26)	4.0 (9)	1.7 (4)	1.3 (3)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47.7 (21)	40.9 (18)	6.8 (3)	4.5 (2)	–	–
	문예회관	100.0 (24)	20.8 (5)	16.7 (4)	54.2 (13)	8.3 (2)	–	–
	화랑	100.0 (135)	41.5 (56)	45.9 (62)	6.7 (9)	2.2 (3)	1.5 (2)	2.2 (3)
	창작스튜디오	100.0 (11)	45.5 (5)	27.3 (3)	–	18.2 (2)	9.1 (1)	–
	대안공간	100.0 (13)	53.8 (7)	30.8 (4)	7.7 (1)	–	7.7 (1)	–

5) 중점 활동

시각예술 시설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기획 초대전, 전시 대관, 작가 지원, 국내외 교류,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시각예술 시설의 중점적 활동은 각 시설의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드러나는 성과이며, 재정적 지출 혹은 수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는 기획 초대전을 선택한 시설이 전체의 81.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작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 34.8%였으며, 전시 대관이 32.2%, 국내외 교류가 31.3%, 기타 활동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많은 수의 시각예술 시설이 직접적인 수익 활동이나 공공지원, 교류 활동에 비해 각 시설 고유의 전시를 기획하는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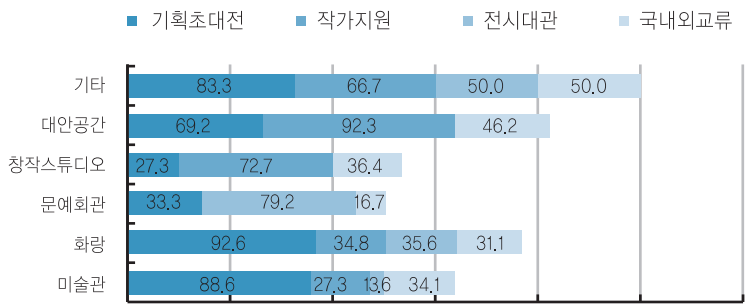
[그림 4-6] 시각예술 시설의 중점활동-복수응답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랑과 미술관은 중점 활동으로 기획초대전을 선택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문예회관의 경우는 전시 대관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창작스튜디오와 대안공간은 작가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을 선택한 시설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초대전은 화랑(92.6%)과 미술관(88.6%), 대안공간(69.2%)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창작스튜디오(27.3%)와 문예회관(33.3%)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획 초대전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시설의 응답 결과는 응답한 시설의 명칭, 개별적인 성격, 기타 답변내용으로부터 판단해볼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기획초대전'의 의미를 각 시설이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중점적으로 수행' 함의 의미를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시각예술 시설 유형별 중점활동-복수응답 (단위: %)



일반적으로 기획초대전이란 시설에 소속된 학예연구원이나 외부에서 섭외된 기획자에 의해 일정기간 자료 조사와 연구과정을 거친 후 전시 주제와 개념 전개의 타당성, 일반인과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시설의 성격과의 부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거친 전시를 의미하며, 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 학예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획 및 연구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소 다른 기준에서일지라도 기획 초대전 활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문화콘텐츠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관련해 시사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연구에서 질문지를 만들 때 기획초대전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활동

업무의 비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 등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전시 대관의 경우는 문예회관이 79.2%로 화랑(35.6%), 미술관(13.6%)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창작스튜디오와 대안공간의 경우는 전시 대관을 중점 활동으로 선택한 시설이 없었다. 작가 지원은 대안공간(92.3%)과 창작스튜디오(72.7%)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랑(34.8%), 미술관(27.3%) 순이었고, 문예회관의 경우는 작가 지원을 선택한 시설이 없었다. 국내외 교류는 대안공간(46.2%), 창작스튜디오(36.4%), 미술관(34.1%), 화랑(31.1%) 순으로 시설 유형간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다음은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 중점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공립 기관의 경우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비율이 전시대관(51.4%), 기획초대전(43.2%), 작가지원(21.6%)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시대관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37개 국공립기관 중 과반수이상인 19개에 이르는 문예회관이 전시대관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체의 경우는 기획초대전이 79.6%, 작가지원이 38.8% 순이었으며, 비법인 사설 단체의 경우 기획초대전(87.1%)과 국내외 교류(38.7%) 순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획초대전(93.0%)과 작가지원(37.0%) 순으로 응답했다.

[표 4-5] 유형별 · 법적종류별 중점 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기획초대전	작가지원	전시대관	국내외교류	기타	무응답
전체 (227)		81.1 (184)	34.8 (79)	32.2 (73)	31.3 (71)	5.3 (12)	1.8 (4)
시설유형별	미술관 (44)	88.6 (39)	27.3 (12)	13.6 (6)	34.1 (15)	4.5 (2)	2.3 (1)
	문예회관 (24)	33.3 (8)	–	79.2 (19)	16.7 (4)	20.8 (5)	8.3 (2)
	화랑 (135)	92.6 (125)	34.8 (47)	35.6 (48)	31.1 (42)	3.0 (4)	–
	창작스튜디오 (11)	27.3 (3)	72.7 (8)	–	36.4 (4)	9.1 (1)	9.1 (1)
	대안공간 (13)	69.2 (9)	92.3 (12)	–	46.2 (6)	–	–
법적종류별	국공립기관 (37)	43.2 (16)	21.6 (8)	51.4 (19)	13.5 (5)	13.5 (5)	8.1 (3)
	법인체 (49)	79.6 (39)	38.8 (19)	22.4 (11)	34.7 (17)	2.0 (1)	–
	비법인사설 (31)	87.1 (27)	35.5 (11)	16.1 (5)	38.7 (12)	3.2 (1)	–
	개인사업자 (100)	93.0 (93)	37.0 (37)	34.0 (34)	34.0 (34)	4.0 (4)	–
	기타 (10)	90.0 (9)	40.0 (4)	40.0 (4)	30.0 (3)	10.0 (1)	1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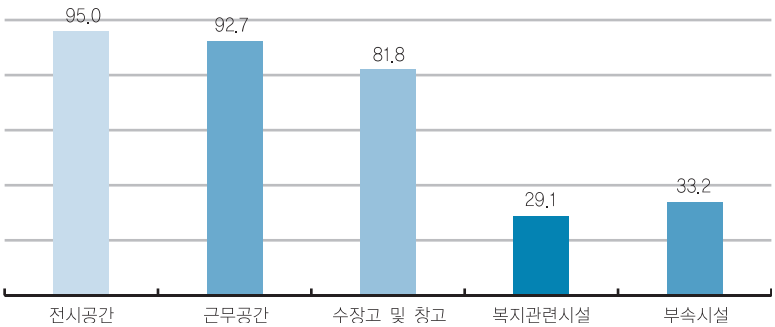
2. 공간 현황

1) 공간 구성

시각예술 시설에 있어 공간의 구성과 규모는 시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2항에서는 시각예술 시설의 공간 보유 현황과 세부적 구성, 규모 등을 조사함으로써 시설의 규모와 운영, 활동 등의 물리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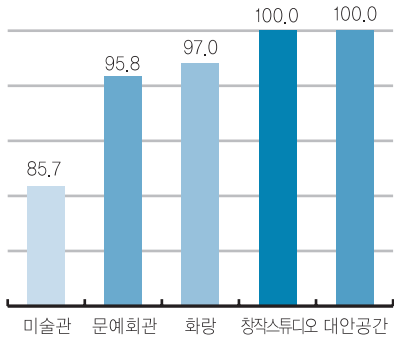
전시 공간, 근무 공간, 수장고 및 창고, 복지 관련시설, 부속시설(아트샵, 카페 등) 중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의 규모(넓이)를 알아보았다. 이 질문에는 220개 시설이 응답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공간 규모를 밝힌 시설을 기준으로 각 공간의 보유 여부를 보면 응답 시설의 95.0%인 209개 시설이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무공간(92.7%), 수장고 및 창고(8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관련 시설은 29.1%, 부속시설은 33.2%만이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4-8] 시설의 기능별 공간 보유율-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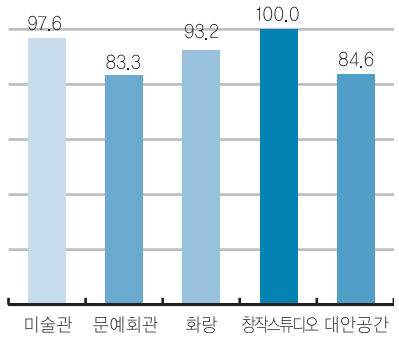


각 공간의 보유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창작스튜디오(100%), 대안 공간(100%), 화랑(97.0%), 문예회관(95.8%), 미술관(85.7%), 대학 내 전시공간(82.0%) 순이었으며, 근무 공간이 창작스튜디오(100%), 미술관(97.6%), 화랑(93.2%), 대안공간(84.6%), 문예회관(83.3%) 순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큰 격차 없이 비교적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

[그림4-9] 시설의 전시공간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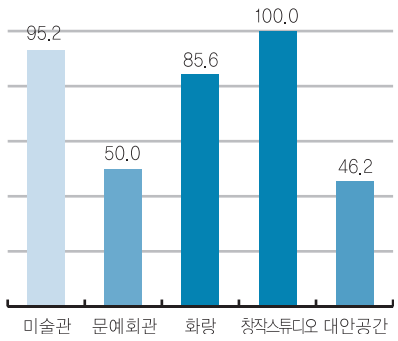
[그림4-10] 시설의 근무공간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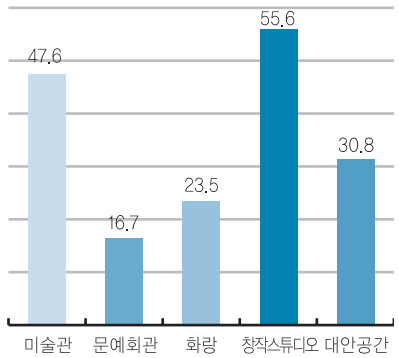
수장고 및 창고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100%), 미술관(95.2%), 화랑(85.6%)은 높게 나타났으나, 문예회관이 50.0%, 대안공간이 46.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

복지관련 시설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가 55.6%, 미술관이 47.6%, 대안공간이 30.8%, 화랑이 23.5% 순이었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문예회관은 16.7%로 창작스튜디오와 3배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4-11] 시설의 수장고 및 창고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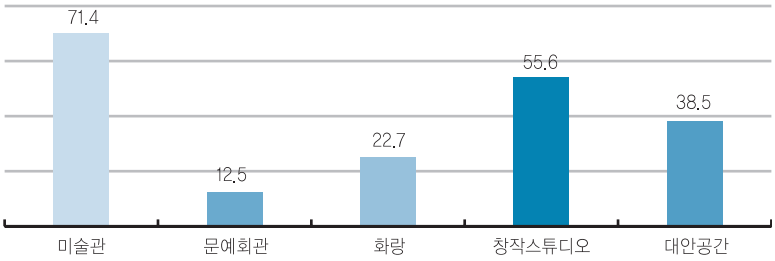


[그림4-12] 시설의 복지관련 시설 보유율 (단위: %)



부속시설의 경우는 미술관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가 55.6%, 대안공간이 38.5%, 화랑이 22.7%, 문예회관이 12.5%로 나타났다.

[그림 4-13] 시설의 부속시설 보유율-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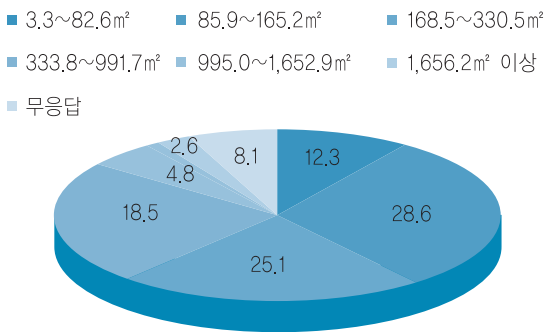
[표 4-6] 시설유형별 공간 보유 실태-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전시공간	근무공간	수장고 및 창고	복지관련시설	부속시설
전체 (220)		95.0 (209)	92.7 (204)	81.8 (180)	29.1 (64)	33.2 (73)
시설유형별	미술관 (42)	85.7 (36)	97.6 (41)	95.2 (40)	47.6 (20)	71.4 (30)
	문예회관 (24)	95.8 (23)	83.3 (20)	50.0 (12)	16.7 (4)	12.5 (3)
	화랑 (132)	97.0 (128)	93.2 (123)	85.6 (113)	23.5 (31)	22.7 (30)
	창작스튜디오 (9)	100.0 (9)	100.0 (9)	100.0 (9)	55.6 (5)	55.6 (5)
	대안공간 (13)	100.0 (13)	84.6 (11)	46.2 (6)	30.8 (4)	38.5 (5)

2) 전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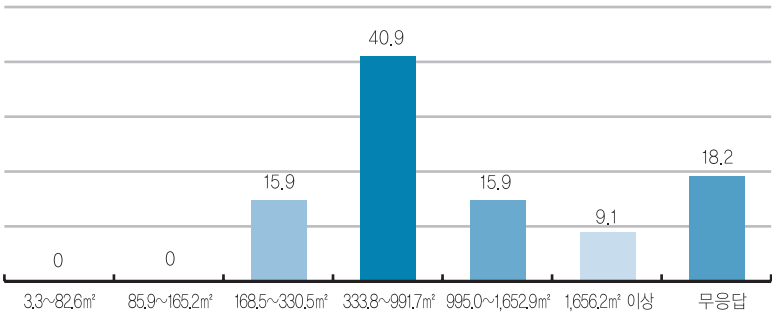
전시 공간의 넓이를 보면, 응답한 227개 시설 중 85.9~165.2㎡(26~5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시설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168.5~330.5㎡(51~100평)가 25.1%, 333.8~991.7㎡가(101~300평) 18.5%, 3.3~82.6㎡(1~25평)가 12.3% 순이었다. 995.0~1,652.9㎡(301~50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은 4.8%였으며, 1,656.2㎡(501평) 이상은 2.6%로 나타났다.

[그림 4-14] 시설의 전시 공간의 규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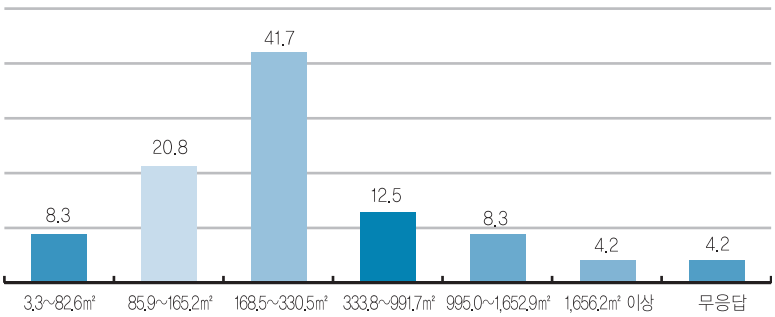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은 333.8~991.7㎡(101~30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곳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68.5~330.5㎡(51~100평)과 995.0~1,652.9㎡(301~500평)이 각각 15.9%, 1,656.2㎡(501평) 이상이 9.1%였고, 165.2㎡(50평) 이하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미술관 전시 공간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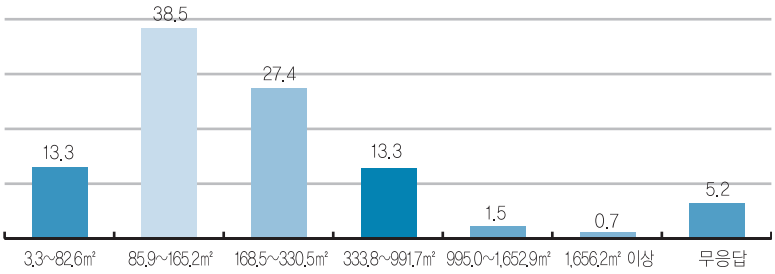
문예회관의 경우는 168.5~330.5㎡(51~100평)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미술관보다는 다소 작고 화랑이나 창작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문예회관 전시 공간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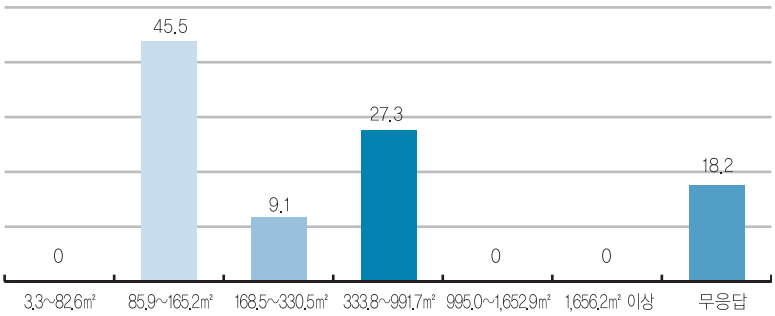
화랑은 85.9~165.2㎡(26~5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곳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68.5~330.5㎡(51~100평)가 27.4%, 3.3~82.6㎡(1~25평)과 333.8~991.7㎡(101~300평)가 각각 13.3%였다. 또한 995.0~1,652.9㎡(301~50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화랑은 1.5%, 1,656.2㎡(501평) 이상은 0.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7] 화랑 전시 공간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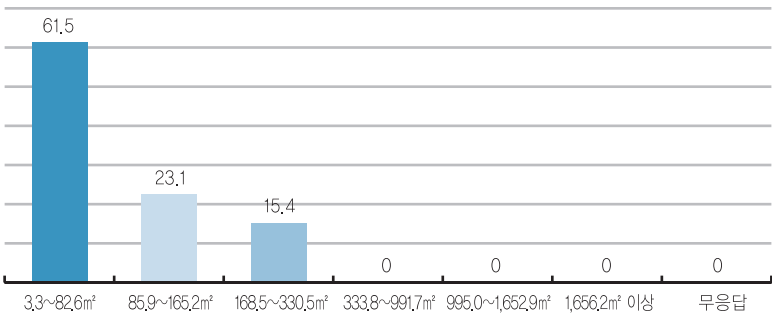
창작스튜디오는 85.9~165.2㎡(26~50평)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시설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995.0㎡(301평)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창작스튜디오 전시 공간의 규모 (단위: %)



대안공간은 3.3~82.6㎡(1~25평)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333.8㎡(101평)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대안공간 전시 공간의 규모 (단위: %)



전시공간의 넓이의 평균값은 368.2㎡(111.4평)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미술관 860.4㎡(260.3평), 문예회관 431.4㎡(130.5평), 창작스튜디오 330.5㎡(100평), 화랑 247.9㎡(75평), 대안공간 105.1㎡(31.8평) 순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을 보면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132.2㎡(40평), 화랑은 165.2㎡(50평)으로 창작스튜디오가 화랑에 비해 대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시설유형별 전시공간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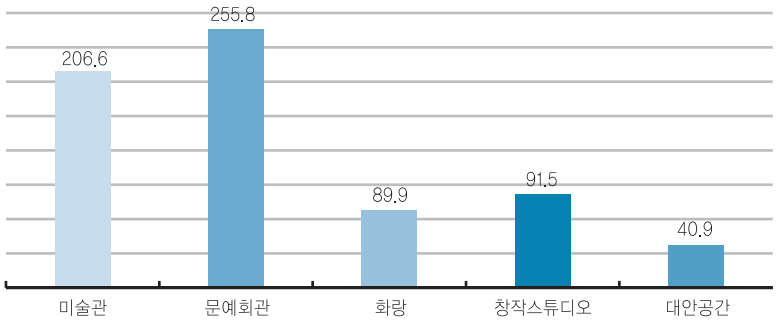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3.3~82.6㎡ (1~25평)	85.9~165.2㎡ (26~50평)	168.5~330.5㎡ (51~100평)	333.8~991.7㎡ (101~300평)	995.0~1652.9㎡ (301~500평)	1656.2㎡ 이상 (501평 이상)	무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체		100 (227)	12.3 (28)	28.6 (65)	25.1 (57)	18.5 (42)	4.8 (11)	2.6 (6)	7.9 (18)	368.2㎡ (111.4평)	214.8㎡ (65.0평)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 (44)	–	–	15.9 (7)	40.9 (18)	15.9 (7)	9.1 (4)	18.2 (8)	860.4㎡ (260.3평)	661.1㎡ (200.0평)
	문예회관	100 (24)	8.3 (2)	20.8 (5)	41.7 (10)	12.5 (3)	8.3 (2)	4.2 (1)	4.2 (1)	431.4㎡ (130.5평)	247.9㎡ (75.0평)
	화랑	100 (135)	13.3 (18)	38.5 (52)	27.4 (37)	13.3 (18)	1.5 (2)	0.7 (1)	5.2 (7)	247.9㎡ (75.0평)	165.2㎡ (50.0평)
	창작스튜디오	100 (11)	–	45.5 (5)	9.1 (1)	27.3 (3)	–	–	18.2 (2)	330.5㎡ (100.0평)	132.2㎡ (40.0평)
	대안공간	100 (13)	61.5 (8)	23.1 (3)	15.4 (2)	–	–	–	–	105.1㎡ (31.8평)	82.6㎡ (25.0평)

3) 근무 공간

근무 공간의 넓이를 보면 응답한 시설 중 68.7%인 112개 시설이 3.3~82.6㎡(1~25평) 규모의 근무공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그 다음으로 비율인 85.9~165.2㎡(26~50평) 규모의 10.6%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각 공간 규모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3.3~82.6㎡(1~25평) 규모의 근무공간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랑(77.0%)이었으며, 대안공간(76.9%)이 다음으로 높았다. 보유한 근무공간이 82.6~165.2㎡(26~50평) 규모인 시설의 비율은 문예회관(20.8%)이 가장 높았으며, 168.5~330.5㎡(51~100평) 규모의 경우는 미술관이 15.9%로 가장 높았다.

근무 공간 평수의 평균값은 117.0㎡(35.4평)이었다. 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이 255.8㎡(77.4평)로 가장 높았으며, 미술관이 206.6㎡(62.5평)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작스튜디오 91.5㎡(27.7평), 화랑 89.9㎡(22.2평), 대안공간 40.9㎡(12.4평) 등과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문예회관과 미술관의 경우 중간값이 평균값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소수 시설이 대다수 타 시설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의 근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시설 간 공간 규모의 격차현상이 이 두 유형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그림 4-20] 시설유형별 근무공간의 평균 규모 (단위: ㎡)



[표 4-8] 시설유형별 근무공간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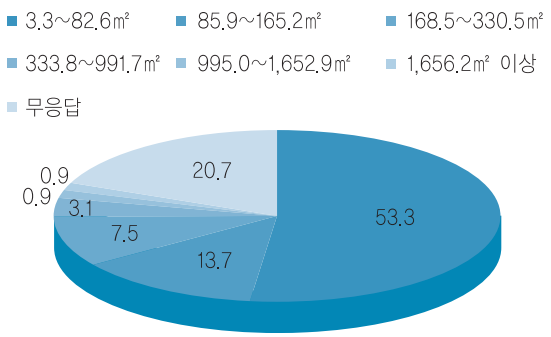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3.3~82.6㎡ (1~25평)	85.9~165.2㎡ (26~50평)	168.5~330.5㎡ (51~100평)	333.8~991.7㎡ (101~300평)	995.0~1652.9㎡ (301~500평)	1656.2㎡ 이상 (501평 이상)	무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체		100 (227)	68.7 (156)	10.6 (24)	6.2 (14)	2.6 (6)	0.9 (2)	0.9 (2)	10.1 (23)	117.0㎡ (35.4평)	34.7㎡ (10.5평)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 (44)	50.0 (22)	18.2 (8)	15.9 (7)	4.5 (2)	2.3 (1)	2.3 (1)	6.8 (3)	682.9㎡ (206.6평)	66.1㎡ (20.0평)
	문예회관	100 (24)	50.0 (12)	20.8 (5)	4.2 (1)	4.2 (1)	–	4.2 (1)	16.7 (4)	255.8㎡ (77.4평)	66.1㎡ (20.0평)
	화랑	100 (135)	77.0 (104)	7.4 (10)	4.4 (6)	1.5 (2)	0.7 (1)	–	8.9 (12)	73.3㎡ (22.2평)	33.0㎡ (10.0평)
	창작스튜디오	100 (11)	72.7 (8)	–	–	9.1 (1)	–	–	18.2 (2)	91.5㎡ (27.7평)	52.8㎡ (16.0평)
	대안공간	100 (13)	76.9 (10)	7.7 (1)	–	–	–	–	15.4 (2)	40.9㎡ (12.4평)	33.0㎡ (10.0평)

4) 수장고 및 창고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에 관한 질문은 항온, 항습 시설의 유무를 함께 조사하였다.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 집단 227개를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항온, 항습 시설의 유무에 대해서는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180개 시설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의 53.3%인 121개 시설이 3.3~82.6㎡(1~25평) 규모의 수장고 및 창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82.6~165.2㎡(26~50평) 규모가 13.7%로 나타났다. 각 공간 규모에 속한 시설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3.3~82.6㎡(1~25평) 규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랑(65.9%)이었으며, 85.9~165.2㎡(26~50평) 규모의 수장고 및 창고를 보유한 시설의 비율은 미술관(25.0%)이었다. 대안공간의 경우는 168.5㎡(51평) 이상 규모의 수장고 및 창고를 보유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작스튜디오는 333.8㎡(101평)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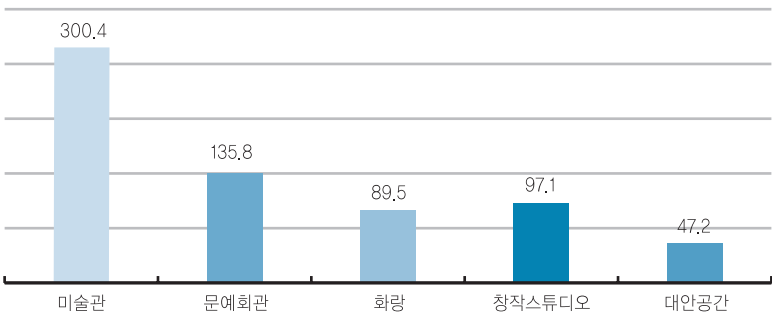


[표 4-9] 시설유형별 수장고 및 창고의 규모 (단위: %)

구분		응답자	3.3~82.6㎡ (1~25평)	85.9~165.2㎡ (26~50평)	168.5~330.5㎡ (51~100평)	333.8~991.7㎡ (101~300평)	995.0~1652.9㎡ (301~500평)	1656.2㎡ 이상 (501평 이상)	무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체		100 (227)	53.3 (121)	13.7 (31)	7.5 (17)	3.1 (7)	0.9 (2)	0.9 (2)	20.7 (47)	138.5㎡ (41.9평)	49.5㎡ (15.0평)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 (44)	29.5 (13)	25.0 (11)	20.5 (9)	9.1 (4)	4.5 (2)	2.3 (1)	9.1 (4)	300.4㎡ (90.9평)	132.2㎡ (40.0평)
	문예회관	100 (24)	29.2 (7)	12.5 (3)	4.2 (1)	4.2 (1)	–	–	50.0 (12)	135.8㎡ (41.1평)	66.1㎡ (20.0평)
	화랑	100 (135)	65.9 (89)	11.9 (16)	3.7 (5)	1.5 (2)	–	0.7 (1)	16.3 (22)	89.5㎡ (27.1평)	33.0㎡ (10.0평)
	창작 스튜디오	100 (11)	63.6 (7)	–	18.2 (2)	–	–	–	18.2 (2)	97.1㎡ (29.4평)	66.1㎡ (20.0평)
	대안공간	100 (13)	38.5 (5)	7.7 (1)	–	–	–	–	53.8 (7)	47.2㎡ (14.3평)	18.1㎡ (5.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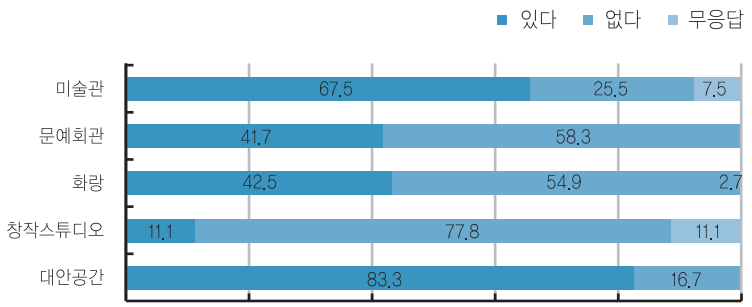
수장고 및 창고 크기의 평균값은 138.5㎡(41.9평)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미술관이 300.4㎡(90.9평)으로 가장 높아 135.8㎡(41.1평)인 문예회관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낮은 유형은 대안공간 47.2㎡(14.3평)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화랑 89.5㎡(27.1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시설유형별 수장고 및 창고의 평균 규모 (단위: ㎡)



수장고 및 창고가 있는 시설의 경우 항온, 항습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의 비율은 45.0%인 81개 시설이었다. 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대안공간은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시설유형별 항온, 항습 시설 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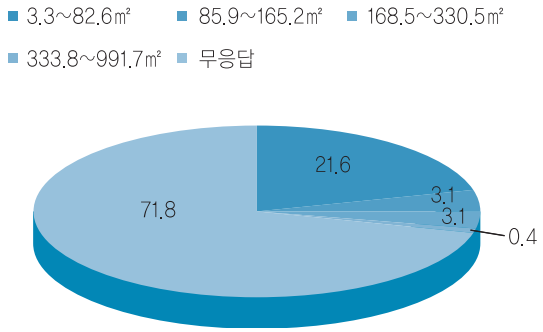
[표 4-10] 시설유형별 항온, 항습 시설의 유무 (단위: %)

구분		응답자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00.0	(180)	45.0	(81)	50.6	(91)	4.4	(8)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0)	67.5	(27)	25.0	(10)	7.5	(3)
	문예회관	100.0	(12)	41.7	(5)	58.3	(7)	-	
	화랑	100.0	(113)	42.5	(48)	54.9	(62)	2.7	(3)
	창작스튜디오	100.0	(9)	11.1	(1)	77.8	(7)	11.1	(1)
	대안공간	100.0	(6)	-		83.3	(5)	16.7	(1)

5) 복지 공간

복지 공간의 규모를 보면, 전체 시각예술 시설 중 21.6%인 49개 시설이 3.3~82.6㎡(1~25평) 규모의 복지 공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85.9~165.2㎡(26~50평) 규모와 168.5~330.5㎡(51~100평) 규모가 각각 3.1%로 나타났다.

[그림 4-24] 복지 공간 규모 분포 (단위: %)



시설 유형별로 보면 3.3~82.6㎡(1~25평) 규모의 복지 공간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창작스튜디오(36.4%)이었으며, 미술관(31.8%)이 다음으로 높았다. 보유한 복지 공간이 85.9~165.2㎡(26~50평) 규모인 시설은 미술관(4.5%)이 가장 높았으며, 168.5~330.5㎡(51~100평) 규모의 경우는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가 각각 9.1%로 가장 높았다. 333.8㎡(101평) 이상의 복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문예회관에 1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공간 규모의 평균값은 97.5㎡(25.9평)이었다. 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이 200.9㎡(60.8평)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창작스튜디오 110.4㎡(33.4평), 대안공간 107.4㎡(32.5평), 미술관 103.4㎡(31.3평)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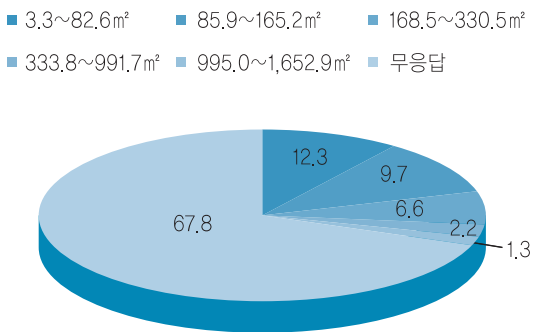
[표 4-11] 시설유형별 복지 공간의 규모 (단위: %)

구분		응답자	3.3~82.6㎡ (1~25평)	85.9~165.2㎡ (26~50평)	168.5~330.5㎡ (51~100평)	333.8~991.7㎡ (101~300평)	무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체		100.0 (227)	21.6 (49)	3.1 (7)	3.1 (7)	0.4 (1)	71.8 (163)	85.6㎡ (25.9평)	33.0㎡ (10.0평)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31.8 (14)	4.5 (2)	9.1 (4)	–	54.5 (24)	103.4㎡ (31.3평)	66.1㎡ (20.0평)
	문예회관	100.0 (24)	12.5 (3)	–	–	4.2 (1)	83.3 (20)	200.9㎡ (60.8평)	66.1㎡ (20.0평)
	화랑	100.0 (135)	18.5 (25)	3.7 (5)	0.7 (1)	–	77.0 (104)	52.5㎡ (15.9평)	33.0㎡ (10.0평)
	창작스튜디오	100.0 (11)	36.4 (4)	–	9.1 (1)	–	54.5 (6)	110.4㎡ (33.4평)	66.1㎡ (20.0평)
	대안공간	100.0 (13)	23.1 (3)	–	7.7 (1)	–	69.2 (9)	107.4㎡ (32.5평)	41.3㎡ (12.5평)

6) 부속 시설

부속 시설의 공간 규모를 보면, 전체 시각예술 시설 중 12.3%인 28개 시설이 3.3~82.6㎡(1~25평) 규모의 복지관련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85.9~165.2㎡(26~50평) 규모가 9.7%, 168.5~330.5㎡(51~100평) 규모가 6.6% 순이었다.

[그림 4-25] 부속 시설 규모 분포 (단위: %)



시설 유형별로 부속 시설의 공간 규모를 보면 3.3~82.6㎡(1~25평) 규모의 부속 시설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대안공간(23.1%)이었으며, 미술관(22.7%)이 다음으로 높았다. 85.9~165.2㎡(26~50평) 규모의 부속 시설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은 미술관(20.5%)이 가장 높았으며, 168.5~330.5㎡(51~100평) 규모 역시 미술관이 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8~991.7㎡(101~300평)의 비교적 큰 규모의 부속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미술관과 화랑, 창작스튜디오에서 각각 1개의 시설이 응답했다.

[표 4-12] 시설유형별 부속 시설의 규모 (단위: %)

구분		응답자	3.3~82.6㎡ (1~25평)	85.9~165.2㎡ (26~50평)	168.5~330.5㎡ (51~100평)	333.8~991.7㎡ (101~300평)	995.0~1652.9㎡ (301~500평)	무응답	평균값	중간값
전체		100.0 (227)	12.3 (28)	9.7 (22)	6.6 (15)	2.2 (5)	1.3 (3)	67.8 (154)	217.8㎡ (65.9평)	132.2㎡ (40.0평)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2.7 (10)	20.5 (9)	15.9 (7)	6.8 (3)	2.3 (1)	31.8 (14)	253.2㎡ (76.6평)	132.2㎡ (40.0평)
	문예회관	100.0 (24)	–	4.2 (1)	8.3 (2)	–	–	87.5 (21)	275.3㎡ (83.3평)	330.5㎡ (100.0평)
	화랑	100.0 (135)	9.6 (13)	7.4 (10)	3.0 (4)	1.5 (2)	0.7 (1)	77.8 (105)	170.9㎡ (51.7평)	99.1㎡ (30.0평)
	창작스튜디오	100.0 (11)	18.2 (2)	9.1 (1)	9.1 (1)	–	9.1 (1)	54.5 (6)	354.3㎡ (107.2평)	265.2㎡ (50.0평)
	대안공간	100.0 (13)	23.1 (3)	7.7 (1)	7.7 (1)	–	–	61.5 (8)	115.7㎡ (35.0평)	49.5㎡ (15.0평)

제2절 활동 현황

본 2절에서는 국내 시각예술 시설의 활동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시각예술 시설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였다. 특히 전시 행사 개최, 타시설과의 교류,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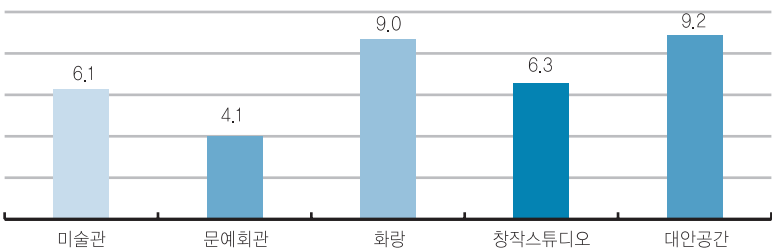
전시 행사는 시각예술 시설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전시 행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획전과 대관전의 개최 수 및 개최 시기, 전시 진행시 작가 지원 범위, 전시 이외의 행사 등을 알아보았다.

1) 연간 기획전 개최 수

시각예술 시설 중 최근 1년간(2005.11~2006.10) 1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한 시설을 대상으로 그 개최 수를 알아보았다.

전체 227개 시설의 87.2%인 198개 시설이 응답하였으며, 시설유형별로는 화랑(94.1%), 대안공간(92.3%), 미술관(90.9%) 창작스튜디오(81.8%) 등 대부분 80%이상이 응답하였으나, 문예회관은 41.7%로 타 시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각예술 시설의 중점 활동에 관한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획전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예회관의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크게 낮았던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간 응답률의 큰 편차를 고려해 이 질문에서는 무응답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해보면, 전체 시설의 38.8%인 88개 시설이 1~5회의 기획전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6~10회를 개최하는 시설이 27.8%, 11~15회를 개최하는 시설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시설유형별 연간 평균 기획전 개최 수 (단위: 회)



기획전 개최 수가 1~5회인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작스튜디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관(50.0%)이었다. 6~10회의 경우, 화랑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관(27.3%)이었다. 11~15회의 경우는 대안공간이 23.1%로 가장 높았다.

응답한 시각예술 시설은 지난 1년간 평균 8회의 기획전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전 평균 개최수가 가장 높은 시설 유형은 대안공간(9.2회)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화랑(9회), 창작스튜디오(6.3회), 미술관(6.1회), 문예회관(4.1회) 순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을 살펴보면 창작스튜디오가 2회, 문예회관이 2.5회, 미술관이 4.5회로 나타나 미술관이 창작스튜디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획전 개최 수가 많은 시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3]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기획전 개최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무응답	평균값 (회)	중간값 (회)
전체		100.0 (227)	38.8 (88)	27.8 63)	11.5 (26)	5.7 (13)	3.5 (8)	12.8 (29)	8.0	6.0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50.0 (22)	27.3 (12)	9.1 (4)	2.3 (1)	2.3 (1)	9.1 (4)	6.1	4.5
	문예회관	100.0 (24)	29.2 (7)	8.3 (2)	4.2 (1)	–	–	58.3 (14)	4.1	2.5
	화랑	100.0 (135)	35.6 (48)	33.3 (45)	13.3 (18)	7.4 (10)	4.4 (6)	5.9 (8)	9.0	7.0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9.1 (1)	–	18.2 (2)	–	18.2 (2)	6.3	2.0
	대안공간	100.0 (13)	38.5 (5)	23.1 (3)	23.1 (3)	–	7.7 (1)	7.7 (1)	9.2	8.0

2) 연간 대관전 개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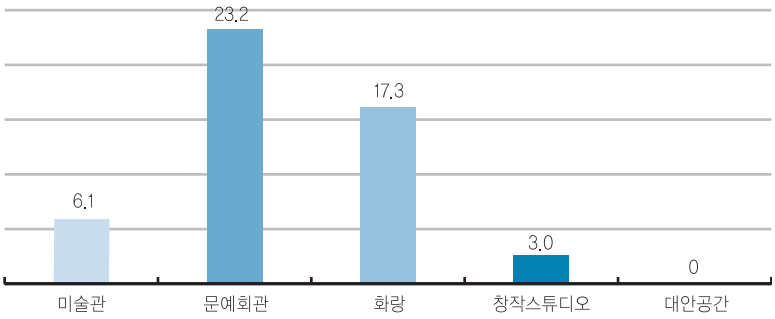
시각예술 시설 중 최근 1년간(2005.11~2006.10) 1회 이상 대관전을 개최한 시설을 대상으로 개최 수를 알아보았다. 전체 227개 시설 중 43.2%인 98개 시설이 응답하였다. 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의 79.2%가 응답하였으며, 그 외 유형들은 화랑(45.2%), 미술관(38.6%) 등으로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창작스튜디오는 1개 시설만 응답을 하였고, 대안공간은 응답한 시설이 없었다.

개최 수를 유형별로 보면 1년간 대관전을 1~5회 개최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미술관(2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화랑(17.0%), 문예회관(16.7%) 순이었다. 그러나 11~30회, 31~50회, 51회 이상 대관전을 개최한 시설의 비율은 모두 문예회관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각예술 시설은 지난 1년간 평균 16.4회의 대관전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전 평균 개최수가 가장 높은 시설은 문예회관(23.2회)이었으며, 다음은 화랑(17.3회)이었다.

[그림 4-27] 시설유형별 연간 평균 대관전 개최 수 (단위 : 회)



[표 4-14]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대관전 개최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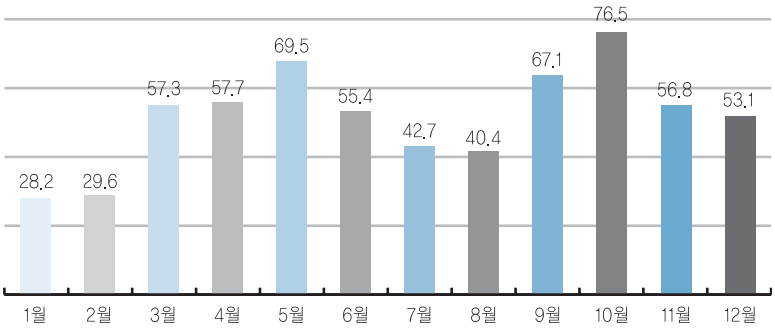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1~5회	6~10회	11~30회	31~50회	51회 이상	무응답	평균값 (회)
전체		100.0 (227)	17.6 (40)	6.6 (15)	11.5 (26)	4.8 (11)	2.6 (6)	56.8 (129)	16.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7.3 (12)	4.5 (2)	6.8 (3)	–	–	61.4 (27)	6.1
	문예회관	100.0 (24)	16.7 (4)	20.8 (5)	20.8 (5)	12.5 (3)	8.3 (2)	20.8 (5)	23.2
	화랑	100.0 (135)	17.0 (23)	5.9 (8)	13.3 (18)	5.9 (8)	3.0 (4)	54.8 (74)	17.3
	창작스튜디오	100.0 (11)	9.1 (1)	–	–	–	–	90.9 (10)	3.0
	대안공간	100.0 (13)	–	–	–	–	–	100.0 (13)	–

3) 주요 전시 개최 시기

시각예술 시설의 주요 전시를 개최하는 시기를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월별로 조사하였다. 응답한 213개 시설의 76.5%가 주요 전시 개최 달로 10월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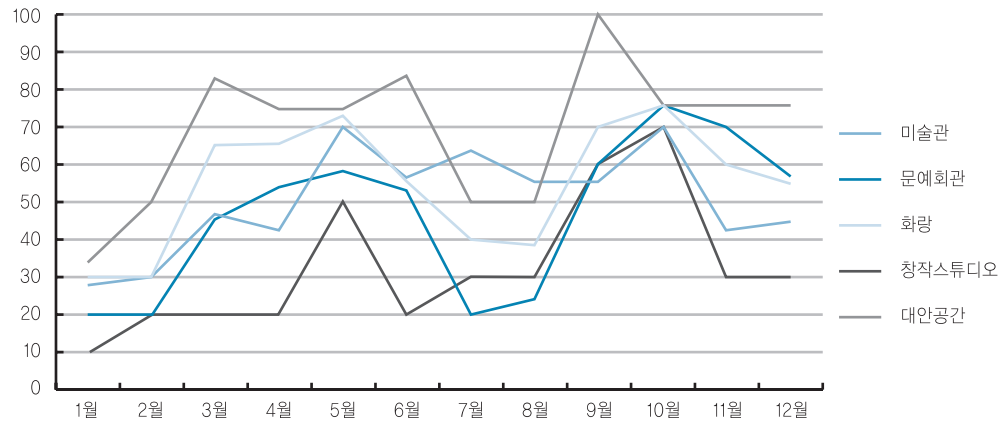
으며, 다음으로는 5월(69.5%), 9월(67.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전시가 가을과 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요 전시 개최의 비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28.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월(29.6%), 8월(40.4%) 순으로 나타나 겨울과 여름에 주요 전시 개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8] 월별 주요 전시개최 시기 (단위: %)



시설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의 시설 유형에서 10월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1월을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의 경우 5월과 10월이 각각 6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월이 62.8%, 6월과 8월, 9월이 각각 55.8%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많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여름에 주요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랑의 경우는 10월(79.5%)과 5월(72.4%)이 높았으며, 반면 2월(29.9%), 1월(30.7%), 8월(37.8%)에 주요 전시 개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10월(76.2%), 11월(71.4%), 9월(61.9%) 순이어서 주요 전시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었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역시 10월(70.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9월(60.0%), 5월(50.0%) 순이었다. 대안공간은 9월(10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월과 6월이 각각 83.3%, 4월, 5월, 10월, 11월, 12월이 각각 75.5%로 비교적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림 4-29] 시설유형별 주요 전시 개최 시기 (단위: %)



[표 4-15] 시설유형별 주요 전시 개최 시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213)		28.2 (60)	29.6 (63)	57.3 (122)	57.7 (123)	69.5 (148)	55.4 (118)	42.7 (91)	40.4 (86)	67.1 (143)	76.5 (163)	56.8 (121)	53.1 (113)
시설유형별	미술관 (43)	27.9 (12)	30.2 (13)	44.2 (19)	41.9 (18)	69.8 (30)	55.8 (24)	62.8 (27)	55.8 (24)	55.8 (24)	69.8 (30)	41.9 (18)	44.2 (19)
	문예회관 (21)	19.0 (4)	19.0 (4)	42.9 (9)	52.4 (11)	57.1 (12)	52.4 (11)	19.0 (4)	23.8 (5)	61.9 (13)	76.2 (16)	71.4 (15)	57.1 (12)
	화랑 (127)	30.7 (39)	29.9 (38)	64.6 (82)	65.4 (83)	72.4 (92)	55.9 (71)	40.2 (51)	37.8 (48)	69.3 (88)	79.5 (101)	59.8 (76)	55.1 (70)
	창작스튜디오 (10)	10.0 (1)	20.0 (2)	20.0 (2)	20.0 (2)	50.0 (5)	20.0 (2)	30.0 (3)	30.0 (3)	60.0 (6)	70.0 (7)	30.0 (3)	30.0 (3)
	대안공간 (12)	33.3 (4)	50.0 (6)	83.3 (10)	75.0 (9)	75.0 (9)	83.3 (10)	50.0 (6)	50.0 (6)	100.0 (12)	75.0 (9)	75.0 (9)	75.0 (9)

2.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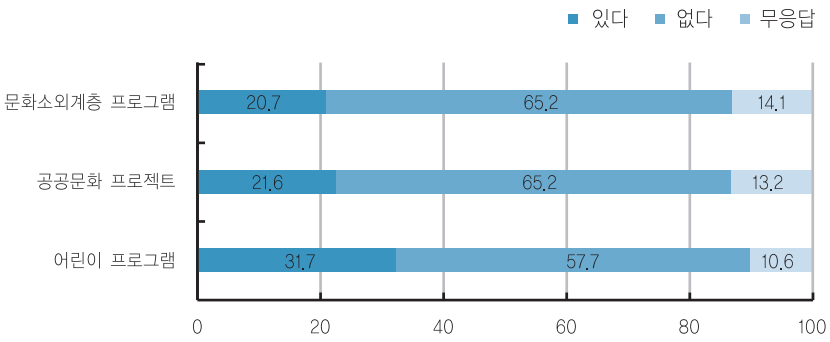
시각예술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공공 문화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최근 1년간(2005.11~2006.10) 각 프로그램의 시행여부와 진행상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1) 시행 여부

어린이 프로그램과 공공문화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중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최근 1년간 각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알아보았다. 전체 227개 시설의 31.7%가 최근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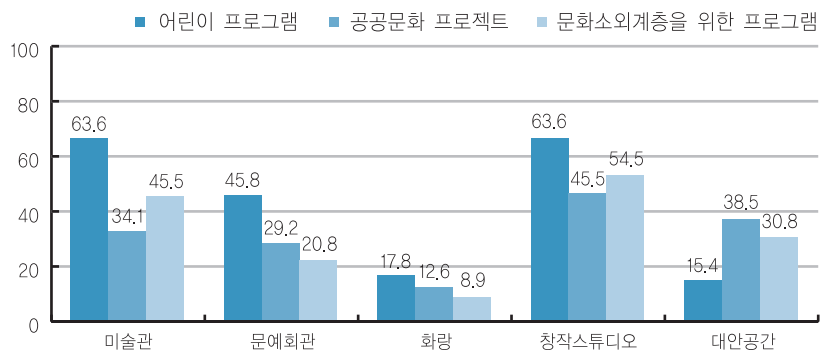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공문화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는 시설이 21.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20.7% 순이었다.

[그림 4-30] 프로그램 시행 여부 (단위: %)



이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 유형은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로 각각 63.6%의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대안공간으로 전체의 15.4%에 그쳤다. 공공문화프로젝트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45.5%)가 가장 높았으며, 화랑(12.6%)이 가장 낮았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는 시설의 비율 역시 창작스튜디오(54.5%)가 가장 높았고, 화랑(8.9%)이 가장 낮았다.

[그림 4-31] 시설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특히 대안공간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유형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안공간은 공공문화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38.5%)이 가장 많았다. 또한 화랑의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시행한 적이 있는 시설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시설유형별 해당 프로그램 운영여부(2005.11~2006.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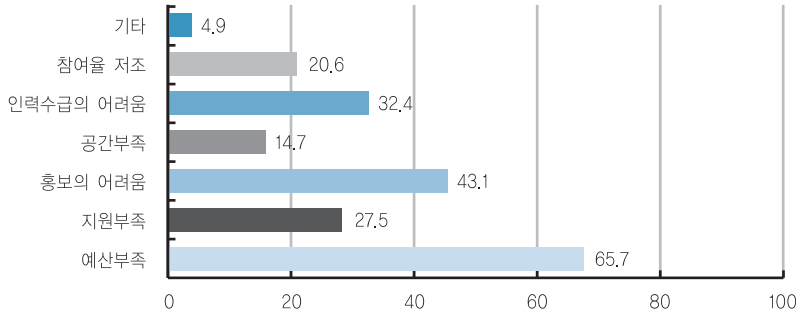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어린이 프로그램			공공문화 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00.0 (227)	31.7 (72)	57.7 (131)	10.6 (24)	21.6 (49)	65.2 (148)	13.2 (30)	20.7 (47)	65.2 (148)	14.1 (3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63.6 (28)	27.3 (12)	9.1 (4)	34.1 (15)	50.0 (22)	15.9 (7)	45.5 (20)	38.6 (17)	15.9 (7)
	문예회관	100.0 (24)	45.8 (11)	41.7 (10)	12.5 (3)	29.2 (7)	45.8 (11)	25.0 (6)	20.8 (5)	50.0 (12)	29.2 (7)
	화랑	100.0 (135)	17.8 (24)	72.6 (98)	9.6 (13)	12.6 (17)	77.0 (104)	10.4 (14)	8.9 (12)	80.0 (108)	11.1 (15)
	창작스튜디오	100.0 (11)	63.6 (7)	27.3 (3)	9.1 (1)	45.5 (5)	27.3 (3)	27.3 (3)	54.5 (6)	27.3 (3)	18.2 (2)
	대안공간	100.0 (13)	15.4 (2)	61.5 (8)	23.1 (3)	38.5 (5)	61.5 (8)	-	30.8 (4)	61.5 (8)	7.7 (1)

2)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겪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예산 부족, 지원 부족, 홍보의 어려움, 공간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참여율 저조, 기타 등 7개의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알아보았다.

전체 227개 시설 중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102개의 시설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이 중 가장 많은 65.7% 시설이 예산부족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홍보의 어려움을 선택한 시설이 43.1%,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32.4% 순이었다. 반면 공간 부족은 14.7%의 시설만이 선택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32] 프로그램 진행 시 장애요소-복수응답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진행시 어려움으로 예산 부족을 선택한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대안공간으로 85.7%의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문예회관으로 응답한 시설의 50.0%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은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랑(34.1%)이었으며, 반면 창작스튜디오는 11.1%로 가장 낮았다. 홍보의 어려움의 경우는 화랑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22.2%)가 가장 낮았고, 공간 부족의 경우는 미술관(25.0%)이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와 대안공간의 경우는 이 항목을 어려움으로 선택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인력 수급의 경우는 대안공간(42.9%)이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11.1%)가 가장 낮았고, 참여율의 경우는 화랑(25.0%)이 가장 높았으며, 대안공간(0%)에서는 참여율 저조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7] 시설유형별 프로그램 진행상의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예산부족	지원부족	홍보의 어려움	공간부족	인력수급의 어려움	참여율 저조	기타
전체 (102)		65.7 (67)	27.5 (28)	43.1 (44)	14.7 (15)	32.4 (33)	20.6 (21)	4.9 (5)
시설유형별	미술관 (28)	64.3 (18)	28.6 (8)	42.9 (12)	25.0 (7)	32.1 (9)	21.4 (6)	3.6 (1)
	문예회관 (14)	50.0 (7)	21.4 (3)	35.7 (5)	21.4 (3)	21.4 (3)	21.4 (3)	14.3 (2)
	화랑 (4)	68.2 (30)	34.1 (15)	50.0 (22)	11.4 (5)	38.6 (17)	25.0 (11)	2.3 (1)
	창작스튜디오 (9)	66.7 (6)	11.1 (1)	22.2 (2)	-	11.1 (1)	11.1 (1)	11.1 (1)
	대안공간 (7)	85.7 (6)	14.3 (1)	42.9 (3)	-	42.9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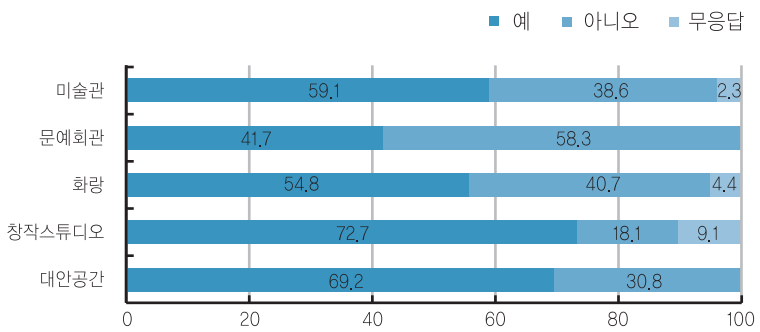
3.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현황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여부와 그 내용은 시각예술 시설의 활동 영역과 함께 활동의 적극성 및 국내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시각예술 시설의 최근 1년간(2005. 11 ~ 2006. 10) 교류활동 여부와 교류 횟수 및 내용, 국내외 타 시설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교류 여부

최근 1년간(2005. 11 ~ 2006. 10) 국내외 시설과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시설은 응답한 시설의 55.9%인 127개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창작스튜디오의 72.7%가 국내외 시설과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문예회관의 41.7%가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를 보면 창작스튜디오(72.7%), 대안공간(69.2%), 미술관(59.1%), 화랑(54.8%), 문예회관(4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여부 (단위: %)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이 80.0%였다.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을 하는 단체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25.0%인 1개 시설만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인천, 광주, 충청도 모두 33.3%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은 57.1%가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법적 성격별로는 국공립기관과 법인체, 비법인 사설, 개인 사업자, 기타에서 모두 50%대의 시설이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단위: %)

구분		응답자		교류가 있다		교류가 없다		무응답	
전체		100.0	(227)	55.9	(127)	40.5	(92)	3.5	(8)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59.1	(26)	38.6	(17)	2.3	(1)
	문예회관	100.0	(24)	41.7	(10)	58.3	(14)	-	
	화랑	100.0	(135)	54.8	(74)	40.7	(55)	4.4	(6)
	창작스튜디오	100.0	(11)	72.7	(8)	18.2	(2)	9.1	(1)
	대안공간	100.0	(13)	69.2	(9)	30.8	(4)	-	
지역별	서울	100.0	(126)	57.1	(72)	39.7	(50)	3.2	(4)
	부산	100.0	(7)	85.7	(6)	14.3	(1)	-	
	인천	100.0	(3)	33.3	(1)	66.7	(2)	-	
	대전	100.0	(5)	80.0	(4)	20.0	(1)	-	
	대구	100.0	(15)	66.7	(10)	26.7	(4)	6.7	(1)
	광주	100.0	(9)	33.3	(3)	55.6	(5)	11.1	(1)
	강원	100.0	(4)	25.0	(1)	75.0	(3)	-	
	경기	100.0	(22)	59.1	(13)	31.8	(7)	9.1	(2)
	충청	100.0	(12)	33.3	(4)	66.7	(8)	-	
	전라	100.0	(7)	57.1	(4)	42.9	(3)	-	
	경상	100.0	(11)	63.6	(7)	36.4	(4)	-	
	제주	100.0	(4)	50.0	(2)	50.0	(2)	-	
	무응답	100.0	(2)	-		100.0	(2)	-	
법적종류별	국공립기관	100.0	(37)	56.8	(21)	43.2	(16)	-	
	법인체	100.0	(49)	59.2	(29)	36.7	(18)	4.1	(2)
	비법인사설	100.0	(31)	51.6	(16)	45.2	(14)	3.2	(1)
	개인사업자	100.0	(100)	56.0	(56)	40.0	(40)	4.0	(4)
	기타	100.0	(10)	50.0	(5)	40.0	(4)	1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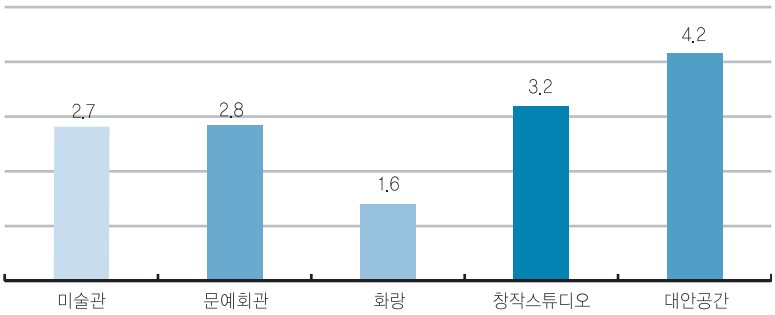
2) 교류 횟수

전체 227개 시설 중 최근 1년간 국내외 타 시설과 교류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127개였으나, 교류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 시설은 86개 시설이어서 교류 횟수의 비율은 응답한 86개의 단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교류 횟수의 평균값을 보면 응답한 86개 시설의 1년간 국내외 타 시설과의 교류가 평균 2.8회

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대안공간이 4.2회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가 3.2회, 화랑이 2.8회 순이었다.

[그림 4-34]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횟수 (단위 : 회)



교류 횟수가 1회인 시설이 36.0%로 가장 많았고, 2회가 27.9%, 3회가 1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교류 횟수인 10회로 응답한 시설은 전체의 5.8%였다.

[표 4-19]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횟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평균값(회)
전체		100.0 (86)	36.0 (31)	27.9 (24)	12.8 (11)	7.0 (6)	5.8 (5)	2.3 (2)	1.2 (1)	1.2 (1)	5.8 (5)	2.8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17)	29.4 (5)	29.4 (5)	23.5 (4)	–	5.9 (1)	5.9 (1)	5.9 (1)	–	–	2.7
	문예회관	100.0 (7)	57.1 (4)	28.6 (2)	14.3 (1)	–	–	–	–	–	–	1.6
	화랑	100.0 (51)	39.2 (20)	23.5 (12)	9.8 (5)	11.8 (6)	5.9 (3)	2.0 (1)	–	2.0 (1)	5.9 (3)	2.8
	창작스튜디오	100.0 (6)	16.7 (1)	66.7 (4)	–	–	–	–	–	–	16.7 (1)	3.2
	대안공간	100.0 (5)	20.0 (1)	20.0 (1)	20.0 1)	–	20.0 (1)	–	–	–	20.0 (1)	4.2

연 3회 이상 타 시설과 교류를 한 시설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대안공간(60.0%)이 가장 높았었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관(41.2%)으로 나타났다. 반면 3회 이상 교류를 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문예회관(14.3%), 창작스튜디오(16.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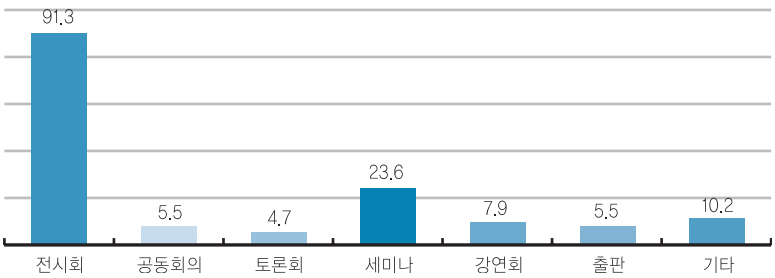
[표 4-20] 시설유형별 1년간(2005.11~2006.10)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3회 이하		3회 이상	
전체		100.0	(86)	64.0	(55)	36.0	(3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17)	58.8	(10)	41.2	(7)
	문예회관	100.0	(7)	85.7	(6)	14.3	(1)
	화랑	100.0	(51)	62.7	(32)	37.3	(19)
	창작스튜디오	100.0	(6)	83.3	(5)	16.7	(1)
	대안공간	100.0	(5)	40.0	(2)	60.0	(3)

3) 교류 내용

시각예술 시설의 국내외 교류활동의 내용은 전시회, 공동회의,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출판으로 나누어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응답한 127개 시설의 교류활동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시회로 91.3%였다. 그 다음은 세미나였지만, 23.6%에 그쳐 전시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타 시설과의 교류의 대부분이 전시회에 집중되어 있고, 토론회와 출판 및 공동회의 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활동 내용-복수응답 (단위 : %)



교류 내용을 시설 유형별로 보면 전시회의 경우 화랑(94.6%)과 미술관(92.3%)이 가장 높았으며, 세미나의 경우는 대안공간(55.6%)과 미술관(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회의 경우는 대안공간이 22.2%로 타 유형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토론회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가 37.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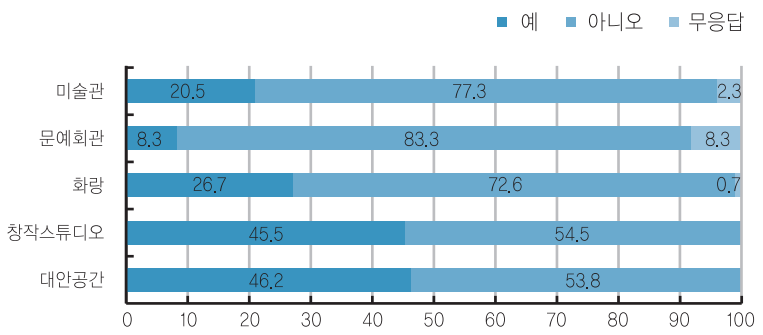
[표 4-21]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과의 교류 내용-복수응답 (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전시회	공동회의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출판	기타
전체 (127)		91.3 (116)	5.5 (7)	4.7 (6)	23.6 (30)	7.9 (10)	5.5 (7)	10.2 (13)
시설유형별	미술관 (26)	92.3 (24)	7.7 (2)	3.8 (1)	42.3 (11)	3.8 (1)	–	11.5 (3)
	문예회관 (10)	70.0 (7)	–	–	10.0 (1)	10.0 (1)	–	30.0 (3)
	화랑 (74)	94.6 (70)	4.1 (3)	1.4 (1)	13.5 (10)	6.8 (5)	8.1 (6)	5.4 (4)
	창작스튜디오 (8)	87.5 (7)	12.5 (1)	37.5 (3)	37.5 (3)	12.5 (1)	–	12.5 (1)
	대안공간 (9)	88.9 (8)	11.1 (1)	11.1 (1)	55.6 (5)	22.2 (2)	11.1 (1)	22.2 (2)

4) 국내외 시설 활용 현황

시각예술 시설의 국내외 타 시설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활용 여부와 이유 그리고 활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2005. 11 ~ 2006. 10) 자체 기획전시 및 행사를 위해 국내외의 다른 시설을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전체 227개 시설의 25.6%인 58개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대안공간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도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타시설의 활용이 가장 저조한 시설은 문예회관(8.3%)으로 다른 유형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4-36] 국내외 시설 활용 여부 (단위 : %)



[표 4-22]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여부(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227)	25.6	(58)	72.7	(165)	1.8	(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0.5	(9)	77.3	(34)	2.3	(1)
	문예회관	100.0	(24)	8.3	(2)	83.3	(20)	8.3	(2)
	화랑	100.0	(135)	26.7	(36)	72.6	(98)	0.7	(1)
	창작스튜디오	100.0	(11)	45.5	(5)	54.5	(6)	–	
	대안공간	100.0	(13)	46.2	(6)	53.8	(7)	–	

국내외 타 시설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 전시장 규모, 관객의 접근성, 공간의 인지도, 비용절감, 기타의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활용 이유를 전시장 규모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58개 시설 중 3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관객의 접근성이라고 답한 시설과 기타라고 답한 시설이 각각 20.7%, 공간의 인지도라고 답한 시설이 13.8% 순이었다.

[표 4-23]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이유-복수응답(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전시장 규모		관객의 접근성		공간의 인지도		기타	
전체 (58)		37.9	(22)	20.7	(12)	13.8	(8)	20.7	(12)
시설유형별	미술관 (9)	22.2	(2)	22.2	(2)	11.1	(1)	44.4	(4)
	문예회관 (2)	50.0	(1)	50.0	(1)	–		–	
	화랑 (36)	38.9	(14)	19.4	(7)	16.7	(6)	16.7	(6)
	창작스튜디오 (5)	20.0	(1)	40.0	(2)	–		40.0	(2)
	대안공간 (6)	66.7	(4)	–		16.7	(1)	16.7	(1)

국내외 타시설 활용 횟수에 대해서는 41개 시설만이 이용횟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응답한 시설의 과반수를 넘는 51.2%가 연평균 1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가 38.6%, 3회가 7.3%, 4회와 5회가 각각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시설유형별 국내외 시설 활용 횟수(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전체		100.0	(41)	51.2	(21)	36.6	(15)	7.3	(3)	2.4	(1)	2.4	(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5)	60.0	(3)	20.0	(1)	20.0	(1)	–		–	
	문예회관	100.0	(2)	50.0	(1)	50.0	(1)	–		–		–	
	화랑	100.0	(25)	52.0	(13)	32.0	(8)	8.0	(2)	4.0	(1)	4.0	(1)
	창작스튜디오	100.0	(5)	60.0	(3)	40.0	(2)	–		–		–	
	대안공간	100.0	(4)	25.0	(1)	75.0	(3)	–		–		–	

4. 기타 행사

다음으로 이상에서 조사한 전시, 교류, 프로그램 이외에 개최한 기타 행사의 개최 수와 개최 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1) 개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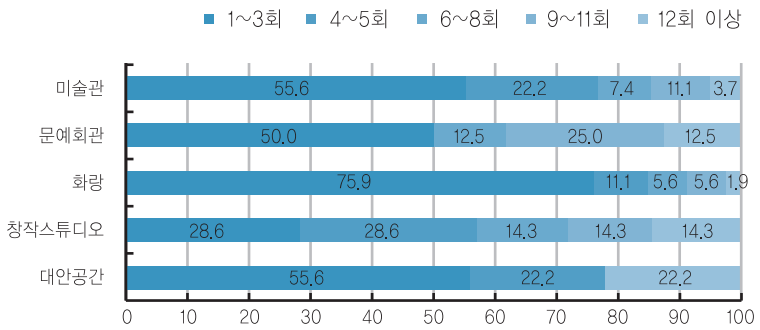
최근 1년간(2005.11~2006.10) 1회 이상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행사를 개최한 시설을 대상으로 그 개최 수를 알아본 질문에 전체 227개 시설의 46.3%인 105개 시설이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시설유형별로는 대안공간의 69.2%가 질문에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창작스튜디오(63.6%), 미술관(61.4%) 순이었다. 반면 문예회관의 경우는 전체 시설의 33.3%만이 응답하여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화랑(40.0%)이 낮았다.

[표 4-25]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진행 여부(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전체		100.0	(227)	46.3	(105)	68.3	(11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61.4	(27)	38.6	(17)
	문예회관	100.0	(24)	33.3	(8)	66.7	(16)
	화랑	100.0	(135)	40.0	(54)	60.0	(81)
	창작스튜디오	100.0	(11)	63.6	(7)	36.4	(4)
	대안공간	100.0	(13)	69.2	(9)	30.8	(4)

기타 행사의 개최 수를 응답한 시설 105개를 기준으로 보면 응답한 시설의 63.8%인 89개 시설이 전시 외 다른 행사를 1~3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한 시설의 과반수 이상이 연간 3회 이하의 기타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는 4~5회를 개최한 시설이 15.2%, 9~11회 개최 시설이 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기타 행사의 개최 횟수 (단위: %)



[표 4-26]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진행 횟수(2005.11~2006.10) (단위: %)

구분		응답자		1~3회		4~5회		6~8회		9~11회		12회 이상	
전체		100.0	(105)	63.8	(67)	15.2	(16)	6.7	(7)	8.6	(9)	5.7	(6)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7)	55.6	(15)	22.2	(6)	7.4	(2)	11.1	(3)	3.7	(1)
	문예회관	100.0	(8)	50.0	(4)	–		12.5	(1)	25.0	(2)	12.5	(1)
	화랑	100.0	(54)	75.9	(41)	11.1	(6)	5.6	(3)	5.6	(3)	1.9	(1)
	창작스튜디오	100.0	(7)	28.6	(2)	28.6	(2)	14.3	(1)	14.3	(1)	14.3	(1)
	대안공간	100.0	(9)	55.6	(5)	22.2	(2)	–		–		22.2	(2)

2) 개최 시기

기타 행사를 개최한 시기에 대해 101개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에 응답한 시설의 47.6%가 10월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월이 46.7%로 뒤를 이었다. 한편 2월은 13.3%, 3월은 18.1%로 응답하여 기타 행사가 가장 적게 개최되는 시기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의 경우 5월이 59.3%로 가장 많이 기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화

랑의 경우는 10월이 44.4%로 가장 높았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5월과 9월, 10월, 12월이 모두 50.0%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9월이 85.7%로 가장 높았고, 대안공간의 경우는 8월과 9월이 각각 5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시설유형별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이외의 행사 개최 시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101)		22.8 (23)	13.9 (14)	18.8 (19)	24.8 (25)	48.5 (49)	26.7 (27)	33.7 (34)	41.6 (42)	42.6 (43)	49.5 (50)	32.7 (33)	35.6 (36)
시설유형별	미술관 (27)	25.9 (7)	14.8 (4)	22.2 (6)	37.0 (10)	59.3 (16)	25.9 (7)	48.1 (13)	48.1 (13)	40.7 (11)	48.1 (13)	33.3 (9)	37.0 (10)
	문예회관 (7)	14.3 (1)	14.3 (1)	42.9 (3)	42.9 (3)	57.1 (4)	28.6 (2)	14.3 (1)	42.9 (3)	57.1 (4)	57.1 (4)	28.6 (2)	57.1 (4)
	화랑 (51)	19.6 (10)	11.8 (6)	13.7 (7)	13.7 (7)	41.2 (21)	23.5 (12)	25.5 (13)	31.4 (16)	33.3 (17)	47.1 (24)	31.4 (16)	31.4 (16)
	창작스튜디오 (7)	57.1 (4)	28.6 (2)	28.6 (2)	28.6 (2)	57.1 (4)	28.6 (2)	42.9 (3)	71.4 (5)	85.7 (6)	71.4 (5)	57.1 (4)	57.1 (4)
	대안공간 (9)	11.1 (1)	11.1 (1)	11.1 (1)	33.3 (3)	44.4 (4)	44.4 (4)	44.4 (4)	55.6 (5)	55.6 (5)	44.4 (4)	22.2 (2)	22.2 (2)

제3절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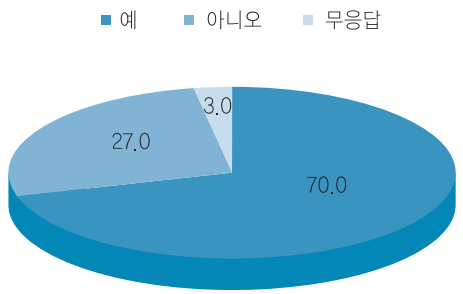
1. 재정

1) 연간 예 · 결산 편성

본 항에서는 시각예술단체의 재정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연간 예산 편성과 결산을 하는지 여부, 재정 수입 중 입장료 유무, 재정 지출현황,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 관련기관의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들의 재정 현황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과 정책적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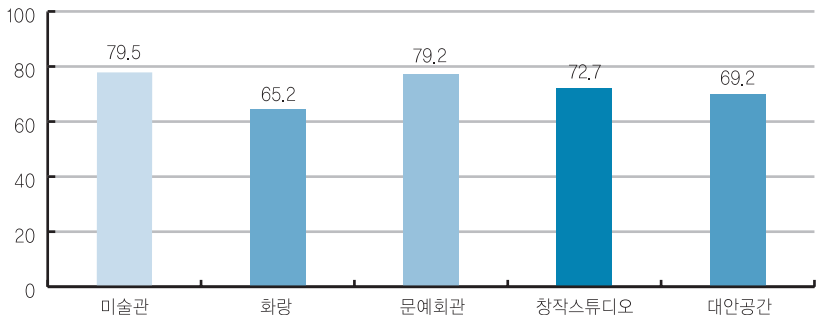
우선 정기적으로 연간 예산 편성과 결산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림 4-3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시설 227개중 159개 시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고, 61개 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조사기관의 70.0%가 현재 정기적인 예 · 결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4-38] 연간 예 · 결산 편성 여부 (단위: %)



다시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응답시설 유형별로 미술관이 79.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정기적인 예 · 결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예회관(79.2%), 창작스튜디오(72.7%), 대안공간(69.2%), 화랑(65.2%) 순서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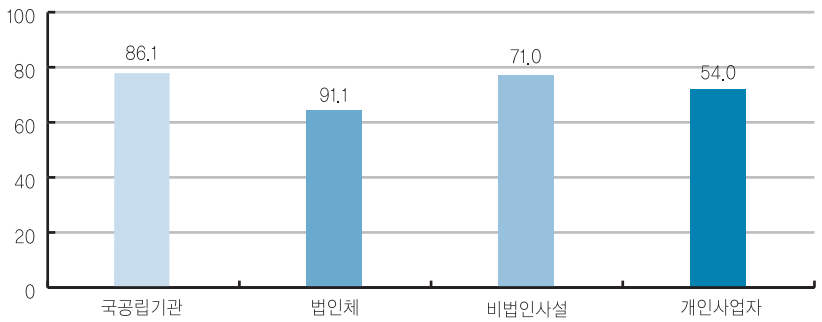
[그림 4-39] 시설유형별 정기적인 예 · 결산 시스템 보유 비율 (단위: %)



다음으로 지역별로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기적인 연간 예 · 결산 편성 비율이 70.0%였으나, 경기(50.0%), 강원(50.0%), 인천(33.0%) 등은 50%이하의 비율을 보이며 이 지역의 시각예술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적 성격별로 조사결과를 분류해 보았을 때 법적으로 예 · 결산의 투명성이 강제되는 법인체(91.1%), 국 · 공립 기관(86.1%)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비법인사설(71.0%), 개인사업자(5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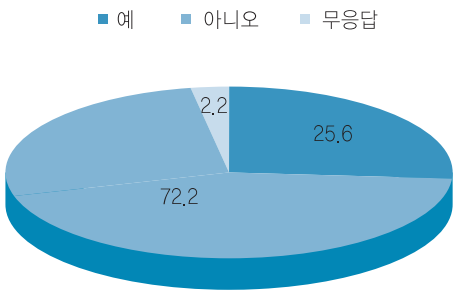
[그림 4-40] 법적성격별 정기적인 예 · 결산 시스템 보유 비율 (단위: %)



2) 입장수입

시각예술 시설이 전시를 기획하거나 특별 전시를 할 때 입장료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227개의 시설 중 25.6%에 해당하는 58개 시설이 입장료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72.2%인 164개 시설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5개 시설은 입장료 부과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많은 수의 시각예술시설이 무료 관람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1] 입장료 징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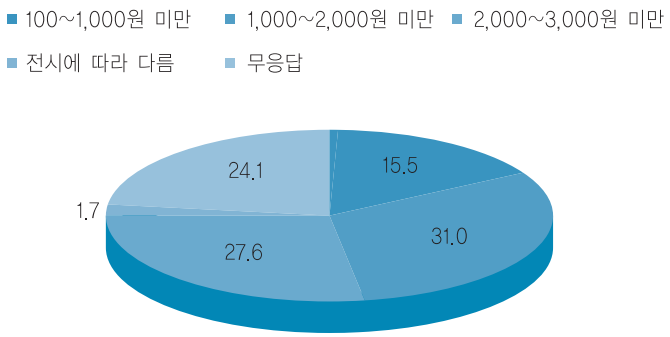
시설유형별로 보았을 때, 미술관의 경우 61.4%(27개), 화랑은 20.7%(28개), 창작스튜디오는 18.2%(2개), 문예회관은 4.2%(1개)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안공간은 조사 대상 13개 시설 모두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4-28] 입장료 유무 (단위: %)

구분		응답자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00.0	(227)	25.6	(58)	72.2	(164)	2.2	(5)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61.4	(27)	38.6	(17)	–	
	문예회관	100.0	(24)	4.2	(1)	83.3	(20)	12.5	(3)
	화랑	100.0	(135)	20.7	(28)	77.8	(105)	1.5	(2)
	창작스튜디오	100.0	(11)	18.2	(2)	81.8	(9)	–	
	대안공간	100.0	(13)	–		100.0	(13)	–	

입장료 액수를 묻는 질문에 [그림 4-42]와 같이 입장료를 받는다고 대답한 58개 시설 중 31%(18개)가 1,000~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2,000~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7.6%(16개)이며, 1,000원 미만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15.5% 였다.

[그림 4-42] 입장료 징수액 현황 (단위: %)



법적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4-29]와 같이 국고에서 재정 지원이 되어 비교적 재정안정도가 높은 국공립 기관의 경우 전체 8개의 국공립 기관 중 4개 시설, 즉 50%정도가 100~1,000원 미만의 입장료를, 25%가량의 시설이 1,000~2,000원 미만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21개의 시설 중 12개 시설이 입장료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그 액수는 100~1,000원 미만이 2곳, 1,000~2,000원 미만이 8곳, 2,000~3,000원 미만이 4곳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국공립시설과 사립시설과의 입장료 징수액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법적종류별 입장료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00~1,000원 미만		1,000~2,000원 미만		2,000~3,000원 미만		전시별로 다름		무응답	
전체		100.0	(58)	15.5	(9)	31.0	(18)	27.6	(16)	1.7	(1)	24.1	(14)
시설유형별	국공립기관	100.0	(8)	50.0	(4)	25.0	(2)	–		–		25.0	(2)
	법인체	100.0	(15)	13.3	(2)	33.3	(5)	26.7	(4)	6.7	(1)	20.0	(3)
	비법인사설	100.0	(11)	9.1	(1)	27.3	(3)	54.5	(6)	–		9.1	(1)
	개인사업자	100.0	(21)	9.5	(2)	38.1	(8)	19.0	(4)	–		33.3	(7)
	기타	100.0	(3)	–		–		66.7	(2)	–		33.3	(1)

3)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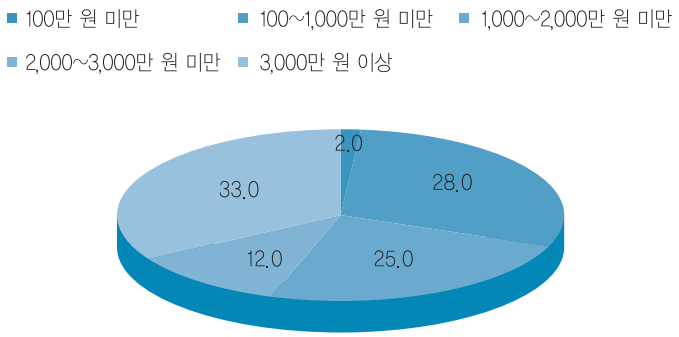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각예술시설의 시설유지비 지출항목은 크게 청소와 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 시설보수비, 인테리어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각 항목에 따른 지출 금액을 살펴봄으로써 시각예술시설 등이 시설 운영비로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본적인 유지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 공과금과 시설에 대한 재투자비가 얼마인지 살펴보았다.

① 관리 및 청소 등의 인건비

시설 유지 관리 및 청소 인건비에 지출하는 액수에 관한 응답은 총 227개 시설 중 90개(39.6%)에 불과하였다. 이는 [표 4-30]과 같이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화랑(45.2%), 대안공간 (38.5%), 미술관 (36.4%), 문예회관(29.2%), 창작스튜디오(9.1%) 순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시설 유지 관리 및 청소 인건비에 지출하는 액수를 각 시설들이 응답한 액수의 범위를 100만 원 미만, 100~1,000만 원 미만, 1,000~2,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범주로 나누었다. 이러한 범주별 분류 하에 본 설문 항목에 실제 응답을 한 응답자 수를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 각 범주별 비율을 분석하면 [그림 4-43]과 같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체 조사 기관 중의 본 항목에 응답 기관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다. 응답기관 중 33.0%가 시설관리비로 3,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000만 원 미만(28.0%), 1,000~2,000만 원 미만(25.0%), 2,000~3,000만 원 미만(12.0%) 등의 순으로 시설관리, 청소비 등을 지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록 응답한 기관에 한정된 것이기만 하지만, 국내 시각예술 시설들이 시설 규모나 관리비 지출 면에서 중간층보다는 양 극단이 두드러진 일종의 양극화 현상에 처해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3] 연간 관리비 지출액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이러한 관리비 및 청소비 지출액을 백분율로 분석해보면 미술관, 화랑, 문예회관,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안공간의 경우 100~1,0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공간을 제외한 미술관, 화랑, 창작스튜디오 등은 관리비와 청소비 지출이 3,000만 원 이상과 1,000만 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간층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30] 시설유형별 관리 및 청소 인건비 연간 지출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00만 원 미만	100~1,000 만 원 미만	1,000~2,000 만원미만	2,000~3,000 만원미만	3,000 만 원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227)	0.9 (2)	11.0 (25)	9.7 (22)	4.8 (11)	13.2 (30)	60.7 (137)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3 (1)	9.1 (4)	6.8 (3)	2.3 (1)	15.9 (7)	63.6 (28)
	문예회관	100.0 (24)	–	–	8.3 (2)	8.3 (2)	12.5 (3)	70.8 (17)
	화랑	100.0 (135)	0.7 (1)	13.3 (18)	11.9 (16)	5.2 (7)	14.1 (19)	54.8 (74)
	창작스튜디오	100.0 (11)	–	–	–	–	9.1 (1)	90.9 (10)
	대안공간	100.0 (13)	–	23.1 (3)	7.7 (1)	7.7 (1)	–	61.8 (8)

② 청소비

시각예술 시설의 연간 지출액 중 청소비를 연간 얼마나 지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시설 중 29.1%에 해당하는 56개 시설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시설 중 10.6%에 해당하는 24개 시설이 연간 청소비로 100~300만 원 미만, 6.2%에 해당하는 14개 시설이 1,200만 원 이상, 4.8%에 해당하는 11개 시설이 10~100만 원 미만, 4.0%에 해당하는 9개 시설이 300~600만 원 미만, 3.5%에 해당하는 8개 시설이 600~1,200만 원 미만을 연간 청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은 전체 44개 시설 중 응답하지 않은 29개의 시설을 제외하고 7개 시설이 1,200만 원 이상을 연간 청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화랑은 전체 135개 시설 중 응답하지 않는 97개 시설을 제외한 38개 시설 중 13개 시설이 100~300만 원 미만을 연간 청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문예회관은 24개 해당 시설 중 대답하지 않은 17개 시설을 제외하면 100~300만 원 미만 4개, 300~600만 원 미만 1개, 1,200만 원 이상 2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창작스튜디오는 총 11개 시설 중 2개 시설이 연간 청소비 지출에 관해 응답하였는데, 100~300만 원 미만이 1개, 1,200만 원 이상이 1개로 응답하였고, 대안공간은 1개 시설이 10~100만 원 미만, 2개 시설이 100~300만 원 미만, 1개 시설이 300~600만 원 미만을 연간 청소비로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31] 시설유형별 청소비 지출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0~100만 원 미만	100~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1,200만 원 미만	1,200만 원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227)	4.8 (11)	10.6 (24)	4.0 (9)	3.5 (8)	6.2 (14)	70.9 (16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	9.1 (4)	4.5 (2)	4.5 (2)	15.9 (7)	65.9 (29)
	문예회관	100.0 (24)	–	16.7 (4)	4.2 (1)	–	8.3 (2)	70.8 (17)
	화랑	100.0 (135)	7.4 (10)	9.6 (13)	3.7 (5)	4.4 (6)	3.0 (4)	71.9 (97)
	창작스튜디오	100.0 (11)	–	9.1 (1)	–	–	9.1 (1)	81.8 (9)
	대안공간	100.0 (13)	7.7 (1)	15.4 (2)	7.7 (1)	–	–	69.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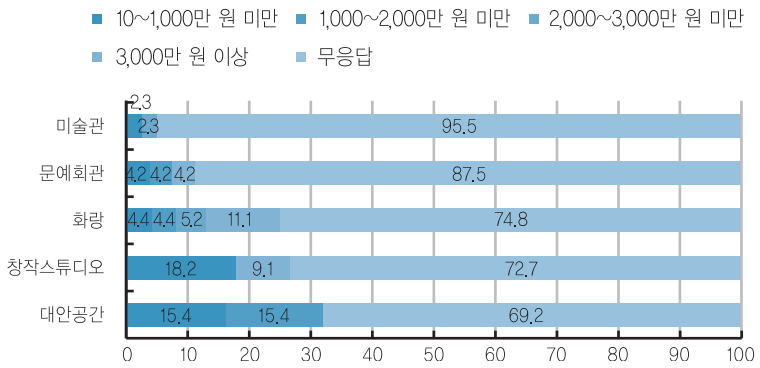
③ 임대료

시각예술시설뿐만 아니라도 일반 기관이나 시설의 지출항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유지비 지출에서 임대료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시설의 물질적 규모나 혹은 재정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대료 액수를 묻는 항목은 모든 설문 항목 중에서도 응답자가 자신 있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설의 연간 지출액 중 임대료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227개 시각예술 시설 중 20.3% 해당하는 46개 시설이 응답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시설 중 37.0%에 해당하는 17개 시설이 3,000만 원 이상을 연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6.0%에 해당하는 12개 시설은 임대료로 연간 10~1,000만 원 미만, 20.0%에 해당하는 9개 시

설은 1,000~2,000만 원 미만, 17.0%에 해당하는 8개 시설은 2,000~3,000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44] 연간 임대료 지출 현황 (단위: %)



[표 4-32] 시설유형별 임대료 지출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0~1,000 만 원 미만	1,000~2,000 만 원 미만	2,000~3,000 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227)	5.3 (12)	4.0 (9)	3.5 (8)	7.5 (17)	79.7 (18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2.3 (1)	–	2.3 (1)	–	95.5 (42)
	문예회관	100.0 (24)	4.2 (1)	4.2 (1)	–	4.2 (1)	87.5 (21)
	화랑	100.0 (135)	4.4 (6)	4.4 (6)	5.2 (7)	11.1 (15)	74.8 (101)
	창작스튜디오	100.0 (11)	18.2 (2)	–	–	9.1 (1)	72.7 (8)
	대안공간	100.0 (13)	15.4 (2)	15.4 (2)	–	–	69.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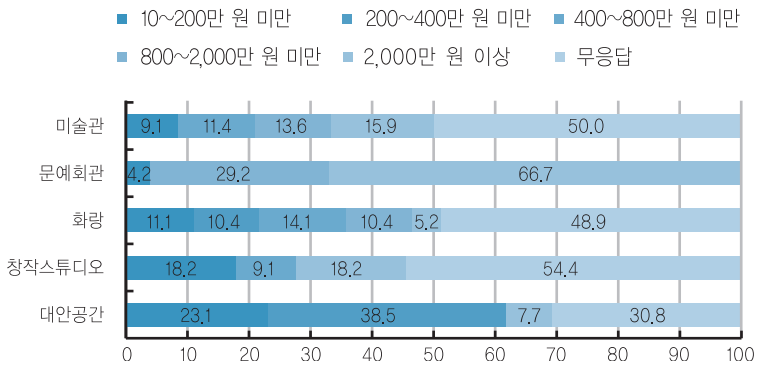
④ 공과금

시각예술 시설의 연간 지출액 중 공과금으로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227개 시설 중 49.8%에 해당하는 113개 시설이 응답하였다.

응답 시설 중 11.5%에 해당하는 26개 시설이 400~800만 원 미만을 연간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 원 이상을 연간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시설은 10.6%에 해당하는 24개 시설로 나타났는데, 그 중 미술관, 화랑, 문예회관이 각각 7개씩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반면에 창작스튜디오는 2개, 대안공간은 1개만이 2,000만 원 이상을 연간 공과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9.7%에 해당하는 22개 시설이 연간 공과금으로 10~200만 원 미만, 9.3%

에 해당하는 21개 시설이 200~400만 원 미만, 8.8%에 해당하는 20개 시설이 800~2,000만 원 미만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했다.

[그림 4-45] 연간 공과금 지출액 (단위: %)



시설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은 전체 44개 시설 중 15.9%에 해당하는 7개 시설이 2,000만 원 이상을 공과금으로 지출하여 응답 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화랑은 전체 135개 시설 중 14.1%에 해당하는 19개 시설이 400~800만 원 미만을 공과금으로 지출하여 응답 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문예회관은 전체 24개 시설 중 응답하지 않은 16개 시설을 제외하면 1개 시설이 400~800만 원 미만, 나머지 7개 시설이 2,000만 원을 연간 각종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작스튜디오는 전체 11개 시설 중 2개가 200~400만 원 미만과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대안 공간은 전체 13개 시설 중 38.5%에 해당하는 5개 시설이 200~400만 원 미만을 지출함으로써 응답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33] 시설유형별 각종 공과금 지출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0~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800만 원 미만	800~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227)	9.7 (22)	9.3 (21)	11.5 (26)	8.8 (20)	10.6 (24)	50.2 (11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9.1 (4)	–	11.4 (5)	13.6 (6)	15.9 (7)	50.0 (22)
	문예회관	100.0 (24)	–	–	4.2 (1)	–	29.2 (7)	66.7 (16)
	화랑	100.0 (135)	11.1 (15)	10.4 (14)	14.1 (19)	10.4 (14)	5.2 (7)	48.9 (66)
	창작스튜디오	100.0 (11)	–	18.2 (2)	9.1 (1)	–	18.2 (2)	54.5 (6)
	대안공간	100.0 (13)	23.1 (3)	38.5 (5)	–	–	7.7 (1)	30.8 (4)

2.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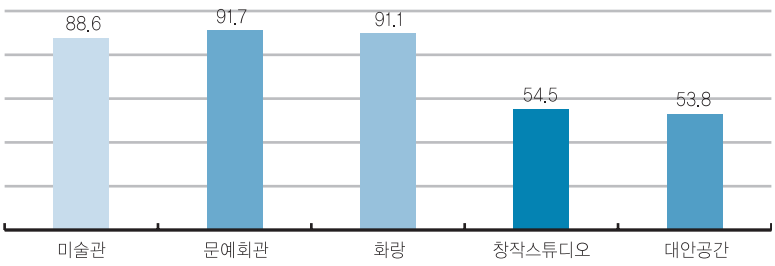
시각예술 시설의 인력 보유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시설의 인력 고용과 운영의 양적, 질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시각예술 시설의 인력을 크게 유급 상근 직원과 인턴 직원으로 나누어 그 직원 수와 구성, 인건비, 복지 등을 살펴보았다.

1) 유급 상근 직원

① 유급 상근 직원 유무

유급 상근 직원의 유무는 유급 상근 직원 수를 밝힌 시설 수를 근거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27개 시각예술 시설 중 86.8%인 197개 시설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문예회관(91.7%)이었으며 다음으로 화랑(91.1%), 미술관(88.6%)의 순으로 거의 90%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나, 창작스튜디오는 54.5%, 대안공간은 53.8%만이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큰 격차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의 요인 중 하나로 대안공간과 창작스튜디오의 상당수가 유급 상근 직원이 아닌 무급 임시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비상근 형태의 고용 인력에 대하여도 보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6] 유급 상근 직원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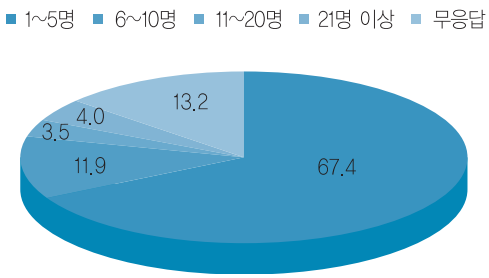
[표 4-34]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유무 (단위: %)

구분		응답자		있음		없음	
전체		100.0	(227)	86.8	(197)	13.2	(30)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88.6	(39)	11.4	(5)
	문예회관	100.0	(24)	91.7	(22)	8.3	(2)
	화랑	100.0	(135)	91.1	(123)	8.9	(12)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45.5	(5)
	대안공간	100.0	(13)	53.8	(7)	46.2	(6)

② 유급 상근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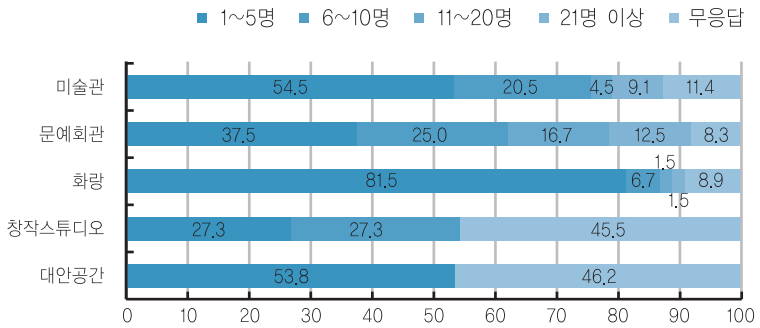
시각예술 시설의 유급 상근직원의 수를 살펴보면 1~5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67.4%로 가장 많았으며, 6~10명이 11.9%, 11~20명이 3.5%, 21명 이상이 4.0%였다.

[그림 4-47] 유급 상근 직원의 수 (단위: %)



1~5명의 유급 상근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화랑(81.5%)이었으며 다음으로 미술관(54.5%), 대안공간(53.8%) 순이었다. 6~10명의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는 창작스튜디오(27.3%), 문예회관(25.0%), 미술관(20.5%) 순이었으며, 대안공간의 경우는 유급 상근 직원을 6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0명의 유급 상근 직원을 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문예회관(29.2%)였으며 다음으로 미술관(13.6%)이 높았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유급상근 직원을 11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21명 이상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는 문예회관(12.5%), 미술관(9.1%) 순이었다.

[그림 4-48]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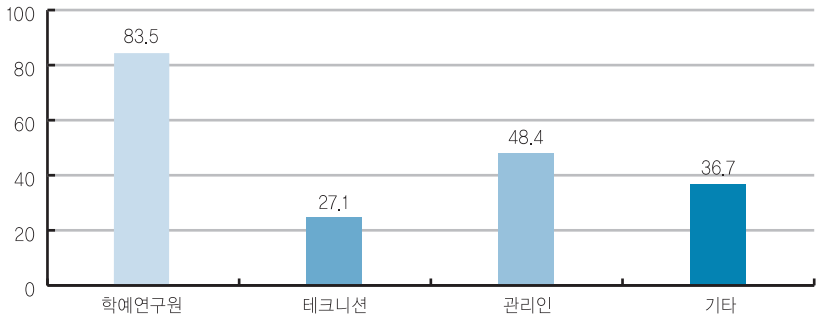
[표 4-35]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5명	6~10명	11~20명	21명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227)	67.4 (153)	11.9 (27)	3.5 (8)	4.0 (9)	13.2 (30)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54.5 (24)	20.5 (9)	4.5 (2)	9.1 (4)	11.4 (5)
	문예회관	100.0 (24)	37.5 (9)	25.0 (6)	16.7 (4)	12.5 (3)	8.3 (2)
	화랑	100.0 (135)	81.5 (110)	6.7 (9)	1.5 (2)	1.5 (2)	8.9 (12)
	창작스튜디오	100.0 (11)	27.3 (3)	27.3 (3)	–	–	45.5 (5)
	대안공간	100.0 (13)	53.8 (7)	–	–	–	46.2 (6)

③ 유급 상근 직원 구성

유급 상근 직원의 구성은 크게 학예연구원, 테크니션, 관리인, 기타로 나누어 해당 항목의 직원 수를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유급 상근 직원 수를 밝힌 시설은 197개였으나 유급 상근 직원의 세부적인 구성을 밝힌 시설은 188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응답한 188개 시설의 83.5%인 157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인이 48.4%, 기타가 36.7%, 테크니션이 2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예술 시설이 유급 상근 직원을 둘 경우 학예연구원을 가장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9] 유급 상근 직원 보유율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대안공간의 100%가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화랑(92.6%), 미술관(82.5%)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창작스튜디오는 57.1%, 문예회관 20.0%에 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창작스튜디오와 문예회관의 중점 활동이 각각 작가지원과 전시대관이어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예연구원의 필요성이 적은 유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6]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구성 단위 : %, (빈도수)

구분 (응답자)		학예연구원		테크니션		관리인		기타	
전체 (188)		83.5	(157)	27.1	(51)	48.4	(91)	36.7	(69)
시설유형별	미술관 (40)	82.5	(33)	32.5	(13)	67.5	(27)	52.5	(21)
	문예회관 (15)	20.0	(3)	26.7	(4)	66.7	(10)	46.7	(7)
	화랑 (121)	92.6	(112)	24.0	(29)	39.7	(48)	30.6	(37)
	창작스튜디오 (7)	57.1	(4)	57.1	(4)	85.7	(6)	28.6	(2)
	대안공간 (5)	100.0	(5)	20.0	(1)	-		40.0	(2)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는 시설의 경우 1명의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는 시설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21.0%), 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의 경우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는 33개의 미술관 중 39.4%인 13개 시설이 1명의 학예 연구원을 두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명 이상(18.2%), 2명(15.2%), 3명(15.2%) 순으로 나타나 5명 이상의 비교적 많은 학예연구원을 둔 시설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화랑의 경우 1명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2명(24.1%), 3명(10.7%), 5명(5.4%) 순이었고 문예회관은 학예연

구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3개의 시설 모두 1명의 학예 연구원을 두고 있었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1명을 두고 있는 시설이 2개, 3명과 4명을 두고 있는 시설이 각각 1개였고 대안공간은 1명인 시설이 3개, 2명과 3명인 시설이 각각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시설유형별 학예 연구원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157)	54.1	(85)	21.0	(33)	12.1	(19)	5.1	(8)	7.6	(1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33)	39.4	(13)	15.2	(5)	15.2	(5)	12.1	(4)	18.2	(6)
	문예회관	100.0	(3)	100.0	(3)	–		–		–		–	
	화랑	100.0	(112)	57.1	(64)	24.1	(27)	10.7	(12)	2.7	(3)	5.4	(6)
	창작스튜디오	100.0	(4)	50.0	(2)	–		25.0	(1)	25.0	(1)	–	
	대안공간	100.0	(5)	60.0	(3)	20.0	(1)	20.0	(1)	–		–	

관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급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의 85.7%가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술관(67.5%)과 화랑(66.7%)순이었고 반면 대안공간은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1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시설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12.1%), 5명 이상(15.4%) 순이었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1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시설이 55.6%였으며, 5명 이상이 18.5%, 4명과 2명이 각각 11.1% 순이었다. 화랑은 1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79.2%였으며, 2명이 10.4%, 3명이 6.3% 순이었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시설의 70.0%가 5명 이상이어서 5명 이상의 비교적 많은 관리인을 두고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작스튜디오는 1명(50.0%), 2명(33.3%), 3명(16.7%) 순이었다.

[표 4-38] 시설유형별 관리인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91)	62.6	(57)	12.1	(11)	6.6	(6)	3.3	(3)	15.4	(1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7)	55.6	(15)	11.1	(3)	3.7	(1)	11.1	(3)	18.5	(5)
	문예회관	100.0	(10)	10.1	(1)	10.0	(1)	10.0	(1)	–		70.0	(7)
	화랑	100.0	(48)	79.2	(38)	10.4	(5)	6.3	(3)	–		4.2	(2)
	창작스튜디오	100.0	(6)	50.0	(3)	33.3	(2)	16.7	(1)	–		–	
	대안공간	100.0	(0)	–		–		–		–		–	

테크니션의 경우 역시 창작스튜디오가 57.1%로 가장 높았는데 나머지 유형은 미술관(32.5%), 문예회관(26.7%), 화랑(24.0%)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창작스튜디오가 유급 상근 직원 중 관리인과 테크니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요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입주 작가를 위한 전문적인 스튜디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테크니션의 경우는 1명(70.6%), 2명(13.7%), 3명(7.8%), 5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테크니션을 두고 있는 시설의 84.6%가 1명의 테크니션을 두고 있었으며, 2명을 두고 있는 시설이 7.7%, 5명 이상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랑의 경우는 1명(72.4%), 3명(10.3%), 5명 이상(10.3%) 순이었으며, 문예회관은 2명(50.0%), 1명(25.0%), 3명(25.0%) 순이었다. 창작 스튜디오의 경우는 1명과 2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각각 50.0%였으며, 대안공간은 테크니션을 두고 있는 1개 시설에서 1명의 테크니션을 두고 있었다.

[표 4-39] 시설유형별 테크니션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51)	70.6	(36)	13.7	(7)	7.8	(4)	0.0	(0)	7.8	(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13)	84.6	(11)	7.7	(1)	–		–		7.7	(1)
	문예회관	100.0	(4)	25.0	(1)	50.0	(2)	25.0	(1)	–		–	
	화랑	100.0	(29)	72.4	(21)	6.9	(2)	10.3	(3)	–		10.3	(3)
	창작스튜디오	100.0	(4)	50.0	(2)	50.0	(2)	–		–		–	
	대안공간	100.0	(1)	100.0	(1)	–		–		–		–	

기타 유급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미술관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예회관(46.7%), 대안공간(40.0%), 화랑(30.6%), 창작스튜디오(28.6%) 순이었다.

[표 4-40] 시설유형별 기타 유급 상근 직원의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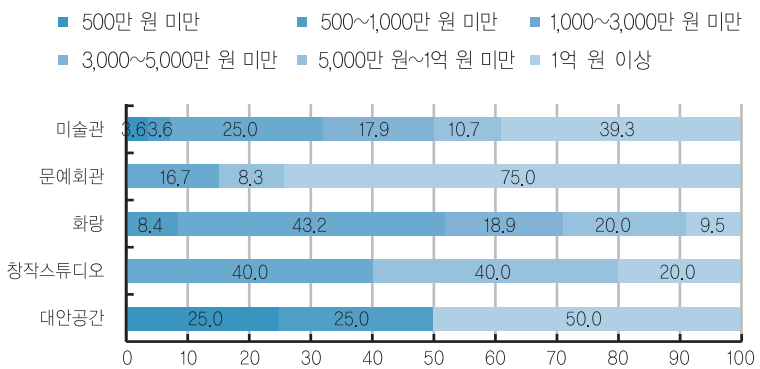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00.0	(69)	62.3	(43)	5.8	(4)	15.9	(11)	4.3	(3)	11.6	(8)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1)	38.1	(8)	9.5	(2)	33.3	(7)	–		19.0	(4)
	문예회관	100.0	(7)	57.1	(4)	–		–		29.6	(2)	14.3	(1)
	화랑	100.0	(37)	78.4	(29)	5.4	(2)	10.8	(4)	–		5.4	(2)
	창작스튜디오	100.0	(2)	–		–		–		50.0	(1)	50.0	(1)
	대안공간	100.0	(2)	100.0	(2)	–		–		–		–	

④ 유급 상근 직원의 인건비

시각예술 시설의 유급 상근 직원에 대한 연평균 인건비 지출 규모를 알아보았다. 이 조사는 그 자체로 시설의 운영 규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유급 상근 직원 수 및 시설의 전체 지출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교차 분석하여 직원 1인당 인건비 현황이나 전체 재정에서 인건비의 비중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체 227개 시설 중에서 유급 상근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197개였으나, 이 중 인건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144개 시설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인건비로 1,000~3,00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시설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 1억 원을 넘게 지출하는 곳이 20.8%, 3,000~5,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1억 원 미만을 지출하는 곳이 각각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시각예술 시설은 인건비 지출의 규모면에서 중하 수준과 최상 수준에 비해, 그 중간층에 속한 시설의 비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50] 유급 상근 직원의 연평균 인건비 분포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연평균 1억 원을 넘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곳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1,000~3,000만 원 미만이 25.0%, 3,000~5,000만 원 미만이 17.9% 순으로 나타났다. 화랑의 경우는 43.2%가 1,000~3,000만 원 미만의 연평균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20.0%, 3,000~5,000만 원 미만이 18.9% 순이었다. 문예회관의 경우 1억 원이 넘게 지출하는 곳이 75.0%로 미술관(39.3%)과 함께 연평균 인건비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곳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유형이었으며, 16.7%는 1,000~3,000만

원 미만, 8.3%는 5,000만 원~1억 원 미만의 연평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스튜디오는 1,000~3,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1억 원 미만을 지출하는 곳이 각각 40.0%였으며, 1억 원을 넘게 지출하는 곳이 20.0%였다. 대안공간은 3,000~5,00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곳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미만과 500~1,000만 원 미만이 25.0%로 1,000만 원 미만의 연평균 인건비를 지출하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4-41]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 연평균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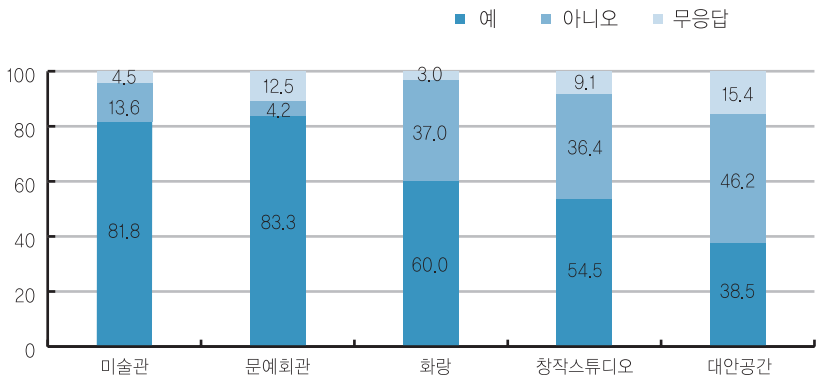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1,000~3,000만 원 미만	3,000~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전체		100.0 (144)	1.4 (2)	6.9 (10)	36.1 (52)	17.4 (25)	17.4 (25)	20.8 (30)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8)	3.6 (1)	3.6 (1)	25.0 (7)	17.9 (5)	10.7 (3)	39.3 (11)
	문예회관	100.0 (12)	–	–	16.7 (2)	–	8.3 (1)	75.0 (9)
	화랑	100.0 (95)	–	8.4 (8)	43.2 (41)	18.9 (18)	20.0 (19)	9.5 (9)
	창작스튜디오	100.0 (5)	–	–	40.0 (2)	–	40.0 (2)	20.0 (1)
	대안공간	100.0 (4)	25.0 (1)	25.0 (1)	–	50.0 (2)	–	–

⑤ 유급 상근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

시각예술 시설이 유급 상근 직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사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항목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그 실시 여부 및 종류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27개 시설의 65.2%인 148개 시설이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의 83.3%, 미술관의 81.8%, 화랑의 60.0%, 창작스튜디오의 54.5%, 대안공간의 38.5%가 하나 이상의 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시설 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표 4-42]과 연계해 분석해 보았을 때 유급 상근 직원에 대한 연평균 인건비 지출 규모가 큰 시설 유형일수록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1]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표 4-42]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227)	65.2	(148)	29.5	(67)	5.3	(1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81.8	(36)	13.6	(6)	4.5	(2)
	문예회관	100.0	(24)	83.3	(20)	4.2	(1)	12.5	(3)
	화랑	100.0	(135)	60.0	(81)	37.0	(50)	3.0	(4)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36.4	(4)	9.1	(1)
	대안공간	100.0	(13)	38.5	(5)	46.2	(6)	15.4	(2)

보험의 종류별로 그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60.4%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이 59.0%, 고용보험이 58.1%, 산재보험이 52.4%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각각 79.5%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보험(75.0%), 산재보험(70.5%) 순이었다. 화랑은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55.6%였으며, 국민연금(54.1%), 건강보험(53.3%) 순이었다. 문예회관은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62.5%), 고용보험(54.2%) 순이었다. 창작스튜디오는 4개의 보험을 실시하고 시설의 비율이 모두 54.5%로 같았으며, 대안공간 역시 4개의 보험 모두 38.5%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시설유형별 유급 상근 직원의 4대 보험 종류별 가입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무응답
전체 (227)		60.4 (137)	59.0 (134)	58.1 (132)	52.4 (119)	29.5 (67)	5.3 (12)
시설유형별	미술관 (44)	79.5 (35)	79.5 (35)	75.0 (33)	70.5 (31)	13.6 (6)	4.5 (2)
	문예회관 (24)	79.2 (19)	62.5 (15)	54.2 (13)	50.0 (12)	4.2 (1)	12.5 (3)
	화랑 (135)	53.3 (72)	54.1 (73)	55.6 (75)	48.1 (65)	37.0 (50)	3.0 (4)
	창작스튜디오 (11)	54.5 (6)	54.5 (6)	54.5 (6)	54.5 (6)	36.4 (4)	9.1 (1)
	대안공간 (13)	38.5 (5)	38.5 (5)	38.5 (5)	38.5 (5)	46.2 (6)	15.4 (2)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연수, 관련분야 강의수강, 건강(체육)시설 이용 지원, 기타 중에 해당되는 항목을 중복 선택 하도록 하여 4대 보험 이외의 다른 복지제도 시행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시설의 31.7%인 72개 시설이 4대 보험 이외의 다른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미술관의 38.6%가 4대 보험 이외의 다른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예회관(37.5%), 창작스튜디오(36.4%), 대안공간(30.8%), 화랑(28.1%)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4-44] 시설유형별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실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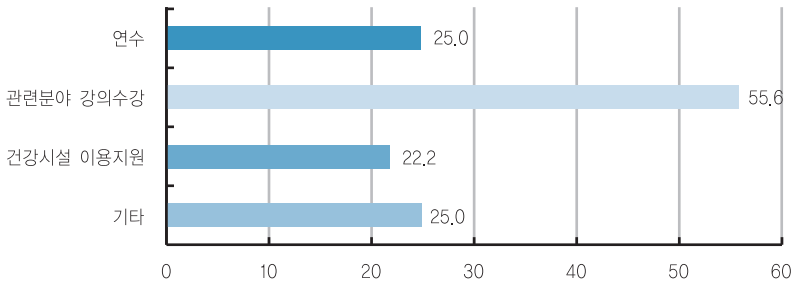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전체		100.0 (227)	31.7 (72)	68.3 (155)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38.6 (17)	61.4 (27)
	문예회관	100.0 (24)	37.5 (9)	62.5 (15)
	화랑	100.0 (135)	28.1 (38)	71.9 (97)
	창작스튜디오	100.0 (11)	36.4 (4)	63.6 (7)
	대안공간	100.0 (13)	30.8 (4)	69.2 (9)

시행 복지제도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질문에 응한 72개 시설의 55.6%가 관련분야 강의 수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수와 기타가 각각 25.0%, 건강(체육)시설 이용 지원(22.2%) 순이었다. 기타로 응답한 항목으로는 회사 규정상의 복지제도 지원(4.0%)과 해외 출장(2.7%) 등이 있었다.

응답한 시설 중 관련분야 강의 수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창작스튜디오(75.0%)였으며, 그 다음은 화랑(60.5%)이었다. 연수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50.0%),

미술관(35.3%) 순이었고, 건강 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 미술관(29.4%), 창작스튜디오(25.0%) 순이었다.

[그림 4-52]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유형-복수응답 (단위: %)



[표 4-45] 시설유형별 4대 보험 이외의 복지제도 종류-복수응답 단위 : %, (빈도수)

구분 (응답자)		연수		관련 분야 강의 수강		건강 시설 이용 지원		기타	
전체 (72)		25.0	(18)	55.6	(40)	22.2	(16)	25.0	(18)
시설유형별	미술관 (17)	35.3	(6)	47.1	(8)	29.4	(5)	5.9	(1)
	문예회관 (9)	22.2	(2)	44.4	(4)	22.2	(2)	33.3	(3)
	화랑 (38)	18.4	(7)	60.5	(23)	21.1	(8)	34.2	(13)
	창작스튜디오 (4)	50.0	(2)	75.5	(3)	25.5	(1)	-	
	대안공간 (4)	25.5	(1)	50.0	(2)	-		25.5	(1)

2) 인턴제도

인턴 제도는 예비 취업 인력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자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서 사회 전 분야, 기업 전반으로 그 시행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월 이상의 인턴 제도에 한정하여 시행 여부와 인턴사원의 수, 급여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시각예술 시설의 인턴제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인턴제도 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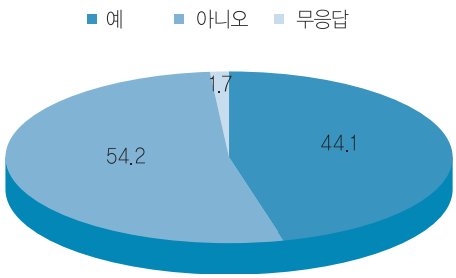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227개 시설 중 44.1%인 100개 시설이 3개월 이상 기준의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54.2%의 시설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63.6%가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창작스튜디오(54.5%), 대안공간(46.2%), 화랑(43.0%) 순이었다. 이에 비해 문예회관은 8.3%만이 인턴제도를 시행한다고 답하여 큰 격차를 보였다.

법적성격별로 살펴보면 법인체 중 59.2%가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가장 높았으며, 비법인사설이 45.2%, 개인사업자가 41.0%, 국공립기관이 3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3] 인턴제도 시행 여부 (단위: %)



[표 4-46] 인턴제도 시행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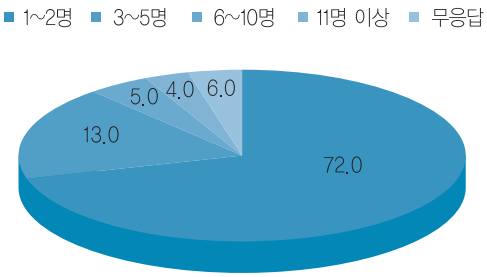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227)	44.1	(100)	54.2	(123)	1.8	(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63.6	(28)	36.4	(16)	–	
	문예회관	100.0	(24)	8.3	(2)	83.3	(20)	8.3	(2)
	화랑	100.0	(135)	43.0	(58)	56.3	(76)	0.7	(1)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45.5	(5)	–	
	대안공간	100.0	(13)	46.2	(6)	46.2	(6)	7.7	(1)
법적종류별	국공립기관	100.0	(37)	32.4	(12)	64.9	(24)	2.7	(1)
	법인체	100.0	(49)	59.2	(29)	40.8	(20)	–	
	비법인사설	100.0	(31)	45.2	(14)	51.6	(16)	3.2	(1)
	개인사업자	100.0	(100)	41.0	(41)	59.0	(59)	–	
	기타	100.0	(10)	40.0	(4)	40.0	(4)	20.0	(2)

② 인턴사원의 수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의 인턴사원 수를 조사하였다.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00개 시설 중 1~2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한 시설이 72.0%로 가장 많았으며, 3~5명을 채용하는 시설이 13.0%, 6~10명이 5.0%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미술관의 64.3%가 1~2명의 인턴사원을 두고 있었으며, 3~5명이 14.3%, 6~10명이 10.7% 순이었다. 화랑의 경우는 1~2명을 두고 있는 곳이 74.1%, 3~5명이 13.8%, 11명 이상이 3.4% 순이었으며, 문예회관은 100%가 1~2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1~2명이 66.7%, 3~5명이 16.7% 순이었으며, 6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었다. 대안공간은 1~2명이 83.3%, 6~10명이 16.7%였다.

[그림 4-54] 인턴사원 채용 인원 분포 (단위: %)



[표 4-47]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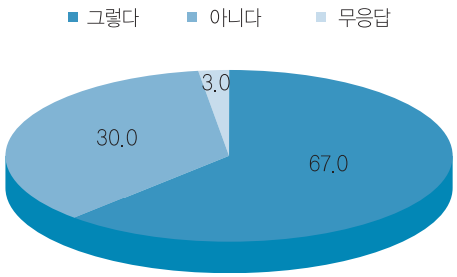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무응답	
전체		100.0	(100)	72.0	(72)	13.0	(13)	5.0	(5)	4.0	(4)	6.0	(6)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8)	64.3	(18)	14.3	(4)	10.7	(3)	7.1	(2)	3.6	(1)
	화랑	100.0	(58)	74.1	(43)	13.8	(8)	1.7	(1)	3.4	(2)	6.9	(4)
	문예회관	100.0	(2)	100.0	(2)	–		–		–		–	
	창작스튜디오	100.0	(6)	66.7	(4)	16.7	(1)	–		–		16.7	(1)
	대안공간	100.0	(6)	83.3	(5)	–		16.7	(1)	–		–	

③ 상근 직원 채용으로의 여부

인턴 제도는 상근 직원 채용으로 이어지는 수습과정으로서 시행되는 경우와 그 자체로 독립

적인 제도인 경우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인턴 제도의 시행 목적이 상근 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00개의 시설 중 67개 시설이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4-55]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화랑의 84.5%가 상근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안공간(50.0%), 문예회관(50.0%), 미술관(42.9%), 창작스튜디오(33.3%) 순이었다.

[표 4-48] 시설유형별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100)	67.0	(67)	30.0	(30)	3.0	(3)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8)	42.9	(12)	57.1	(16)	–	
	문예회관	100.0	(2)	50.0	(1)	50.0	(1)	–	
	화랑	100.0	(58)	84.5	(49)	12.1	(7)	3.4	(2)
	창작스튜디오	100.0	(6)	33.3	(2)	66.7	(4)	–	
	대안공간	100.0	(6)	50.0	(3)	33.3	(2)	16.7	(1)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표 4-46]의 인턴 제도의 시행 비율과 함께 보면 미술관과 화랑이 대조를 보인다. 미술관의 경우는 인턴 제도를 시행은 가장 많이 하지만 상근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비율은 낮은 반면 화랑의 경우는 인턴 제도의 시행율은 비교적 낮으나 상근 직원 채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80.5%가 상근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비법인사설 시설이 71.4%, 법인체가 65.5% 순이었다. 한편 국공립기관은 8.3%에 그쳐 국공립기관의 경우 상근 직원 채용을 위하여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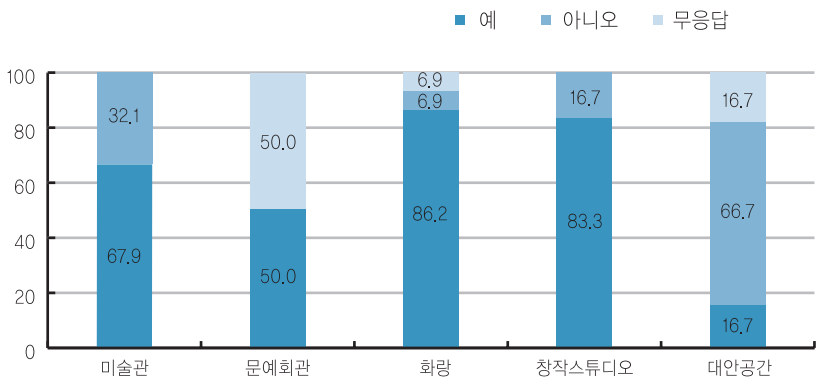
[표 4-49] 법적종류별 상근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제도 시행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100)	67.0	(67)	30.0	(30)	3.0	(3)
법적종류별	국공립기관	100.0	(12)	8.3	(1)	91.7	(11)	–	
	법인체	100.0	(29)	65.5	(19)	31.0	(9)	3.4	(1)
	비법인사설	100.0	(14)	71.4	(10)	28.6	(4)	–	
	개인사업자	100.0	(41)	80.5	(33)	14.6	(6)	4.9	(2)
	기타	100.0	(4)	100.0	(4)	–		–	

④ 인턴사원의 급여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 100개 중 인턴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곳은 76개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화랑의 86.2%가 인턴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창작스튜디오(83.3%), 미술관(67.9%), 문예회관(50.0%) 순이었다. 대안공간은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의 16.7%만이 인턴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시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4-56]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급여 지급 여부 (단위: %)



[표 4-50] 시설유형별 인턴사원 급여 지급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100)	76.0	(76)	18.0	(18)	6.0	(6)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8)	67.9	(19)	32.1	(9)	-	
	문예회관	100.0	(2)	50.0	(1)	-		50.0	(1)
	화랑	100.0	(58)	86.2	(50)	6.9	(4)	6.9	(4)
	창작스튜디오	100.0	(6)	83.3	(5)	16.7	(1)	-	
	대안공간	100.0	(6)	16.7	(1)	66.7	(4)	16.7	(1)

⑤ 인턴사원의 근무 여건

인턴사원에게 지원되는 근무 시설에 대해서는 근무 공간(사무실), 개인별 PC, 개인별 책상, 휴식 공간, 양호 공간 등 5개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다.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시설의 77.0%가 인턴사원에게 근무 공간(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인별 책상과 개인별 PC가 각각 71.0%, 휴식 공간이 32.0%, 양호 공간이 5.0%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턴 제도를 시행하는 미술관의 82.1%가 개인별 PC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근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78.6%, 개인별 책상 지원이 75% 순이었다. 화랑의 경우 근무공간(75.9%), 개인별 책상(74.1%), 개인별 PC(69.0%) 지원 순이었다. 문예회관은 근무공간과 개인별 PC, 개인별 책상을 지원하는 곳이 각각 50.0%였으며, 휴식공간과 양호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스튜디오는 근무공간(83.3%), 개인별 PC(66.7%), 개인별 책상(66.7%), 휴식공간(16.7%) 순이었으며, 양호공간을 지원하는 곳은 없었다. 대안공간은 근무공간(83.3%), 휴식공간(66.7%), 개인별 PC(50.0%), 개인별 책상(33.3%) 순으로 나타나 휴식공간 지원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호공간을 지원하는 곳은 없었다.

[표 4-51] 시설유형별 인턴사원의 근무 여건 현황-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근무공간 (사무실)		개인별 PC		개인별 책상		휴식공간		양호공간		무응답	
전체 (100)		77.0	(77)	71.0	(71)	71.0	(71)	32.0	(32)	5.0	(5)	6.0	(6)
시설유형별	미술관 (28)	78.6	(22)	82.1	(23)	75.0	(21)	42.9	(12)	7.1	(2)	-	
	문예회관 (2)	50.0	(1)	50.0	(1)	50.0	(1)	-		-		-	
	화랑 (58)	75.9	(44)	69.0	(40)	74.1	(43)	25.9	(15)	5.2	(3)	6.9	(4)
	창작스튜디오 (6)	83.3	(5)	66.7	(4)	66.7	(4)	16.7	(1)	-		16.7	(1)
	대안공간 (6)	83.3	(5)	50.0	(3)	33.3	(2)	66.7	(4)	-		16.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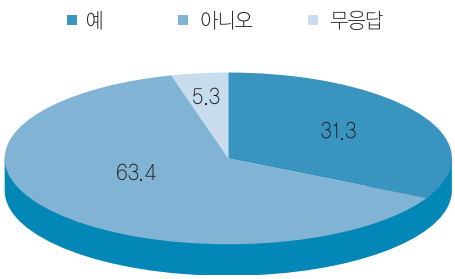
제4절 지원 현황

1. 지원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예술 시설의 재정수입에서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지원금은 재정운용에 있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입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설이 2006. 1. 1에서 2006. 12. 31까지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그림 4-5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227개 시설 중 71개에 해당하는 31.3%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44개 시설에 해당하는 63.4%는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7] 최근 1년간 물적 · 인적 지원을 받은 시설 비율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52]과 같이 미술관의 경우 전체 44개 시설 중 25개에 해당하는 56.8%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화랑의 경우에는 전체 135개 중 22개에 해당하는 16.3%, 문예회관의 경우 전체 24개 시설 중 11개에 해당하는 45.8%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전체 11개 시설 중 5개에 해당하는 45.5%가 지원을 받았으며, 대안공간은 전체 13개 시설 중 8개에 해당하는 61.5%가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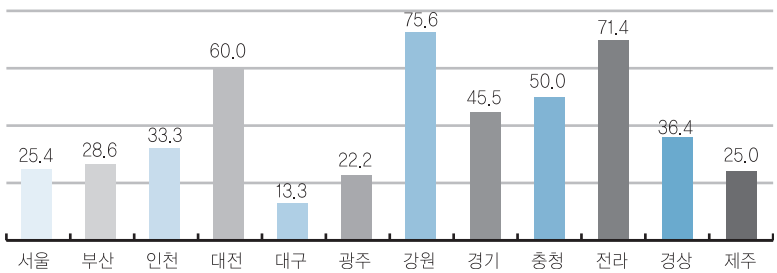
[표 4-52] 시설유형별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100.0	(227)	31.3	(71)	63.4	(144)	5.3	(1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56.8	(25)	34.1	(15)	9.1	(4)
	문예회관	100.0	(24)	45.8	(11)	37.5	(9)	16.7	(4)
	화랑	100.0	(135)	16.3	(22)	81.5	(110)	2.2	(3)
	창작스튜디오	100.0	(11)	45.5	(5)	45.5	(5)	9.0	(1)
	대안공간	100.0	(13)	61.5	(8)	38.5	(5)	-	

지역별로 외부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수의 시각예술 시설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부지원 비율은 낮지만, 지원 횟수는 타 시도를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도, 전라도와 같은 낮은 인구규모를 가진 지방 자치단체의 시각예술 시설은 그 수는 적지만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비해 높은 비율의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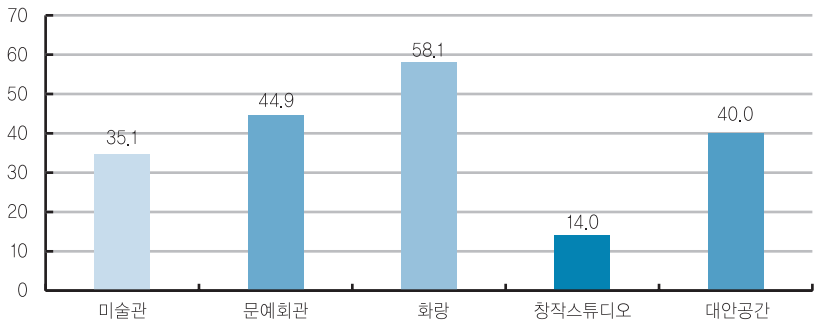
서울이 126개 시설 중 32개에 해당하는 25.4%, 부산이 7개 시설 중 2개에 해당하는 28.6%, 인천이 3개 시설 중 1개에 해당하는 33.3%, 대전이 5개 시설 중 3개에 해당하는 60.0%가 외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구의 경우 15개 시설 중 2개에 해당하는 13.3%, 광주가 9개 시설 중 2개에 해당하는 22.2%, 강원이 4개 시설 중 3개에 해당하는 75.0%, 경기가 22개 시설 중 10개에 해당하는 45.5%로 조사되었다. 또한 충청의 경우 12개 시설 중 6개에 해당하는 50.0%, 전라가 7개 시설 중 5개에 해당하는 71.4%, 경상이 11개 시설 중 4개에 해당하는 36.4%, 제주가 4개 시설 중 1개에 해당하는 25.0%로 공공기관 및 기타지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8] 지역별 시설의 외부의 지원 경험 (단위: %)



법적 종류별로 보면 [그림 4-59]과 같이 법적 종류에 상관없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외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개 시설 중 14개에 해당하는 14.0%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다른 기관들보다 현저히 낮게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9] 법적성격별 외부 지원-복수응답 (단위: %)



2. 지원항목 및 건수

본 조사에서는 외부지원 항목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공공지원과 기업(메세나포함)과 개인후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공공지원 현황

① 중앙정부 지원 건수 및 지원액

시각예술 시설 중 지난 일 년 동안(2006. 1. 1~2006. 12. 31) 중앙정부로터 지원받은 시설은 13개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84.6%가 1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액수를 살펴보면 미술관의 경우 지원받은 9개의 시설 모두 1,000~4,000만 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시설유형별 중앙정부의 지원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000만 원 미만		1,000~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상	
전체		100.0	(13)	7.7	(1)	84.6	(11)	7.7	(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9)	–		100.0	(9)	–	
	문예회관	100.0	(1)	–		–		100.0	(1)
	화랑	100.0	(2)	50.0	(1)	50.0	(1)	–	
	대안공간	100.0	(1)	–		100.0	(1)	–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 건수 및 지원액

지방 시각예술 시설 중 2006년 1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곳은 총 12개 시설이었다. 12개의 시설 중 1개의 시설만이 2건의 지원을 받았고, 11개 시설에 해당하는 91.7%는 2006년 한 해 동안 1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앙정부 유형과 같이 단발성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표 4-54] 시설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회		2회	
전체		100.0	(12)	91.7	(11)	8.3	(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6)	100.0	(6)	–	
	화랑	100.0	(2)	100.0	(2)	–	
	창작스튜디오	100.0	(2)	50.0	(1)	50.0	(1)
	대안공간	100.0	(2)	100.0	(2)	–	

시각예술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표 4-55]와 같이 전체 12개 시설 중 11개 시설이 1,000만 원 미만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2개 중 6개가 미술관으로 몰렸으나 액수의 분포는 거의 균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5] 시설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000만 원 미만		1,000~2,000만 원 미만		2,000~3,500만 원 미만	
전체		100.0	(12)	50.0	(6)	41.7	(5)	8.3	(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6)	33.3	(2)	50.0	(3)	16.7	(1)
	화랑	100.0	(2)	100.0	(2)	–		–	
	창작스튜디오	100.0	(2)	50.0	(1)	50.0	(1)	–	
	대안공간	100.0	(2)	50.0	(1)	50.0	(1)	–	

③ 문화재단 지원 건수 및 지원액

공적 지원의 또 다른 형태인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총 8개로 조사되었으며, 응답한 8개의 시설이 2006년 1년간 1회의 지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었다. 전체 8건의 지원 건수 중 수도권이 6건을 차지하였다. 지원받은 액수는 대다수가 1,00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횟수와 지원 액수 등을 볼 때 문화재단의 지원은 보편적인 지원수단이 되지 못하며,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56] 시설유형별 문화재단의 지원 현황 (단위: %)

구분		1회	
전체		100.0	(8)
시설 유형별	미술관	62.5	(5)
	화랑	25.0	(2)
	대안공간	12.5	(1)

[표 4-57] 시설유형별 문화재단의 지원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000만 원 미만		1,000~5,000만 원 미만	
전체		100.0	(8)	75.0	(6)	25.0	(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5)	80.0	(4)	20.0	(1)
	화랑	100.0	(2)	50.0	(1)	50.0	(1)
	대안공간	100.0	(1)	50.0	(1)	–	

④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건수 및 지원액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상황을 보면 총 13개 시설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11개 시설이 지난 2006년 일 년 동안 1회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액은 1,000~2,000만 원 미만이 69.2%(9개)를 차지하였고, 500~1,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 미만이 각각 15.4%(2개)를 차지하였다.

[표 4-58] 시설유형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1회		2회	
전체		100.0	(13)	84.6	(11)	15.4	(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7)	85.7	(6)	14.3	(1)
	화랑	100.0	(2)	100.0	(2)	-	
	창작스튜디오	100.0	(1)	100.0	(1)	-	
	대안공간	100.0	(3)	66.7	(2)	33.3	(1)

[표 4-5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500~1,000만 원 미만		1,000~2,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 미만	
전체		100.0	(13)	15.4	(2)	69.2	(9)	15.4	(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7)	14.3	(1)	71.4	(5)	14.3	(1)
	화랑	100.0	(2)	50.0	(1)	50.0	(1)	-	
	창작스튜디오	100.0	(1)	-		100.0	(1)	-	
	대안공간	100.0	(3)	-		66.7	(2)	33.3	(1)

2) 민간지원현황

공공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에서 지원되는 대표적인 시각예술시설 지원 사업은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었다. 메세나의 지원을 받은 시각예술시설은 6개로 나타났다. 지원액은 1,000~2,000만 원 미만이 50%(3건), 500~1,000만 원 미만이 33.3%(2건), 2,000~5,000만 원 미만이 16.7%(1건)을 차지하였다. 시설유형별 지원액은 [표 4-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랑이 다른 시각예술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액수를 보였다.

[표 4-60] 시설유형별 메세나의 지원 액수 (단위: %)

구분		응답자		500~1,000만 원 미만		1,000~2,500만 원 미만		2,500~5,000만 원 미만	
전체		100.0	(6)	33.3	(2)	50.0	(3)	16.7	(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2)	100.0	(2)	-		-	
	화랑	100.0	(2)	-		50.0	(1)	50.0	(1)
	대안공간	100.0	(2)	-		100.0	(2)	-	

기업의 지원과 별도로 민간부문의 시각예술 시설 후원의 다른 한 축은 개인후원자에 의한 지원이다. 총 6개 시각예술 시설이 개인후원자에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유형별

로 보면 미술관이 3개, 화랑, 문예회관, 대안공간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33.3%(2개)가 5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후원자의 지원액은 1,000~3,000만 원 미만이 50.0%(3개), 100~500만 원 미만이 33.3%(2개)로 조사되었다.

[표 4-61] 유형별 민간지원 건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100.0 (6)	16.7 (1)	16.7 (1)	16.7 (1)	16.7 (1)	33.3 (2)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3)	33.3 (1)	33.3 (1)	–	–	33.3 (1)
	문예회관	100.0 (1)	–	–	100.0 (1)	–	–
	화랑	100.0 (1)	–	–	–	100.0 (1)	–
	대안공간	100.0 (1)	–	–	–	–	100.0 (1)

3. 지원 정책

1) 지원기금 정보 입수 경로

시각예술시설의 재정 담당자들이나 운영자들이 지원기금에 관한 정보을 입수하는 경로를 조사하는 것은 효과적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지원 정책이 있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홍보나 전달되지 못하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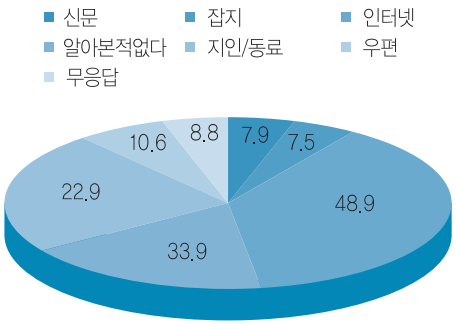
[그림 4-60]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 시설들의 운영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언론과 지면을 통한 비교적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지원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지원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22.9%에 불과해 사적인 통로로 정보 취득은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외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시각예술시설 담당자의 응답이 3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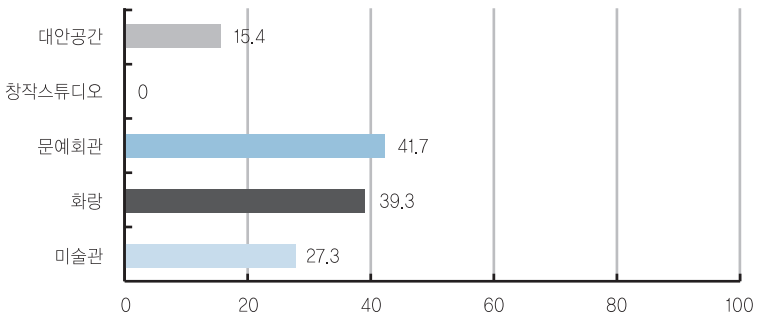
이것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의 27.3%, 화랑 39.3%, 문예회관 41.7% 등 비교적 높은 비율로 알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비교적 재정적으로 영세한 규모를 보이던 창작스튜디오(15.4%)와 대안공간(0%)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60] 지원기금 정보 입수 경로-복수응답 (단위: %)



[그림 4-61] 지원기금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설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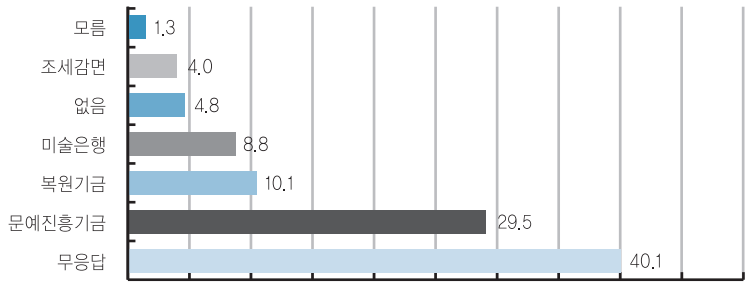


2) 지원정책의 만족도

정부의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미술은행 정책, 세금 감면 혹은 면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들 중에서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만족스러운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 대상 시각예술 시설에 질문하였다. [그림 4-62]에서 볼 수 있듯이 문예진흥기금(29.5%), 복권기금(10.1%), 미술은행

(8.8%)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무응답 비율도 40%에 달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그림 4-62] 만족스러운 지원정책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이런 만족도를 분류해 보면 [표 4-62]과 같이 거의 모든 유형의 시각예술시설에서 무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미술관과 문예회관이 복권기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화랑, 창작스튜디오, 대안공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유형의 성격에 따라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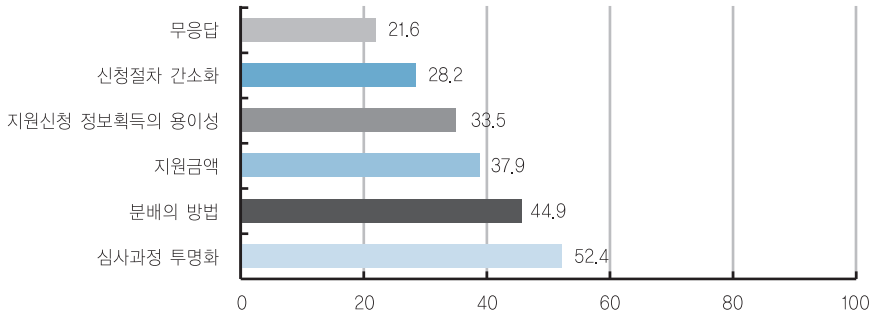
[표 4-62] 유형별 정책 만족도 (단위: %)

구분		응답자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미술은행	조세정책	창작스튜디오	기타	모름	없음	무응답
전체		100.0 (227)	29.5 (67)	10.5 (24)	8.8 (20)	4.0 (9)	0.4 (1)	0.4 (1)	1.3 (3)	4.8 (11)	40.1 (91)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13.6 (6)	22.7 (10)	4.5 (2)	2.3 (1)	–	–	–	6.8 (3)	50.0 (22)
	문예회관	100.0 (24)	8.3 (2)	37.5 (9)	8.3 (2)	–	–	–	–	–	45.8 (11)
	화랑	100.0 (135)	33.3 (45)	3.7 (5)	11.9 (16)	5.9 (8)	–	–	1.5 (2)	5.2 (7)	38.5 (52)
	창작스튜디오	100.0 (11)	54.5 (6)	–	–	–	9.1 (1)	–	–	–	36.4 (4)
	대안공간	100.0 (13)	61.5 (8)	–	–	–	–	7.7 (1)	7.7 (1)	7.7 (1)	15.4 (2)

3) 지원정책의 개선점

지원정책 중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묻는 질문에 심사과정의 투명화(52.4%), 분배의 방법(44.9%), 지원금액(37.9%), 지원신청 정보획득의 용이성(33.5%), 신청절차의 간소화(28.2%) 순으로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림 4-63] 개선되어야 할 지원정책-복수응답 (단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은 심사과정의 투명화(50.0%)를, 문예회관은 분배의 방법(45.8%), 화랑은 심사과정의 투명화(58.5%), 창작스튜디오는 신청정보 획득의 용이성(45.5%), 대안공간은 지원금액(61.5%)을 우선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표 4-63] 유형별 개선되어야 할 정책 요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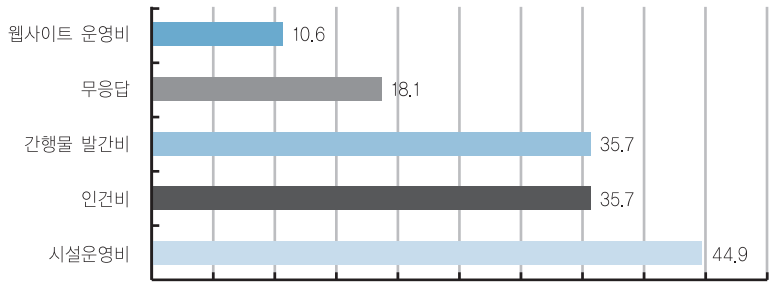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심사과정 투명화	분배의 방법	지원금액	신청정보 획득의 용이성	신청절차 간소화	무응답
전체		100.0 (227)	52.4 (119)	44.9 (102)	37.9 (86)	33.5 (76)	28.2 (64)	21.6 (49)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50.0 (22)	40.9 (18)	40.9 (18)	27.3 (12)	31.8 (14)	25.0 (11)
	문예회관	100.0 (24)	33.3 (8)	45.8 (11)	29.2 (7)	12.5 (3)	29.2 (7)	37.5 (9)
	화랑	100.0 (135)	58.5 (79)	46.7 (63)	37.8 (51)	36.3 (49)	26.7 (36)	20.0 (27)
	창작스튜디오	100.0 (11)	27.3 (3)	36.4 (4)	18.2 (2)	45.5 (5)	27.3 (3)	9.1 (1)
	대안공간	100.0 (13)	53.8 (7)	46.2 (6)	61.5 (8)	53.8 (7)	30.8 (4)	7.7 (1)

4) 지원의 우선순위

본 조사에서는 시각예술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복

으로 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4-64]와 같이 시설운영비(44.9%), 인건비(35.7%). 간행물 발간비(35.7%), 웹사이트 운영비(10.6%) 순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사되었다. 이는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지출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4] 전체 시설의 지원 우선순위-복수응답 (단위: %)



이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랑(45.9%), 문예회관(37.5%), 창작스튜디오(45.5%)는 시설운영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고자 하였으며, 미술관(56.8%)과 대안공간(69.2)은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4] 유형별 지원 우선 순위 (단위: %)

구분		응답자		시설운영비		인건비		간행물발간비		무응답		웹사이트운영비	
전체		100.0	(227)	44.9	(102)	35.7	(81)	35.7	(81)	18.1	(41)	10.6	(24)
시설유형별	미술관	100.0	(44)	40.9	(18)	56.8	(25)	36.4	(16)	20.5	(9)	13.6	(6)
	화랑	100.0	(24)	37.5	(9)	8.3	(2)	12.5	(3)	37.5	(9)	4.2	(1)
	문예회관	100.0	(135)	45.9	(62)	30.4	(41)	40.0	(54)	15.6	(21)	11.9	(16)
	창작스튜디오	100.0	(11)	45.5	(5)	36.4	(4)	-		18.2	(2)	-	
	대안공간	100.0	(13)	61.5	(8)	69.2	(9)	61.5	(8)	-		7.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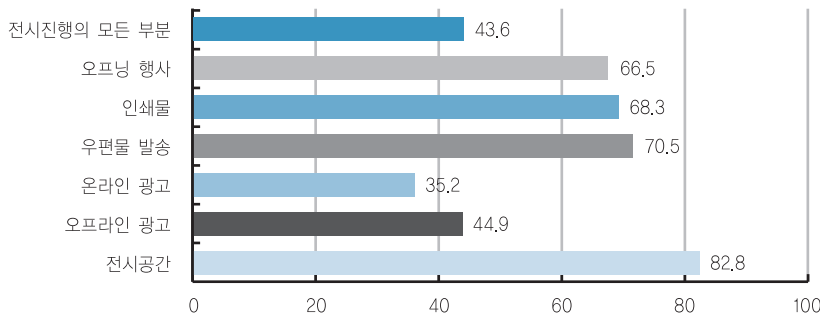
4. 시각예술인 지원

1) 전시활동 시 작가지원 범위

시각예술 시설들이 기획전 및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작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알아보았다. 전시 공간, 유료 오프라인 광고, 유료 온라인 광고, 우편물 발송, 인쇄물(도록, 리플렛), 오프닝 행사, 전시진행 등으로 분류하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전체 시설의 92.5%인 210개 시설이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90%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문예회관의 경우는 66.7%가 응답하였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전체 227개 시설 중 82.8%인 188개 시설이 전시공간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우편물 발송(70.5%), 인쇄물(도록, 리플렛)(68.3%) 순으로 높았다. 한편 유료 오프라인 광고는 44.9%, 전시진행의 모든 부분은 43.6%, 유료 온라인 광고는 가장 낮은 35.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4-65] 기획전 · 공모전 진행시 항목별 작가 지원율-복수응답 (단위: %)



이를 시설 유형별로 보면 모든 시설의 유형에서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유료 온라인 광고를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화랑(91.9%)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안공간(84.6%)이었다. 우편물 발송의 경우는 전체 화랑의 82.2%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창작스튜디오(81.8%)였다. 인쇄물의 경우 대안공간(76.9%), 화랑(76.3%)이 높았으며, 오프닝 행사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81.8%), 화랑(74.1%)이 높았다. 유료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

(63.6%), 화랑(50.4%) 순이었고, 유료 온라인광고의 경우는 창작스튜디오(54.5%), 화랑(3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5] 시설 유형별 기획전 · 공모전 진행시 작가지원 범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자)		전시공간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우편물 발송	인쇄물	오프닝 행사	전시진행의 모든 부분	무응답
전체 (227)		82.8 (188)	44.9 (102)	35.2 (80)	70.5 (160)	68.3 (155)	66.5 (151)	43.6 (99)	7.5 (17)
시설유형별	미술관 (44)	68.2 (30)	43.2 (19)	36.4 (16)	61.4 (27)	59.1 (26)	61.4 (27)	54.5 (24)	9.1 (4)
	문예회관 (24)	58.3 (14)	16.7 (4)	8.3 (2)	29.2 (7)	33.3 (8)	29.2 (7)	20.8 (5)	33.3 (8)
	화랑 (135)	91.9 (124)	50.4 (68)	38.5 (52)	82.2 (111)	76.3 (103)	74.1 (100)	41.5 (56)	3.0 (4)
	창작스튜디오 (11)	81.8 (9)	63.6 (7)	54.5 (6)	81.8 (9)	72.7 (8)	81.8 (9)	63.6 (7)	9.1 (1)
	대안공간 (13)	84.6 (11)	30.8 (4)	30.8 (4)	46.2 (6)	76.9 (10)	61.5 (8)	53.8 7)	-

이상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전시 진행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창작스튜디오가 6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술관(54.5%), 대안공간(53.8%), 화랑(41.5%) 순이었다. 한편 문예회관은 20.8%만이 전시 진행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5

제5장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분석







제5장 시각예술 시설의 실태분석

미술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미술계 내부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대중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미술의 활동 기반이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시각예술 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건립에 치중한 것에 비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사업이나 진단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 시설의 운영 주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 진단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의 전시 관련 공간들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시설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는 난해하다. 우선 관련 시설들의 유형이 무척 다양해 그 범위를 정확히 규정지을 수 없음이 가장 큰 이유이며, 더군다나 제도권 밖에 있는 전시공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술 전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규정된 전시 공간인 갤러리나 화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일반 상업시설에서 전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시각예술 시설들을 하나의 지형도에 속에서 그 시설의 설립주체나 운영 성격에 따라 1) 문화기반시설, 2) 상업시설, 3) 대안시설, 4)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의 범위를 규정지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지은 시설들의 실태를 다시 1) 일반현황, 2) 활동현황, 3) 운영현황, 4) 지원현황으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시각예술 시설의 운영과 활용에 대한 현황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제1절 시각예술 시설의 유형별 실태분석

1. 문화기반시설

1) 미술관

설문 대상 기관 44개관의 43.2%가 2002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보아, 정부의 미술관 건립지원 정책에 힘입어 2002년 이후 미술관의 설립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기관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서울지역 38.6%, 경기지역 22.7% 등 수도권역에 절반이 넘는 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방의 미술관 건립률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발전과 미술대중화를 선도하고 미술문화 인구저변확대로 문화선진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새 예술정책에 의한 1시도 1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방미술관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미술문화의 지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대전에서는 2007년 5월 이응노미술관이 개관하였고,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경기도미술관을 건립하여 2006년 개관하였으며,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이천시의 월전미술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현대미술관 등이 2007년 새로이 개관되었다. 그밖에도 대구에서 대구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으며, 양주시는 천경자미술관 건립을, 여주에서는 권진규미술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어린이 프로그램, 공공문화 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63.6%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공문화 프로젝트의 진행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34.1%만이 응답했다. 문화소외계층프로그램은 45.5%로 조사되었다. 미술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중에게 개방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교재 · 공간 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미술관 1관 당 평균 유급 상근직원은 9.2명으로 유형별 시설로 구분한 응답기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5명 이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미술관의 수치가 61.6%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학예직과 전문직의 부족이 심각한 현상이었는데 기획전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예연구원이 없

는 기관이 44개 관중 11관이었으며, 13관만이 테크니션을 채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술관의 연구기능과 전시기능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미술관들은 재정적인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미술관 전문 인력 교육의 일환으로 연간 3.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상근직원으로 채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채용한 경우는 42.9%에 그쳤다.

56.8%의 미술관이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인적 · 물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건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종류별로 구분 시 비법인 사설과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는 미술관이 본 연구에 의하면 43.1%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립미술관의 경우 직접적인 국고의 지원 없이 세제감면 지원 등의 간접 지원이 있을 뿐 사립미술관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의 사립미술관 지원은 더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전시기획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설의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시설의 보완이나 수리, 정비, 관리,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시실과 수장고의 항온 · 항습 시설이 없어 작품보존을 위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2) 문예회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103개관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지만, 겨우 24개(10.2%)의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그쳤다.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으로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는 도중 전시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없어 답변이 불가능하다거나, 전시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답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24개의 문예회관으로부터 도출된 답변 속에서도 문예회관의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전문 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개의 문예회관 중 학예연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고작 3개관이며, 학예연구원은 응답기관 평균 1명을 채용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테크니션이 있는 곳은 4개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예회관의 전체 유급 상근직원의 수가 평균 8.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 · 행정직원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는 연평균 2억 9천 8백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유형별 시설의 인건비 지출액 중 가장 큰 액수이다.

문예회관을 제외한 타 시설에서는 기획초대전과 작가지원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문예회관은 79.2%가 대관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연간 기획전시 개최수는 평균 수치 중 가장 낮은 평균 4.1회이며, 이와는 반대로 대관전시의 수치가 23.1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각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시공간을 대관해주는 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타 단체와의 교류에 대해 58.3%가 지난 1년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있다 하더라도 평균 1.5회에 그쳤다.

문예회관의 지리적 활동 범위는 주로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중소도시 또는 군 전역이었다. 문예회관은, 문화의 중앙편중화로 인한 문화 향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문화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인 문예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부재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문화예산의 상당부분을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 예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2. 상업시설

1) 화랑

김달진미술연구소에 의하면 국내의 시각예술 시설 가운데 60%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화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화랑의 수는 전체 응답기관 235개 중 135곳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응답기관 135곳 중 절반이 넘는 52.6%가 2000년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전시공간들은 상업적 이윤과 영리가 목적인 공간들이다.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업공간들의 문제점은 다수가 서울이나 인근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갤러리 혹은 화랑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직접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업시설임에

도 불구하고 대다수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랑이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2006년 한 해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은 화랑은 15.6%에 불과하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시 및 활동 지원이 대부분인 간접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개선되어야 할 지원 정책은 심사과정의 투명화(58.5%)를 우선으로 꼽았고, 분배의 방법(46.7%) 지원금액(37.8%) 순으로 응답했다.

화랑은 기존의 미술시장을 통해 상품가치가 인정되는 작가들을 주로 취급하며 철저한 상업주의 원리 하에 움직여지기도 하지만, 보다 수월한 관객과의 접근성으로 화랑의 취향에 부합하는 전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검증해 시장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시공간이 증가해도 몇몇 메이저 화랑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신규 화랑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작가발굴을 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만큼 작가나 작품층은 얇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시공간의 건립과 개관만이 최우선적인 과제인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이다. 무조건식의 확충보다 운영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보완 또한 시급하다.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부족한 전시공간이기 보다는 이를 운용할만한 전문 인력의 부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유급 상근직원은 평균 3.5명으로, 그 중 학예연구원이 1.9명, 테크니션 1.7명, 관리인 1.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랑의 92.6%가 기획초대전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어린이 프로그램 17.8%, 공공문화 프로젝트 12.6%,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8.9%로 답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주로 화랑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대안시설

1) 대안공간

본 연구에 의하면 2002년 이후 69.2%의 대안공간이 새로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2월 대안공간 루프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안공간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성격으로 구분해보자면 법인체(사단, 재단, 특수법인 등) 성격을 띠고 있는 대안공간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23.1%), 비영리사설인 경우도 23.1% 간혹 있어 영리성을 띤 대안공간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안공간이란, 전통적인 미술관과 상업 화랑으로 대표되는 미술제도, 곧 국가 권력과 상업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간으로 주류미술의 보수성을 넘어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미술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설이다. 이를 기초로 미술관이나 상업화랑에서 쉽게 고갈되곤 하는 작가적 상상력과 도발적 작품의 생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안공간이 존재하는 의미이다.[29]

대안공간은 시설 유형중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공간은 주로 작가지원(92.3%)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적극적인 작가지원을 통해 작가가 단독으로 전시장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작가주의적 성향의 전시관행을 정착시키기를 주도하고 있어 신진작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전시 공간 104.7㎡(31.7평), 근무 공간 40.6㎡(12.3평), 수장고 및 창고 47.2㎡(14.3평)으로 함께 조사한 상업 화랑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였으며, 항온 · 항습 시설이 설치된 창고 및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대안공간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안공간의 연간 기획전시 개최 횟수가 평균 9.1회로 가장 높았으며, 대관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 외 다른 행사(세미나, 워크샵 외) 개최 건수도 평균 9.4회로 활발하였다.

인력 상황 역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예연구원이 있는 시설은 응답기관 13개관 중 5곳에 그쳤으며, 평균 유급 상근직원은 2.2명이었다. 테크니션은 단 한 관에서만 채용 중 이

29) 백지숙, 『미술세계』, 2004.02

었고, 관리인은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6.2%가 3개월 이상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3.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직원 채용을 위한 가능성을 염두 해 둔 곳은 50.0%, 인턴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6.7%에 그쳤다.

대안공간은 불안정한 운영에서 비롯되는 장기적인 전망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금을 적극 유치하여 61.5%가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에 지원 금액을 꼽고 있어 소액다건 지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창작스튜디오

227개의 응답시설 중 창작스튜디오는 4.8%(11개관)로 현재 창작스튜디오는 국가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 · 운영되거나, 쌈지스튜디오나 경안창작스튜디오처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어 대안공간적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미술관 부설시설로 운영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관객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로 응답기관의 45.5%가 자체 기획전시 및 행사를 위해 국내 · 외의 다른 시설을 활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학습체험장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어린이 프로그램, 공공문화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모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창작스튜디오는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제작된 작품을 발표하는 창작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지만, 현재에는 개방적 · 적극적 개념의 창작스튜디오를 확충하여 예술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다른 작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 단체와의 교류가 72.7%로 유형별 시설 중 가장 높은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전시회 형태의 교류(87.5%)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작가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매년 눈에 띄게 치솟는 선발 경쟁률이 반영하듯 수상의 개념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응답기관 다수가 시설운영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할 경우에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시설 보수비용이나

관리, 운영비에 대한 외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프로그램과 지원조건의 다양성, 운영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제2절 시각예술 시설의 현황별 실태분석

1. 일반현황에 관한 분석

1) 전시공간의 증가

현재 국내에서 미술 전시를 주요 테마로 삼고 운영되고 있는 공간 중 등록시설은 약 6백여 곳, 미등록시설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에 약 1천여 곳에 육박하는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30] 이러한 공간들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내의 미술 공간 가운데 약 60%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갤러리(화랑)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 상반기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조사한 지난 3년간의 미술 전시공간의 증가 추이는 서울에서 2004년 49곳, 2005년 51곳, 2006년 63곳이고, 2007년 상반기에만 37곳으로 총 200곳이 새롭게 개관을 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1]

본 연구에서도 역시 각 시설의 설립연도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응답 화랑 133곳 중 52.6%에 달하는 화랑이 2000~2006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작스튜디오는 모두 2002년도 이후 설립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문화기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미술관과 문예회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화부가 1999년부터 1시도 1미술관 사업을 통해 지역 미술관 건립비용의 30%를 국고 보조하여 공립미술관의 설립을 독려하는 정책은 현재까지 공공미술관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박물관 · 미술관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시설확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박물관 · 미술관의 수를 인구 9만 명 당 1개에 해당하는 500개관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0) 박준헌, 『전시공간 비평 – 무조건 확충보다 운영시스템 · 전문인력 보완 시급』, 『교수신문』, 2007.7.23
31) 김달진, 『전시공간의 변화』, 서울아트가이드 2005년 1월호 p. 58, 2006년 1월호 p. 37, 2007년 1월호 p. 40

[표 5-1] 시설유형별 시설 설립연도 (단위: %)

구분	미술관	문예회관	화랑	창작스튜디오	대안공간
2000년도 이전	52.2	58.3	47.4	18.2	15.4
2000	2.3	-	3.0	-	15.4
2001	2.3	4.2	4.5	-	-
2002	11.4	16.7	6.0	36.4	7.7
2003	11.4	-	5.3	9.1	15.4
2004	15.9	4.2	7.5	18.2	15.4
2005	4.5	8.3	14.3	9.1	15.4
2006	-	8.3	12.0	9.1	15.4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전시 공간 가운데 각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미술관과 문예회관과 같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업전시 공간들 역시 미술시장의 활황으로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반 설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대안공간도 전시 공간의 급격한 증가율에 힘을 더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미술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된 전시 공간인 갤러리나 화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일반 상업시설에서 전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업시설 또한 그 홍보와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물론 양적 규모에서 파생되는 이점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인프라의 문제는 단순히 수의 문제로 접근될 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 전문 인력의 활발한 수급, 자원의 조달, 정책적 영향력 등 무형의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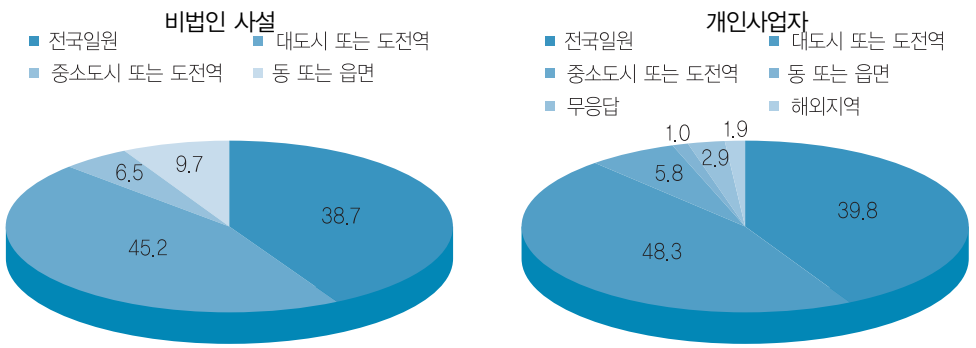
2) 지역별 편중

시각예술 시설이 활동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는 시설의 활동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각 시설의 지역에 대한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시설 235개 중 서울에 위치한 시설이 131개(55.7%)의 비율을 보이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4개 처로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울산과 강원도에는 조사요건을 갖춘 화랑이 한 개 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의 지역 역시 경기(9.7%), 대구(6.6%), 충청(5.3%) 등의 순으로 전부 10% 미만이었다.

국내 시각예술시설의 55.7%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각 설문의 응답률에서 서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전제하고라도 활동범위, 지원 수혜율 등 주요 항목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시각예술 관련 시설의 활동범위는 전국단위(41.0%)나 대도시/도(40.1%)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별도의 지원이 없이 자체 예산으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활동영역이 편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문화예술시설은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러한 편중현상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립기관보다는 주로 설립 장소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립 미술관과 화랑 등에 의해 가중된다.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위주로 시설이 확충되고 프로그램이 공급됨으로써, 대도시와 지역 주민과의 문화향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행사의 서울 편중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80%를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32] 문화의 수도권 집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림 5-1] 법적 종류별 시설의 지리적 활동범위 (단위: %)



그나마 문예회관의 경우 중소도시/군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시설이 54.2%로 지방자치단체의 유력한 문화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활동의 범위가 협소하여 양질의 시각예술 전시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우수한 작품들을 일반인들과 함께 향유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시각예술인들을 대도시로 옮겨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32) 박준헌, 『전시공간 비평 – 무조건 확충보다 운영시스템 · 전문인력 보완 시급』, 『교수신문』, 2007.7.23

문화예술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번성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수요에 부응하던 차원이건, 아니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건 간에 수요를 고려한 건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없는 지역에 세운다는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건립 철학을 뒷받침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며, 시설의 건립 · 운영 · 프로그램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렴되어야 한다.

[표 5-2] 전시공간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체	55.7	3.0	1.3	2.1	6.8	3.8	0.4	1.7	9.8	5.1	3.0	4.7	1.7
미술관	38.6	2.3	–	4.5	–	2.3	–	4.5	22.7	4.5	2.3	9.1	6.8
화랑	71.9	3.0	0.7	1.5	9.6	2.2	–	–	5.9	1.5	0.7	1.5	0.7
문예회관	8.3	–	4.2	4.2	4.2	8.3	–	8.3	8.3	29.2	8.3	16.7	–
창작스튜디오	18.2	–	–	–	–	27.3	–	–	9.1	9.1	27.3	9.1	–
대안공간	61.5	15.4	7.7	–	7.7	–	–	–	7.7	–	–	–	–
기타	66.7	–	–	–	16.7	–	–	–	16.7	–	–	–	–
무응답	100.0	–	–	–	–	–	–	–	–	–	–	–	–

2. 활동현황에 관한 분석

1) 전시 및 프로그램

설문 문항 중 시각예술 시설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는 시각예술 시설의 중점적 활동은 각 시설의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드러나는 성과의 척도이며, 재정적 지출 혹은 수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각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65.7%가 '예산부족'을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기관의 60%이상이 최근 1년 내 시각예술 관련 프로그램(어린이 프로그램, 공공문화 프로젝트, 문화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 활동과 관련하여 기획 초대전 · 전시 대관 · 작가 지원 · 국내외 교류 · 기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는 기획 초대전을 선택한 시설이 전체의 81.1%로 가

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작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 34.8%였으며, 전시 대관이 32.2%, 국내외 교류가 31.3%, 기타 활동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많은 수의 시각예술 시설이 직접적인 수익 활동이나 공공지원, 교류 활동에 비해 각 시설 고유의 전시를 기획하는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운영현황에 관한 분석

1) 재정 현황

각 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설립취지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대관 위주의 전시만이 행해지며 이는 결국 시각예술의 진흥에 있어 대도시 위주의 편중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 · 공공문화 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경우 응답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102개의 시설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이 중 가장 많은 65.7% 시설이 예산부족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홍보의 어려움을 선택한 시설이 43.1%,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32.4% 순이었다. 재정의 어려움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상설전만 열거나 교육 등 운영프로그램이 전무한 미술관도 상당수 드러났다.

국공립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자체 운영수입만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전시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관 전시 위주로 이어진다. 역설적으로는 사설전시 공간들은 상업적 이윤과 영리가 주목적인 공간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공간들이 주로 수용하는 작품들은 이미 시장성이 검증되는 작가들의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한국 시각예술 시설들이 시설 유지 관리비 지출 면에서 양 극단이 두드러진 일종의 양극화 현상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인건비의 지출을 살펴보면 연간 최하 650,000원부터 최고 97,618,000원 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몇몇 메이져 공간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작가들을 발굴하고 검증해 시장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고 그만큼 작가나 작품층은 얇아 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소장품 구입예산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설립취지를 망각한 단조로운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각 시설 스스로 재원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앙정부는 물

론 지역자치단체의 공 · 사립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2) 인력 현황

공익적 목적을 갖는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전시 공간은 설립도 힘들지만 운영은 더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가 박물관, 미술관 혹은 여타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시 전시 문화는 공간과 시설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시설의 양적확장이 가속화되면서 가까운 장래에 지방에도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기획 · 입안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시설수의 증가가 곧 각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전시공간이기보다는 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아울러 이를 운용할 만한 전문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시각예술 시설의 유급 상근 직원 인력은 1~5명 수준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7.4%로 지배적이다. 유급상근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227개의 시설 중 13.2%였다. 전시시설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연구원의 수는 화랑의 경우 57.1%가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술관의 경우에도 1명의 학예연구원을 두고 있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국내 시각예술 시설의 연평균 인건비 총액은 1,000~3,000만 원이 36.1%로 가장 많고, 1억 원 이상이 20.8%로 나타나 인건비 규모면에서 특정한 규모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안공간의 경우는 500~1,000만 원 이하가 50%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악순환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

학예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전문 인력을 홀대하는 열악한 고용 · 근무 환경은 문화예술시설의 활성화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전시 및 미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어져 지방 문예회관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이 시각예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차원의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시설 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 향후 지역 박물관 · 미술관 정책의 새로운 중심영역이 되어야 한다.

4. 지원 실태에 관한 분석

투입되는 자원 없이 산출물의 우수성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있어 근본적인 요건인데, 이 역시 단순히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문화기반시설을 설립한 후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폐관에 가까운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난다. 문화예술 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인 항구성은 차치하더라도 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존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45.1%가 재정지원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운영 상태는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전체 227개 시설 중 71개에 해당하는 31.3%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44개 시설에 해당하는 63.4%는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적 종류별로 보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외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개 시설 중 14개에 해당하는 14%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다른 기관들보다 현저히 낮게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시각예술시설 지원 정책의 실태

문화는 삶의 질이자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핵심적 요소다. 동시에 문화는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정보사회의 토대로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창의한국'으로 설정했다. 지난 2006년은 창의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영역이나 인간과 문화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시책 등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문화 활동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문화교류 추진 등은 이와 같은 문화 정책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문화기반시설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립 운영된 조직이다. 비영리 문화기반시설의 활동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설립 취지의 달성과 공익을 위한 질 높은 문화서비스에 있다. 문화예술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은 제품의 표준화나 생산공정의 표준화가 불가능한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분야와 달리 돈이 아닌 예술적 가치의 달성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적자 경영이 지속되면서 점차 열악한 예술서비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다수의 미술관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박물관 · 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경제학적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산물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누군가 그 편익을 누리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동시에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성질의 산물이다. 또한 문화예술 산물은 개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성격을 가지나, 이 개별 수용자의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익적 외부효과를 수반한다. 한편 문화예술지원 정책으로 모든 인프라와 보조금을 완벽히 공급한다 해도 취향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교육을 통한 수요의 개발이 없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은 존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의 결여를 해소하는 정책은 정부지원의 근거가 된다. 또한 정부는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접근의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예술산물은 공공재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와 문화예술산물에 필요한 교육, 국민에게의 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설치를 통해 문화예술공간설치, 문화예술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도 정부의 주요 시각예술정책으로는 ① 미술은행제도 운영, ② 공공미술의 도입, ③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감정인력 육성 지원 사업, ④ 광주 · 부산 비엔날레 등 국제미술행사 육성, ⑤ 한국국제아트페어 · 국제 아트페어 참가 지원 등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공공미술의 도입으로 인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이 강화되었고, 공공미술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도시문화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감정제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미술창작 활성화 및 건전한 미술유통시장 구조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추진, 미술은행 활성화 등 예술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본 절에서는 그간 시행되어온 문화정책 중 시각예술 시설에 관한 지원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시각예술 시설을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시설의 사업목적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1. 비영리시설 지원정책

1) 건립지원

정부는 『2006 문화정책백서』에서 문화 분야의 5년 후 미래상을 밝히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박물관은 350개에서 2010년 561개관으로, 문예회관 150개관에서 180개관으로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 박물관 1관 당 인구수를 2006년 현재 13만 명에서 2010년에는 8만 명으로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현재 미술관 인프라 형성은 미흡하다 하겠지만 앞으로의 건립에 대한 미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오히려 컨텐츠가 없는 무분별한 건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1] 박물관 1관 당 인구 수 (2004.12.31)[33]

국가	인구수(백만 명)	박물관수(관)	1관당 인구 수(만 명)
미국	280	4,609	5.9
프랑스	60	1,300	4.5
캐나다	31	1,352	2.2
일본	130	3,492	3.7
독일	82	4,034	2.0
폴란드	39	551	7.0
한국	48	339	14.2

(1) 미술관

정부는 1999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미술관 건립을 지원하여 최근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까지 '1시도 1미술관 건립'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 김성희, 『갤러리 브랜드와 만족 패러다임 중심으로 본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또한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 온 박물관 · 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사립박물관 ·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시 · 도지사는 박물관 · 미술관의 등록 · 등록 취소, 사립박물관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34]

현재 미술관 건립시 국고의 지원은 그 주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국 · 공 · 사립미술관의 건립시 국립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공립미술관은 건립금의 30%가 지원된다. 사립미술관은 직접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세제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의 간접지원만 이뤄진다.

[표 6-2]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정책 현황[35]

지원형태	국립	공립	사립
건립	직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전액 국고지원	–건립지원의 30% 지원	– 설립계획승인에 따른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 부담금 면제, 세제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

[표 6-3] 공립미술관 건립 국가지원 현황[36]

(단위 :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고지원	64	32	53	41	51

사립미술관에 대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7가지를 들 수 있는데,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②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도로의 점유 허용, ③ 전용상수도의 인가, ④ 공용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⑥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보안림의 해제,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⑦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34) 박현숙, 『지역 박물관 ·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3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05
오희영, 『미술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 수립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36) 문화관광부, 『박물관운용실태조사, 미술관운용실태조사』

⑵ 문예회관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확대,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 자치단체 당 1관 수준의 248개 지방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7년에 79개관에서 2005년 150개관로 증가하였고 개소당 20억원 이내로 건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⑶ 창작스튜디오

국가에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설립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건립예산이 30억 원(부지매입비 23억 원 포함), 2004년 설립된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는 32억 원(부지매입비 10억 원 포함)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시설로는 스튜디오 외에 전시실, 사무실, 옥외 작업장, 식당, 샤워장,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작업 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어 입주작가들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창동 · 고양 미술창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비 전액인 5억 5천만 원이, 2005년도 운영사업비 전액인 10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총 공사비 14억 원을 들여 2006년 4월에 개관했다. 연면적 257평에 지상 2층 건물로 총 17실의 스튜디오와 사무실, 세탁실, 휴게실, 야외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진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팔각정미술창작스튜디오는 건평 297.5㎡(90평)에 49.5㎡(15평)의 원룸 작업실 6실을 작가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운영비 등 기본적인 관리비는 시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2007년 3월 국비 10억과 시비 32억, 총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했다. 개인작업실 15개와 전시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청주 시내 거주자 10명과 타 지역 거주자 5명 등이 입주해 있다.

2) 운영지원

⑴ 미술관

박물관 ·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

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등록박물관의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가. 법적지원

① 세제감면

- 등록박물관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 등록박물관 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제
- 박물관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처리
- 등록박물관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 3년 이상 운영한 등록박물관이 박물관 운영을 목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 면제
- 등록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경우 전액 손비처리

② 공공요금 할인

- 등록박물관에 대해 교육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전기료를 50% 할인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휴공간 무상임대 가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⑤ 국영수송기관에 박물관 자료의 수송을 맡길 경우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물관 자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양여, 위탁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물관 자료를 위탁 받은 경우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가능

⑦ 입장료,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편의 시설을 운영

하지만 위의 운영에 관한 지원은 당 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면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인력지원

2004년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으로 전문직이 없는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중 1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직 채용 시 50% (1인당 100만 원 이내) 경비지원이 이루어 졌다.

한편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4 청년인턴사원채용제'가 실시되었다. 박물관 관련 전공자 40명을 채용,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전공자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인턴제의 취지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들의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와 함께 사립미술관의 운영을 돕는 측면에서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획된 단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월 60만 원씩 6개월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시행은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와 한국화랑협회 두 곳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다.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 및 한국화랑협회를 통하여 교부된 지원 총액은 2억 2천 9백만 원이었으며, 참여인원은 95명, 미술관 규모에 따라 1~2인의 인턴이 배정되었다. 2005년에도 청년인턴사업은 계속되었으나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는 제외되었다.

[표 6-4] 2004년 미술분야 청년인턴사업(7월~12월)[37]

(단위: 만 원)

보조 사업자	교부액				집행액	잔액
	3/4분기	4/4분기	추가	계		
한국화랑협회 (25명)	2,700	2,700	1,200	6,600	6,600	0
자립형미술관 네트워크 (70명)	6,300	5,960	4,200	16,460	16,300	160
계	9,000	8,660	5,400	23,060	22,900	160

3) 활동지원

(1) 박물관 · 미술관 특별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립박물관 · 미술관은 개인의 재산을 공공적인 성격으로 전환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으로 설립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이 거의 전무한 편이고, 현재까지의 지원이 국공립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대부분 사재를 털어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른 시설과 인력 확충의 어

37) 오희영, 『미술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 수립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중요한 소장 자료가 사장되고 박물관 ·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상설전시 외에 교체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다.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산하 통합복권기금운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 제20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수익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 장애인 및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문화 ·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사용되게 되었다.

이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박물관 · 미술관에 특별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3천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 기획전시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었다. 집행은 한국박물관협회 등을 통한 지원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이 교부되었다.

[표 6-5]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특별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38]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지원액	3,600	3,340	3,000

복권기금의 지원은 특별전시, 상설기획전시, 사회교육프로그램, 도록발간, 수장고 보강 등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각 관의 자체 시설공사, 전시물품취득 등 자산 형성적 지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2005년도 지원사업의 1관 당 최대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표 6-6] 2004년도 사립미술관 복권기금 지원사업별 현황[39]

구분	특별기획 전시	상설기획 전시보강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록발간	사이버 전시	수장고 보강	합계
건	64건	20건	6건	36건	26건	22건	174건
비율	36.8%	11.5%	3.4%	20.7%	14.9%	12.6%	100%

38)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 「자립형미술관 지원정책 및 재원조성 방안 연구」, 2004, p.72 재구성
오희영, 『미술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 수립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39)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www.museumlottery.org/project04.htm)

[표 6-7] 2005년도 사립미술관 복권기금 세부지원 내역[40)]

(단위 : 천 원)

구분	특별기획 전시	상설기획 전시보강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록발간	사이버 전시	수장고 보강	시범지원 사업	기타	합계
금액	930,000	257,600	87,600	530,000	366,900	186,350	901,650	79,900	3,340,000
비율	27.8%	7.7%	2.6%	15.8%	11.0%	5.6%	27.0%	2.5%	100%

2006년도에는 복권기금 사업의 목적에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의 목적이었던 열악한 사립박물관 · 미술관지원에서 '사립박물관 · 미술관지원을 통한(거점으로 한) 소외계층지원' 으로 방향성이 변경되어 2004년, 2005년 지원된 7개 사업 분야에서 도록발간지원과 수장고 보강지원은 제외되고 일부사업은 통합되어 2개 지원사업 분야(4개 세부지원항목)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배경에는 한정적인 재원 속에서 수혜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가 지원기관의 운영간접비용으로 사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영리시설 지원정책

미술품을 시장 경제학적인 안목으로 보면 미술품 또한 일종의 상품으로서 넓은 의미의 시장에서 거래되며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술품을 구매하고 생산자인 예술가 또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미술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영리시설에서 다뤄지는 미술품 역시 문화예술산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경제학적인 논리로 따질 수는 없다. 미술시장에서의 투명한 거래를 통해 형성된 미술품의 가치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를 수반한다.

영리시설에 대한 건립 및 운영 지원은 현재 문화정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건립과 운영의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자산 형성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및 국제미술행사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1)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2006년 1월 미술품 감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미술품 감정인력 육성 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사업의 수행기구인

40) 오희영, 『미술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 수립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에서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 그리고 한국고미술협회와 공동으로 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현행 미술품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술시장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미술시장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

2) 국제미술행사 육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는 1995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와, 2000년에 시작된 부산비엔날레가 대표적이며 경비의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

2006년 개최된 제2회 금강국제자연비엔날레, 제1회 대구사진비엔날레에도 각 2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에도 3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6-8] 광주비엔날레 추진현황[41]

구분	제1회 (1995년)	제2회 (1997년)	제3회 (2000년)	제4회 (2002년)	제5회 (2004년)	제6회 (2006년)
기간	9.20-11.20	9.1-11.27	3.29-6.7	3.29-6.29	9.10-11.13	9.8-11.11
참여국 작가	58개국 117명	39개국 260명	46개국 245명	33개국 326명	39개국 104명	32개국 127명
관람인원	165만 명	90만 명	61만 명	56만 명	98만 명	70만 명
주제	경계를 넘어	지구의 여백	人+間	멈춤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열풍변주곡
행사경비	63억 원	80억 원	84억 원	63억 원	100억 원	101억 원

[표 6-9] 부산비엔날레 추진현황[42]

구분	제1회 (2000년)	제2회 (2002년)	제3회 (2004년)	제4회 (2006년)
기간	10.2-11.27	9.15-11.17	5.22-10.31	9.16-11.25
참여국 작가	37개국 344명	40개국 227명	40개국 203명	39개국 314명
관람인원	60만 명	170만 명	134만 명	125만 명
주제	波-함께하는 삶	문화에서 문화로	틈(Chasm, 隙)	어디서나
행사경비	14억(국고 0원)	50억(국고 5억)	33억(국고 10억)	40억(국고 13억)

41)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p.406
42)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p.407

3)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문화관광부는 국제아트페어가 각국 미술의 홍보와 교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2002년부터 한국미술의 세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미술행정으로 국제아트페어에 참여화랑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아트페어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화랑의 경영난을 뒷받침하여 작가의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미술품 유통업체인 화랑의 균형적 성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데 의의를 둔 정책이다. 특히 미술은행 제도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작품 구매와 더불어 화랑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다.

(1) 국제아트페어 참가 지원

1999년부터 해외 유명아트페어 참가화랑들의 경비를 (사)한국화랑협회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17개 아트페어에 국내 37개 화랑이 참여하였다. 주요 참가 아트페어는 Art Basel, Art Basel Miami, The Amory Show, ARCO, Frieze Art Fair 등 세계 4대 아트페어 외에 Art Cologne, FIAC, Art Chicago 등에 참가하였다.

[표 6-10]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43]

연도	국고지원	참가아트페어	참가화랑	판매실적	
				작품수(점)	금액(백만 원)
1999	2억	5	12	125	958
2000	2억	9	12	97	897
2001	2억	8	12	94	876
2002	2억	8	11	419	1,495
2003	2억	14	29	375	1,945
2004	2억	17	42	472	2,014
2005	2억	11	29	330	2,230
2006	1억 5천	17	37	400	3,500

(2)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지원

(사)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창설한 한국국제아트페어는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적인 교류와

43)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p.408

국내 미술의 해외시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지원된 금액은 3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아트페어 장소 사용료로 사용되며 기타 행사비용은 KIAF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6-11] 한국국제아트페어 추진현황[44]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간	9.3-9.8	6.24-6.29	6.22-6.27	5.24-5.29	5.26-5.30	5.9-5.13
장소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코엑스 인도양홀	코엑스 인도양홀	코엑스 인도양홀	코엑스 태평양홀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참가국	30개국	30개국	13개국	11개국	13개국	18개국
참가화랑(해외)	97(20)	107(30)	123(40)	126(40)	150(51)	208(92)
참가작가	327	340	600	499	653	1,300
국고지원	1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44)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p.407

제2절 취약부분 정책적 보완 방법

국내의 시각예술 관련 시설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 이유로는 우선 관련 시설들의 유형이 무척 다양해 그 범위를 정확히 규정지을 수 없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 시각예술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은 그 목적에 따라 무척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지형도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그 뼈대를 세우고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섬세한 시선을 요구한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국내의 시각예술 시설들을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그 시설의 설립 주체나 운영 성격에 따라 크게 1) 문화기반시설, 2) 상업시설, 3) 대안시설, 4) 기타시설로 분류하였으며, 그 시설들의 실태를 다시 1) 일반현황, 2) 활동현황, 3) 운영현황, 4) 지원현황으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사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이 제일 먼저 봉착했던 문제는 바로 국내의 시각예술 관련 시설들의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였다. 그만큼 시각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이 다양한 형태로 설립 ·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텐데, 이는 우리가 시각예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시각예술의 주 포커스가 일반 대중을 지향하는 영화나 애니매이션, 그래픽 등 2차 성과물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그 범위를 규정하기가 더욱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경계가 와해되고, 대중예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예술 장르가 혼재한 현 상황에서는 도무지 그 얽힌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결국, 시각예술 시설은 크게 시각예술이라는 장르적 속성을 수용하는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파악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시각예술의 범주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반영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점일 것이며, 필요에 따라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각예술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추후 연구가 다시 한 번 그 범위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각예술 관련 시설은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및 여가생활, 그리고 최근에는 미술품을 활용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까지 맞물려 갈수록 그 수요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시각예술 시설 가운데 특이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박물관, 미술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법률 제6904호, 2003.

5. 29 공포)된 것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총사업비의 약 30% 범위 내에서 공립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건립비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공립 시각예술 관련 시설의 건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자체는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증진과 욕구충족'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서로의 적절한 정치적 협력과 이해 속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시설의 건립과 개관만이 최우선적인 과제인지는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이다. 유네스코의 권장기준이나 선진 G7 국가의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에 비하면 아직도 그 시설이나 수적인 면에서는 1/3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많은 관련 시설들이 개관하면서 가져오는 폐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우선 건립하고 보자는 현재의 분위기는 종종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들로 악용되기도 하며, 아울러 전시를 위한 기초적인 컨텐츠는 고려하지 않고 건물 같은 외적인 하드웨어 부분이나 포장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막대한 건축비 뒤에는 그에 따른 운영 및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시, 군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들은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45] 이처럼 공익적 목적을 갖는 각종 문화기반시설이 정부지원이라는 달콤함에 현혹되어 설립에만 힘을 기울였지, 그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서 막대한 유지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아울러 자생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대다수의 시설들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 제공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대관이나 협찬 등의 마케팅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익 문화기반시설들은 공중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시설이라는 미명아래 다른 시각예술 시설들에 비해 국고나 지자체의 지원이 그나마 용이하고 수혜 형태도 다양하다. 그만큼 문화기반시설들은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지역민에 대한 직접적인 문화적 수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함은 물론 보다 철저한 평가 및 감사를 통해 기금과 세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최근 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는 2010년까지 1시도 1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문화향수 및 국가의 문화경쟁

45) 박준헌, 「전시공간 비평 – 무조건 확충보다 운영시스템 · 전문인력 보완 시급」, 『교수신문』, 2007. 7. 23

력 제고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및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으면서 국내의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시각예술 시설들의 법적 · 제도적 지원은 이미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춰가고 있으며,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내 문화기반시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맞물려 외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그에 따른 외적인 요건들도 많이 확충되었다. 국내 시각예술 관련 문화기반시설이 지난 10년의 기간이 설립과 운영에 집중한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10년은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확보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시각문화와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설립은 국립은 건립 및 운영 전반을 국고가 지원하지만 공립일 경우에는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30%만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공립의 경우 문화기반시설이 건립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소장품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도 기부체납이나 매입을 통한 방식으로 소장품을 취득하고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문제점 등으로 질 좋은 소장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의 시각예술 관련 문화기반시설들의 경우 소장품의 폭이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 또한 유명세를 위주로 한 작가들의 작품들이어서 비용은 물론 취득도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존에 가졌던 시각예술의 한정된 폭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시각문화와 연관된 예술품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공립 미술관들이 그 지역 출신의 유명 작가들을 흡수하거나 그들의 기념관 형식에 그쳤다면 조금 더 나아가 지역적 특수성과 연계된 시각문화를 개발하는 원동이 될 수 있는 예술 장르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기초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으로는 특정 영역에 관심을 갖고 평생을 컬렉션한 개인 소장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부방식이나 한 지자체 안에서 산재하고 있는 미술관들의 흡수 합병을 통한 재정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각예술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들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초 소장품과 인력 그리고 그 소장품을 통한 컨텐츠를 창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구체적 사실 가운데 그나마 국가나 지자체 등 운영 주체가 분명한 비영리 문화기반시설의 경우는 그 활동 범주나 규모 그리고 운영 등이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절차 또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내 시각예술 시설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영리시설들이다. 상업적 속성과 목적이 분명한 시각예술 영리시설은 미술시장의 최하부 구조를 담당하는 공간들로 시각예술 유통의 최전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는 몇몇 메이저 상업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가를 발굴하고 이를 검증해 시장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은 시장의 기반이 허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체제에서 오는 폐해들이 국내 미술 시장의 가장 큰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예술 시설들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에 무척 어렵다는 맹점이 있는데, 현재 시각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영리시설인 화랑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협의체인 (사)한국화랑협회조차도 회원 화랑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국가가 그 운영을 강제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시각예술 시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시각예술인들의 시장 진입 통로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확한 그 규모와 실태 파악은 시급한 일이다. 그나마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화랑 및 갤러리 가운데 265곳의 표본을 추출하고 135곳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이는 2007년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최근 3년간 새로 개관한 화랑 및 갤러리 200여 곳의 불과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정도여서 표본에 대한 신뢰도가 미약한 것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국내 시각예술 시설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우선 시설의 지역 편중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시각예술 시설들의 활동하는 지역적 범위가 대부분 대도시(40.1%)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위주로 시설이 확충되고 프로그램이 공급됨으로서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민과의 문화향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예회관이 중소도시/ 군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시설이 54.2%로 문화시설로의 기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활동의 범위가 협소함은 물론 양질의 시각예술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국내의 시각예술 시설의 67.4%가 유급 상근직 인력이 1~5명 내외라는 것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며 특히 지방 문예회관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직이 시각예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재는 시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인력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이 무척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선 이러한 시설 증가 원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 ·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시각예술 시설의 양적 확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의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응답기관 중 프로그램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65.7%가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특히, 응답기관의 60%이상이 최근 1년 내 시각예술 관련 프로그램(어린이 프로그램, 공공문화프로젝트, 문화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국내 시각예술 시설들은 거의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을 뿐이지 내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서 국내 시각예술 시설 가운데 재정 상태를 주목해 볼 때 사립미술관의 재정자립도는 14.2%에 불과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상설전만 열거나 교육 등 운영프로그램이 전무한 미술관도 상당수 드러났다. 시각예술과 관련된 각 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설립취지를 달성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대관 위주의 전시만이 행해지며 이는 결국 시각예술의 진흥이라는 국가의 기본 방침과 어긋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국내의 시각예술 시설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45.1%가 재정지원이라고 응답했는데, 조사된 전체 시설 가운데 2006년 지원받은 시설이 전체 응답자의 31.3%이지만 이 또한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실제 지원을 받은 각 시설들의 일선 애로사항은 지원항목이 까다롭고 전시에 관한 직접비용만 지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추후 시각예술들에 대한 지원의 유형과 폭을 더욱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시설의 수만을 늘리기 급급한 양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지원을 늘려야 함은 주지의 여지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3년간 시각예술 관련 전시 공간은 200여 곳 가까이 증가했고, 이러한 전시 공간은 현재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내 시각예술 시설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화랑이나 갤러리들은 시장의 팽창과 맞물려 비약적으로 그 규모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통계화 할 만한 연구나 보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이러한 영리 시각예술 시설의 대표적 지원인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지원되는 약 3억 원 내외의 국고지원금의 일부를 영리시설인 갤러리나 화랑들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도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시설들의 영리기능을 보완하면서도 국민의 문화향수 충족은 물론 시각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모든 실태조사가 마찬가지이듯 그 근본목적은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한 현재 상황,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실태를 분석하고 검증을 통해 정책의 수립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렇게 수립된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마도 본 연구 또한 시각예술 시설들을 통해 국내의 시각예술의 현재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시각예술이 나아갈 바를 확립하기 위해 그 연계선 상에 있는 시설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통해 이를 투영시키고 분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국내의 시각예술 시설이 갖고 있는 모든 관점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접근이 본 보고서를 통해 기존보다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 난립하고 있는 시각예술 시설들에 대한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본 절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관점들과 아쉬움 그리고 추후에 이와 비슷한 연구가 진행될 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각예술 관련 시설은 크게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시설과 국민의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그 운영과 설립 주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상업시설, 대안시설, 그리고 기타시설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일반, 활동, 운영, 지원이라는 4가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현재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문제점은 각 시설들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적당한 표본의 산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야겠다. 가장 크게는 우리의 시각예술을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부터 작게는 어느 지방의 사설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그 설립 목적과 운영에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어 단지 시각예술을 취급하는 시설이라는 기준만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재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또한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각예술 시설들이 영리시설인지 비영리 시설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라 본다.

아울러 본 연구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기타시설은 기존의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공간인

미술관이나 갤러리, 화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일반 상업시설(서점, 카페, 병원, 은행, 백화점 등)에서 시각예술과 관련된 전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업시설은 홍보와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련시설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 시설들은 최근 미술시장의 급성장과 새롭게 시각예술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로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공간들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 특성상 다양한 유형도 유형이지만 설립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시장논리에 따라 폐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집계를 추출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시각예술의 경향이 다양한 장르간 합종연횡을 통한 다원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표방식 또한 기존의 규정된 전시공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즉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시각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은 설립과 운영이 워낙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추세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외에도 추후 시각예술 시설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시, 그 활동영역과 개별 목적이 방대한 만큼 다양한 협의채널을 가동함은 물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별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련 시설들의 자료들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연구들을 모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서두에서 밝힌바 있듯이 이제 시각예술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패러다임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경쟁체제 아래에서, 자본과 시장이 중심인 시대에 우리의 문화의 대표적 장르인 시각예술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경쟁할 것인지는 우선은 내용에 있을 것이고, 다음이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인 중요한 시설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즉, 시각예술 시설은 단순한 시각예술을 수용하는 공간 정도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한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과 불투명하지만 그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쉽게도 국내 시각예술 시설 가운데 관련 아카이브가 너무 빈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예술의 특성상 관련 자료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열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및 시설들을 보지 못했다. 미술관의 경우 법적으로 관련 자료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여건상 관련 자료의 연구나 환경 조성은 늘 후순위에 남겨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직접적인 전시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각예술 관련 아카이브 설립은 국내 시각예술 발전의 초석으로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부록

1.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1.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전국 미술대학의 시각예술 시설 실태를 조사하였다. 미술대학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술대학 시설에 대한 규정 및 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 자료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미술대학 시각예술 시설의 제반설비와 활동이 예비시각예술인들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시각예술시설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대학의 시설 현황과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미술대학과 각 시각예술 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실습실, 전시실, 미술관의 현황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함께 이루어졌다.

미술대학의 시설은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와 운영에 있어 일반적인 시각예술시설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시각예술시설이 전문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술대학의 시설은 예비시각예술인들의 교육과, 현장경험,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운영방식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 시설과의 차이점을 고려한 설문지를 작성해야만 했다.

특히 미술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활동경험들은 예비시각예술인들이 전문시각예술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영향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시설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시각예술 정책의 범주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 판단된다.

미술대학 시각예술 시설에 대한 본 조사가 예비 시각예술인의 성장과 그 활동의 전개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술대학 시각예술 시설의 운영 및 활동의 구체적 방안과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전국 총 74개 미술대학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회수된 응답지는 74개 대학 중 50개 대학이었다. 회수된 응답지 중 26개 대학은 미술대학 전체 현황에 대한 것이었고, 24개 대학은 각 미술대학 소속 각 학과별로 서양화과(회화과)가 8개, 동양화과(한국화과) 8개, 조소과(조각과) 8개 대학이었다. 본 조사에 대상인 미술대학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14.0%), 전라(10.0%), 부산, 충청, 경상이 각 6.0%, 대전, 대구, 강원이 각 4.0%, 인천, 광주, 제주가 각 2.0% 순이었다.

본 연구는 크게 미술대학 시설의 두 가지 측면, 즉 교육환경적 측면과 교육활동적 측면에 주목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했다.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미술대학의 역사와 학생 수, 공간구성 및 규모, 실기실, 전시 공간, 미술관 등의 규모와 질적 수준, 그리고 시설활용도 등을 조사항목으로 두었다. 교육활동적 측면에서 본 조사는 졸업전시, 전시 횟수 및 개최시기, 전시관련 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대학과의 전시교류, 전시 및 행사 홍보, 홈페이지 운영을 조사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제2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현황

미술대학의 시각예술 시설은 미술관, 전시실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으로 건립이 이뤄져 왔다.

한국 대학 박물관 · 미술관의 효시는 1934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유물을 수집, 전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광복 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1935), 경성제국대학(1941)을 포함하여 3개교에 불과하였으나[46] 1991년 한국박물관협회의 결성 후 현재는 98개 처의 대학박물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이 중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조선대학교 미술관(1992년 승인), 경성대학교 미술관(2000년 등록),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2004년 개관, 2005년 등록), 서울대학교 미술관(2006년 개관) 등 4개교에 불과하다.

전시실의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 전시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전시실을 살펴보면 경기대학교 소성미술관, 국민대학교 국민아트갤러리(부속기관으로 제로원디자인센터, 주얼리디자인센터를 운영), 국민대학교 조형갤러리, 대구가톨릭대학교 갤러리예술사랑,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석당갤러리, 동의대학교 효민갤러리, 서울대학교갤러리 우석홀, 서울산업대조형관 불암갤러리,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M,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숙명여자대학교 청파갤러리, 영남대학교박물관 아트스페이스,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전시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전시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시실은 대부분 미술대학 혹은 조형대학 건물 내에 위치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대학외부에 설립된 전시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덕여자대학교의 동덕아트갤러리, 국민대학교의 제로원디자인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갤러리175 등을 들 수 있다.

46) 임예진, 『대학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2004
4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홈페이지 (www.kau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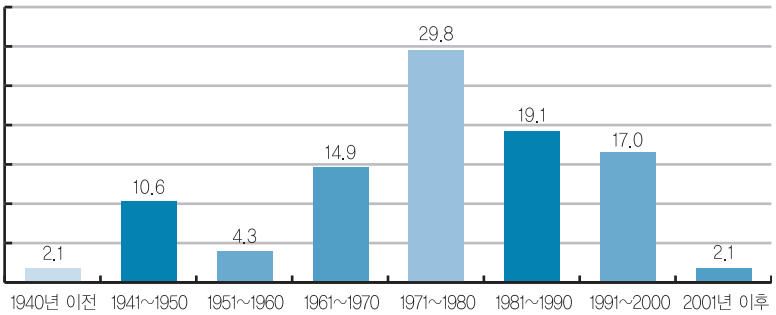
제3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조사 결과

1. 일반현황

1) 연혁 및 학생 수

미술대학의 설립연도는 대학 미술교육의 역사와 발전과정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한 50개의 대학의 설립연도를 보면 [그림 7-1]과 같이 1971~1980년이 14개(29.8%), 1981~1990년이 9개(19.1%), 1991~2000년이 9개(1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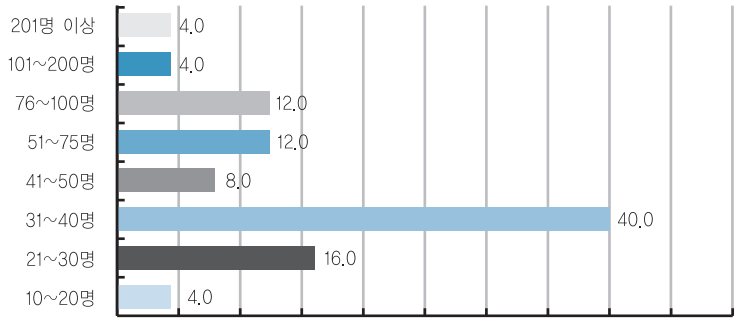
[그림 7-1] 미술대학 설립연도 분포 (단위: %)



전체 미술대학의 60%가 1970년대 이후에 설립되어 한국 대학미술 교육의 전체적인 틀이 70년대 이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년 단위로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1979년도에 가장 많은 미술대학(8.5%)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979년에 가장 많은 4개(8.5%)의 미술대학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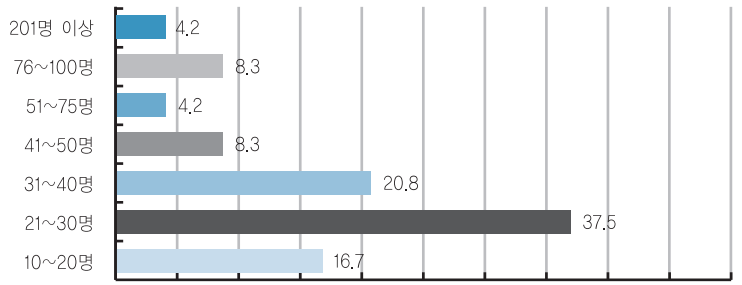
한편 미술대학의 학년별 학생 수는 조사결과 [그림 7-2]에서 볼 수 있듯이 31-40명 사이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40.0%로 가장 많았다. 한편 51~75명사이의 정원을 가진 대학이 12.0%, 76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학이 20.0%에 이르렀다.

[그림 7-2] 미술학부 학생 수 (단위: %)



학부 단위로 조사한 것과는 달리 각 학과 학년별 정원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7-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원이 21~30명으로 응답한 학과가 가장 많아 3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과 단위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보유한 학교도 상당수에 이르러 51명 이상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학교도 약 17%의 비율에 이르렀다.

[그림 7-3] 미술대학 각 학과별 한 학년 학생 수 (단위: %)



2) 공간 구성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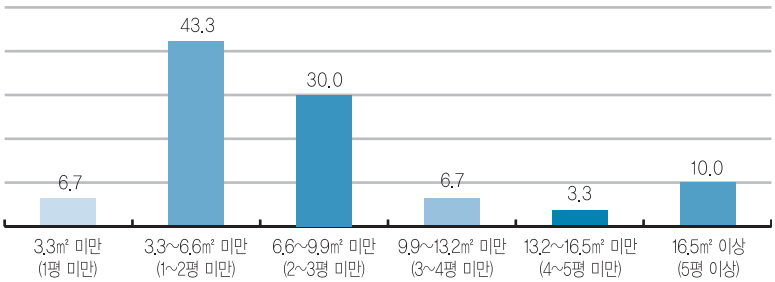
미술대학 혹은 미술학과의 경우 적정한 공간 구성과 규모는 교육인력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환경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미술대학 내에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실기실의 유무, 각 학생당 실기실 평수,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별도의 전시공간, 전시장 상근직원, 미술관 유무, 미술관 상근지원 등을 항목으로 조사하여 각 대학의 공간구성 및 규모를 파악했다.

(1) 실기실

먼저 미술대학과 각 학과가 학생들의 미술 실기를 위한 공간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대학이 실기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으나, 대학원의 경우 전체 응답 시설 중에서 10%가 실기실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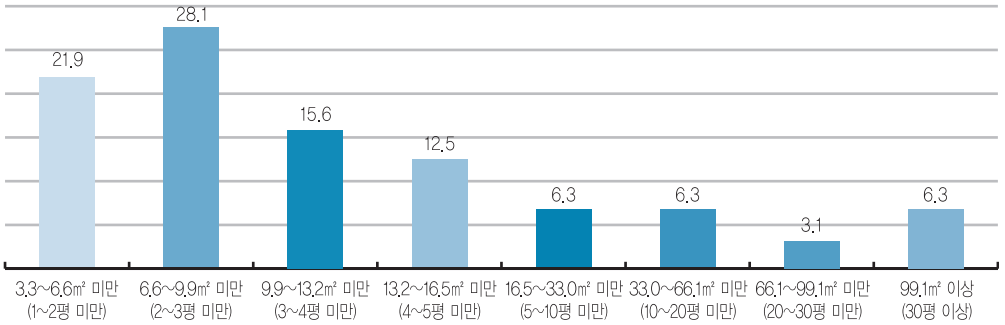
실기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기실의 1인당 면적을 질문하였다. 이 항목에 응답 중 학부의 경우에는 [그림 7-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3~6.6㎡(1~2평) 사이가 43.3%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실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3.3㎡(1평) 이하라고 대답한 대학도 6.7%나 있었으며, 종합해 보면 절반 정도가 6.6㎡(2평) 이하의 실습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인당 실습 공간이 9.9㎡(3평) 이상이라 응답한 대학은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그림 7-4] 학생당 학부 실기실 평수 (단위: %)



다음으로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생 1명당 실습공간의 규모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었는데, [그림 7-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6㎡(2평)에서 9.9㎡(3평)사이의 1인당 실습공간을 구비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시설이 28.1%이었고, 6.6㎡(2평) 미만의 1인당 실습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도 21.9%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6.5㎡(5평) 이상의 1인당 실습공간을 보유한 대학도 22.0%의 비율을 보유했으며 1인당 실습공간이 99.1㎡(30평)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학도 6.3%나 되었다.

[그림 7-5] 학생당 대학원 실기실 평수 (단위: %)



(2)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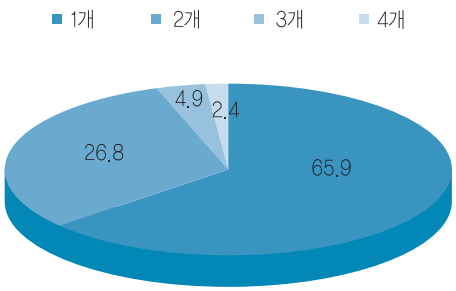
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의 전시공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41개(82.0%) 대학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전시를 위한 공간을 대학 내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7-1]과 같이 경기(71.4%), 경상(66.7%), 충청지역(33.0%) 등은 전시실을 대학 내에 설치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지역별 미술 대학 내 전시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응답자		예		아니오	
전체		100.0	(50)	82.0	(41)	16.0	(8)
지역별	서울	100.0	(18)	94.4	(17)	5.6	(1)
	부산	100.0	(3)	100.0	(3)	–	
	인천	100.0	(1)	100.0	(1)	–	
	대전	100.0	(2)	100.0	(2)	–	
	대구	100.0	(2)	100.0	(2)	–	
	광주	100.0	(1)	–		100.0	(1)
	강원	100.0	(2)	100.0	(2)	–	
	경기	100.0	(7)	71.4	(5)	28.6	(1)
	충청	100.0	(3)	33.3	(1)	66.7	(2)
	전라	100.0	(5)	100.0	(5)	–	
	경상	100.0	(3)	66.7	(2)	33.3	(1)
	제주	100.0	(1)	–		1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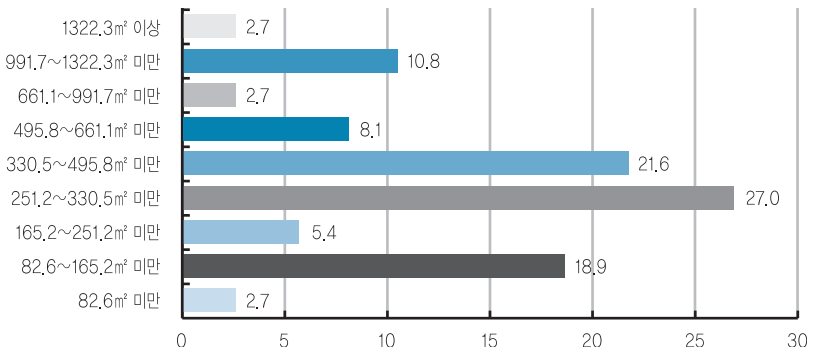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7-6]과 같이 대학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대학 중에서 전시 공간을 몇 개나 운영하는지 묻는 질문에 1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27개(65.9%)로 가장 많았고, 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11개(26.8%)로 그 다음을 이었다. 3개를 운영하는 대학은 2개(4.9%), 4개를 운영한다는 대학도 1개(2.4%)가 있었다.

[그림 7-6] 대학 내 전시 공간 현황 (단위: %)



다음으로 대학 내에 설치된 전시장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평수를 묻는 질문에 총 37개 대학이 응답하였다. 응답대학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251.2~330.5㎡(76~100평) 미만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대학이 2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체 응답자수의 절반가량이 330.5~661.1㎡(100~200평) 미만의 전시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991.7㎡(300평)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전시장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작품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미술대학들은 약 13.0%(5개)에 이르렀다.

[그림 7-7] 대학 내 전시장 규모 (단위: %)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시장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시장내에 상근하며 전시장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유무와 수를 묻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41개 대학 중 26개(63.0%) 대학이 현재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7-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시장 상근 직원수는 1명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4명을 둔 대학도 7.7%로 조사되었다.

[표 7-2] 전시장 상근직원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기타
전체		100.0 (26)	46.2 (12)	34.6 (9)	3.8 (1)	7.7 (2)	7.7 (2)
지역별	서울	100.0 (13)	30.8 (4)	38.5 (5)	–	15.4 (2)	15.4 (2)
	부산	100.0 (2)	100.0 (2)	–	–	–	–
	대구	100.0 (1)	–	100.0 (1)	–	–	–
	강원	100.0 (1)	100.0 (1)	–	–	–	–
	경기	100.0 (4)	50.0 (2)	25.0 (1)	25.0 (1)	–	–
	전라	100.0 (3)	66.7 (2)	33.3 (1)	–	–	–
	경상	100.0 (1)	100.0 (1)	–	–	–	–

상근 직원 중에서 단순히 전시시설을 관리하는 직원과 전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큐레이터가 있는데, 이 중 17개 대학은 일반 관리인을 상근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반면 8개 대학만이 큐레이터를 상근 직원으로 두어 전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큐레이터가 있는 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3개, 경기에 2개로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서만 대학 전시장을 전문화된 전시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술관

미술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미술관 또한 미술대학에서 중요한 교육시설로 꼽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예술 시설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미술대학 중에서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의 36%(18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개)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 2개, 전라도 2개소 순이었다. 한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제주의 경우 대학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미술관의 규모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학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18개 미술관 중 10

개 시설만이 응답을 하였다. 이 항목에 응답한 10개 대학 중 333.8㎡~661.1㎡(101~200평) 이하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3개 대학이었으며 664.4㎡~991.7㎡(201~300평) 이하, 995.0㎡(301평) 이상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각각 2개 대학이었다.

미술관이 있는 18개 대학 시설 중 상근직원이 있는 경우는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2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미술관이 36.4%로 가장 많았다.

[표 7-3] 대학 내 미술관 상근 직원 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100.0 (11)	27.3 (3)	36.4 (4)	18.2 (2)	18.2 (2)
지역별	서울	100.0 (5)	30.8 (4)	38.5 (5)	–	15.4 (2)
	경기	100.0 (2)	100.0 (2)	–	–	–
	충청	100.0 (1)	–	100.0 (1)	–	–
	전라	100.0 (1)	100.0 (1)	–	–	–
	기타	100.0 (1)	–	–	25.0 (1)	–

상근 직원의 세부항목으로는 학예연구원이 있는 미술관이 5개, 테크니션 2개, 관리인 7개, 그리고 기타 상근직원 3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학예연구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에 2개 시설, 경기(1개), 충청(1개)로 조사되었고, 테크니션은 서울과 충청 (각 1개), 관리인은 서울(3개), 경기(2개) 충청과 전라(각 1개), 기타직원의 경우 서울(2개)로 조사되었다.

미술관 내에 수장고와 창고에 항온, 항습 시설 등 전시물의 보존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술관이 있는 대학 시설 18개 중 7개(38.7%) 시설이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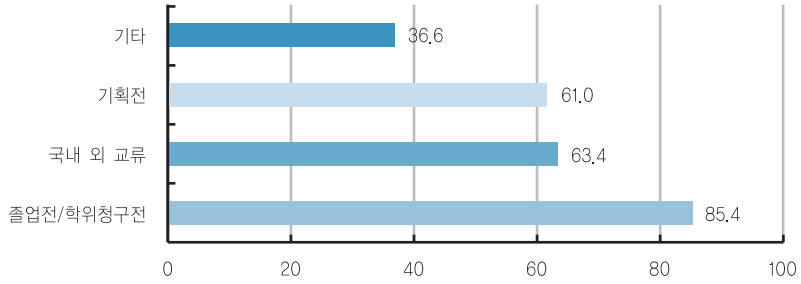
3) 전시 관련 시설 용도와 활용

대학의 전시장과 미술관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들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1) 전시장 용도

중복 응답을 허용한 대학 내 전시장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서 85.4%에 달하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졸업전 및 학위청구전으로 전시장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교류전 63.4%, 기획전 61. 0% 등으로 전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8] 대학 내 전시장의 주된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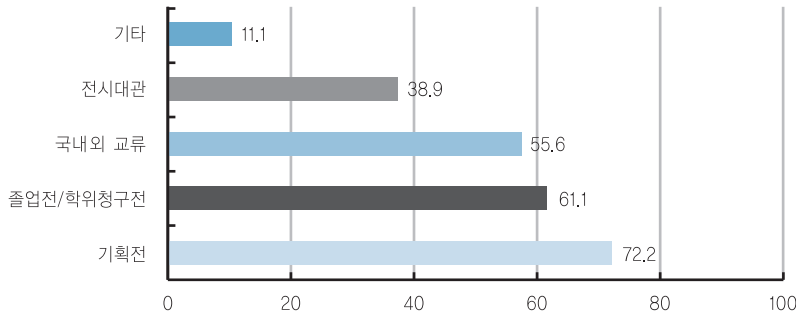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졸업전 및 학위청구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전시장을 활용하고, 강원과 전라도, 충청도 등은 대학 전시장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일반 전시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술관 용도

미술관이 있는 미술대학에 미술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다. [그림 7-9]와 같이 가장 많은 72.2%의 대학이 미술관을 기획전을 개최하는데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61.1%의 대학이 대학 내 행사인 졸업전 및 학위 청구전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내외 교류전(55.6%), 전시대관(38.9%) 등과 같이 일반 전시행사로 사용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도의 대학은 기획전과 졸업전 및 학위청구전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경기도의 대학은 기획전, 졸업 및 학위 청구전, 국내외 교류전, 충청도의 대학은 주로전시대관, 전라도의 대학은 주로 기획전의 용도로 미술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9] 대학 미술관의 주요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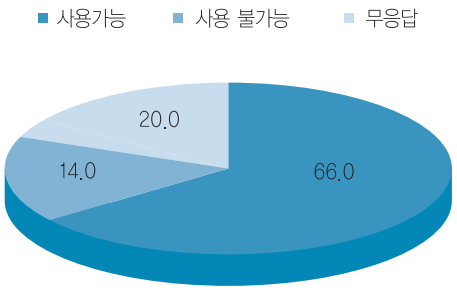


(3) 전시장과 미술관 개별 사용 가능 여부

전시장 혹은 미술관 시설을 개별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림 7-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0%(33개)가 사용 가능, 14.0%(7개)가 사용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3.3%(15개), 전라 80.0%(4개), 경기 57.1%(4개)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장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33개 대학 가운데 24.2%(8개)가 사용료가 있는 것으로, 72.7%(24개)가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 경상에서는 시설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0] 전시관 · 미술관 개별 사용 가능 여부 (단위: %)



2. 활동현황

1) 전시 활동

본 조사에서는 미술대학의 중요 활동 중 하나인 학생들의 전시활동 중 대표적인 학부 졸업전시 장소를 질문하였고, 학내 전시장 및 미술관의 최근 1년간(2005년 11월 ~ 2006년 10월) 개최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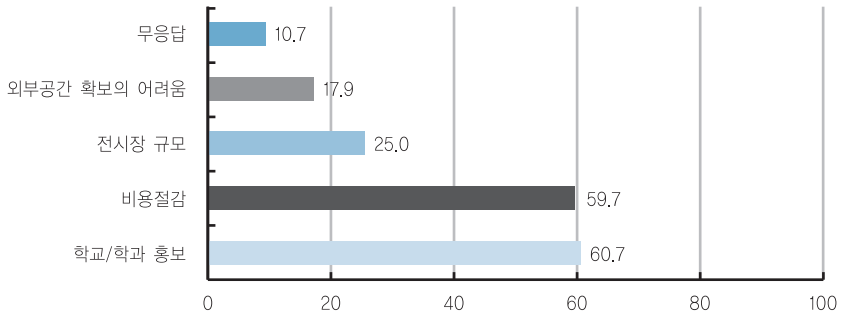
(1) 졸업전 전시장소

미술대학의 학부 졸업 시 필수과정인 졸업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장소 선택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내 전시가 56.0%, 교외 전시가 42.0%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교내에서의 전시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충청, 경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외에서의 전시비율이 높은 곳은 광주, 강원, 경기, 전라, 그리고 제주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대전과 대구는 교내, 교외 전시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교내 전시장

교내에서 졸업 전시를 개최했던 2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전시 이유를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7-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학과 홍보(60.7), 비용 절감(59.7%)이 교내 전시를 기획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장규모(25.0%), 외부공간 확보의 어려움(17.9%)도 상당 비율로 드러나 학내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학생들의 전시 공간으로 이용됨을 보여주었다.

[그림 7-11] 교내 졸업 전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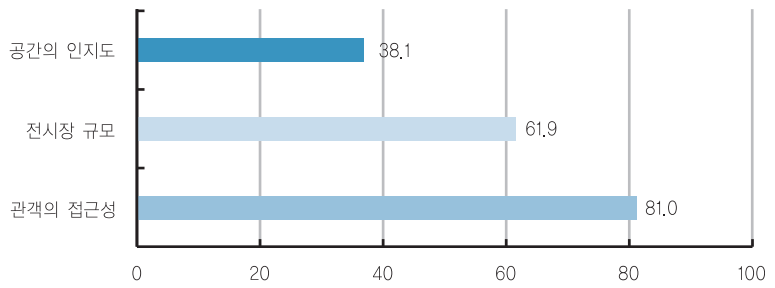


또한 교내 졸업전시 개최 원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등의 대도시 등은 비용 절감과 학교 및 학과 홍보 등을 들어 학내 시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라도의 경우 외부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학내 전시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② 교외 전시장

졸업전시가 교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1개 대학에 마찬가지로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림 7-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객의 접근성이 81.0%로 가장 높았고, 전시장 규모나 공간의 인지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7-12] 교외 졸업 전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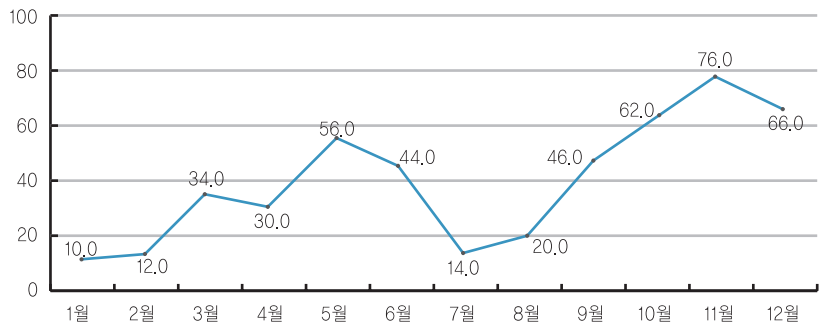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이 교내외에 우수한 전시시설이 많은 대도시권에서는 관객의 접근성과 공간의 인지도가 교외 전시의 가장 큰 이유인 반면, 강원, 충청, 전라와 같은 곳에서는 교내 시설보다 교외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전시장의 규모라고 답하였다.

(2) 전시 횟수 및 개최시기

다음으로 최근 1년간(2005년 11월~2006년 10월) 교내 전시 횟수와 개최 시기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총 41개 대학의 56.0%가 1회에서 5회 사이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2.0%가 6회에서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응답했다.

전시 개최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학기말에 해당하는 5월과 6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시회가 교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3] 전시 개최 시기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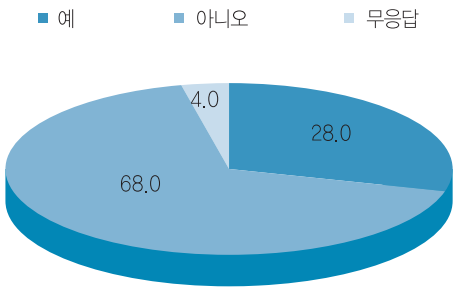


2) 교육 및 교류현황

(1) 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 대학의 68.0%가 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28.0%의 대학에서만 이론수업 개설, 미술전문가 초청 강연, 전시 관련 디스플레이 및 보관 관련 교육, 작품전 기획과 연출, 미술 현장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4] 학생 대상 전시관련 별도 교육 실시 여부 (단위: %)



(2) 전시 교류

최근 1년간(2005년 11월~2006년 10월) 국내외 미술 대학과 전시 교류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36.0% 미술대학이 교류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62.5%가 단 한차례 교류전을 개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 대학에서 지난 1년간 1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서울의 한 대학은 10회 이상 활발하게 타 대학과 전시 교류를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7-4] 전시 교류 횟수 (단위: %)

구분		응답자		1 회		2 회		3 회 이상	
전체		100.0	(8)	62.5	(5)	25.0	(2)	12.5	(1)
지역별	서울	100.0	(3)	33.3	(1)	33.3	(1)	33.3	(1)
	대전	100.0	(1)	100.0	(1)	–		–	
	강원	100.0	(1)	100.0	(1)	–		–	
	경기	100.0	(2)	50.0	(1)	50.0	(1)	–	
	충청	100.0	(1)	100.0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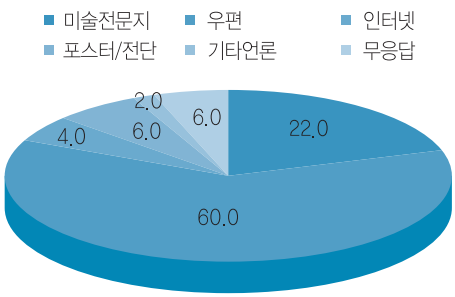
3) 전시 홍보

미술 대학 내에서 전시를 할 경우 어떠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내용은 우편과 미술전문지 이용 및 홈페이지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전시 및 행사 홍보 매체 활용

미술 대학 내에 전시 및 행사가 있을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홍보 수단이 무엇인지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하였다. [그림 7-15]에서 보는 바 같이 전통적인 미술계의 홍보 방법인 우편 이용(60.0%)과 미술전문지 이용(22.0%)이 대학의 전시 및 행사의 홍보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4.0%)과 같은 홍보 수단은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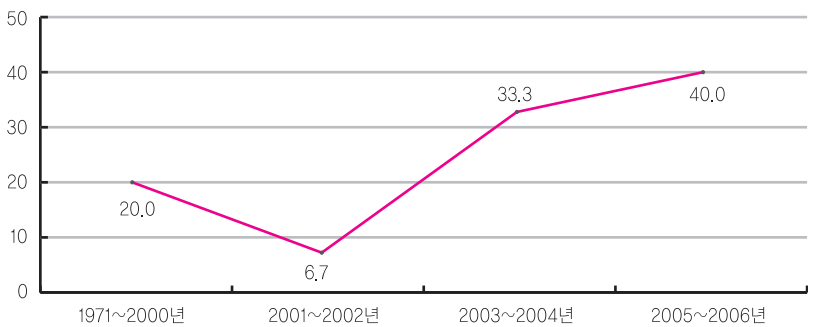
[그림 7-15] 전시 및 행사 홍보 수단 (단위: %)



(2)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와 인터넷 시대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의 66.0%(33개)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연도는 홈페이지가 있는 전체 33개 대학 중 15개의 대학이 응답하였으며, [그림 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반이 넘는 대학이 2003년 이후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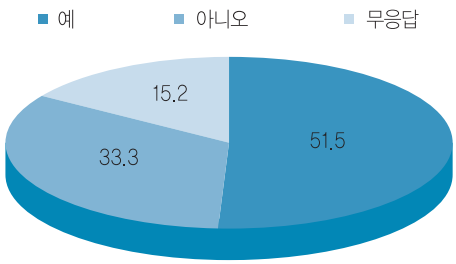
[그림 7-16] 홈페이지 개설 년도 추이 (단위: %)



홈페이지의 실제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 자료의 홈페이지 등재 여부, 연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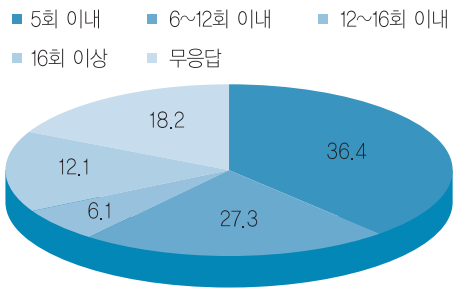
각 과별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전시 현황이나 미술계 동향의 자료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등재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그림 7-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5%의 대학만이 전시나 미술계 소식을 등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시 현황 및 미술계 동향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도 33.3%로 조사되었다.

[그림 7-17] 전시 현황 및 미술계 동향 자료 등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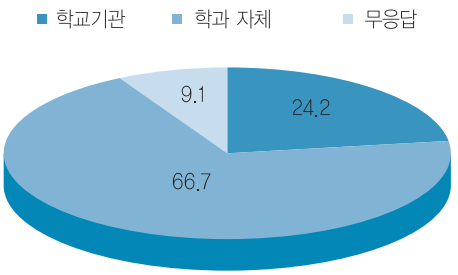
홈페이지 실질적인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를 조사하였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술대학의 60% 이상의 대학이 연간 12회 이내, 즉 한 달에 한 번도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8] 년간 연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횟수 (단위: %)



한편 홈페이지 운영주체를 묻는 질문에 학교 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24.2%였고, 학과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66.7%였다.

[그림 7-19] 홈페이지 운영 주체 (단위: %)



제4절 미술대학 시각예술시설 실태 분석

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에서 전시공간이나 미술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예연구원을 두어 전문적인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적지 않았다. 미술대학 시설 현황 조사결과의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의 전시공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41개(82.0%) 대학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공간이 있는 41개 대학 중 63.0%인 26개 대학은 현재 상근직원을 두어 전시실을 상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8개 대학에서는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 공간의 용도에 대해서 85.4%의 대학이 학생들의 졸업전 및 학위청구전을 위해 전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전 63.4%, 기획전이 61.0%였다.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의 36.0%(18개)였다. 미술관이 있는 18개 대학 시설 중에 상근직원이 있는 경우는 11개의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학예연구원이 있는 미술관은 5개, 테크니션 2개, 관리인 7개, 그리고 기타 상근직원 3개로 조사되었다. 대학 미술관의 용도에 대해서는 기획전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졸업전 및 학위 청구전(63.4%), 국내외 교류전(55.6%), 전시대관(38.9%) 순이었다.

교내 전시 시설에서의 전시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한 41개 대학의 56.0%가 1회에서 5회 사이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회에서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응답한 대학이 2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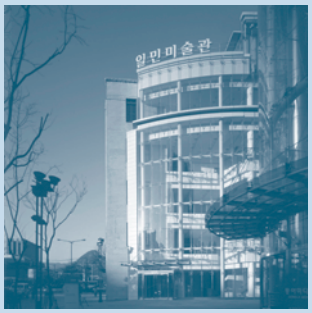
전시 관련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68.0%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28.0%의 학교에서는 이론수업개설, 미술전문가 초청 강연, 전시 관련 디스플레이 및 보관 관련 교육, 작품전 기획과 연출, 미술 현장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시 교류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36.0%가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62.5%는 교류가 1회에 그쳤다고 응답하였다.

부록

2.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주관] 김달진미술연구소
[조사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설)

안녕하십니까?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각예술분야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예술현장의 실상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정성껏 응해주신 내용은 시각예술 정책에 대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내용은 본 조사의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1월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12월 1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본 설문에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연구원 김미령 | 주 소 : (110-040)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B1
전화 : 02-730-6214 | 팩스 : 02-730-9217 | e-mail :bluerain93@hanmail.net / cloverel@hanmail.net

시 설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시설위치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작성일자	_____ 월 _____ 일		

■ 먼저 귀 시설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 시설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미술관 ____ 2) 화랑 ____ 3) 문예회관 ____ 4) 문화원 ____ 5)창작스튜디오 ____
6) 대안공간 ____ 7) 기타 ____

문2) 귀 시설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_____ 년

문3) 귀 시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기획초대전 ____ 2) 전시대관 ____ 3) 작가지원 ____ 4) 국내외교류 ____ 5) 기타 ____

문4) 귀 시설은 법적으로 다음 중 어느 종류에 해당됩니까?
1) 국공립기관 ____ 2) 법인체(사단, 재단, 특수법인 등) ____ 3) 비법인사설(민간, 임의) ____
4) 개인사업자 ____ 5) 기타 (_____)

문5) 귀 시설의 지리적 활동범위는 대개 어디까지입니까?
1) 전국일원 ____
2)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광역시 이상) 또는 도 전역 ____
3)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중소도시(대도시 내의 구) 또는 군 전역 ____
4)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동 또는 읍 · 면 ____
5) 해외지역 _____

문6) 귀 시설의 유급 상근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학예원구원(큐레이터) ____ 명 / 테크니션 ____ 명 / 관리인 ____ 명 / 기타 ____ 명

문7) 유급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연간 총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_____) 원

문8) 귀 시설은 유급 상근직원을 위한 복지제도(4대 보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는 사항을 아래 항목에서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의료보험 ____ 2) 고용보험 ____ 3) 국민연금 ____ 4) 산재보험 ____ 5) 가입되어 있지 않다 ____

문8-1) 만약 4대 보험 이외에 다른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연수 ____ 2) 관련 분야 강의 수강 ____ 3) 건강(체육)시설 이용 지원 ____
4) 기타 ____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_____)

문9) 귀 시설은 인턴쉽 프로그램(3개월 이상 기준)을 시행하십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9-1)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몇 명을 채용하십니까?
연간 약 (_____) 명 ____

문9-2) 인턴쉽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이 상근직원으로 채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둔 것입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9-3) 인턴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됩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9-4) 인턴직들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근무공간(사무실) ____ 2) 개인별 PC ____ 3) 개인별 책상 ____ 4) 휴식공간 ____
5) 양호공간 ____

문10) 귀 시설의 각 공간별 규모는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면적
1) 전시공간	약 _____ 평
2) 근무공간 (사무실)	약 _____ 평
3) 수장고 및 창고	약 _____ 평
3) 복지관련시설 (휴식, 양호)	약 _____ 평
4) 부속시설 (아트샵, 카페 등)	약 _____ 평

문11) 수장고 및 창고가 있다면 작품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 다음은 귀 시설의 활동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 시설은 최근 1년간 (2005.11~2006.10) 몇 차례의 전시를 개최하셨습니까?
기획전 약 (_____) 여건 대관전 약 (_____) 여건
※ 기획전 명과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문12-1) 귀 시설이 주요 전시를 개최하는 달은 언제입니까?
(※ 해당되는 달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월 ____ 2월 ____ 3월 ____ 4월 ____ 5월 ____ 6월 ____
7월 ____ 8월 ____ 9월 ____ 10월 ____ 11월 ____ 12월 ____

문12-2) 귀 시설에서 기획전 혹은 공모전을 진행시 작가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전시공간 ____ 2) 유료 오프라인 광고 ____ 3) 유료 온라인 광고 ____
4) 우편물 발송 ____ 5) 인쇄물(도록,리플랫) ____ 6) 오프닝 행사 ____
7) 전시진행의 모든 부분 ____

문13) 귀 시설은 최근 1년간 (2005.11~2006.10) 전시 이외의 다른 행사를 몇 건 개최하셨습니까?
(_____) 건

문13-1) 귀 시설이 이들 행사를 개최하는 달은 언제입니까?
(※ 해당되는 달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월 ____ 2월 ____ 3월 ____ 4월 ____ 5월 ____ 6월 ____
7월 ____ 8월 ____ 9월 ____ 10월 ____ 11월 ____ 12월 ____

문14) 귀 시설은 최근 1년간 (2005.11~2006.10) 국내외의 다른 시설 혹은 단체와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_____) 건 2) 아니오 ____

문14-1) 교류한 적이 있다면, 교류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 중 중요도가 높은 2건에 표시하시오.)

1) 전시회 ____ 2) 공동 회의 ____ 3) 토론회 ____ 4) 세미나 ____ 5) 강연회 ____
6) 출판 ____ 7) 기타 (_____)

문14-2) 진행하신 주요 행사명과 행사기간을 기입하시오.

_____
_____

문15) 귀 시설은 최근 1년간(2005.11~2006.10) 자체 기획전시 및 행사를 위해 국내외의 다른 시설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_____) 건 2) 아니오 ____

문15-1) 활용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시장 규모 ____ 2) 관객의 접근성 ____ 3) 공간의 인지도 ____ 4) 비용절감 ____
5) 기타(_____)

문16) 귀 시설은 최근 1년간(2005.11~2006.10)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어린이 프로그램		
2) 공공문화프로젝트		
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문16-1)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프로그램명과 기간을 기입하시오.

_____
_____

문16-2)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경우 진행상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 예산 부족 ____ 2) 지원 부족 ____ 3) 홍보의 어려움 ____ 4) 공간 부족 ____
5) 인력 수급의 어려움 ____ 6) 참여율 저조 ____ 7) 기타(_____)

문17) 귀 시설은 전시 및 행사가 있을 경우 어떤 홍보수단을 이용하십니까?
1) 신문 ____ 2) 잡지 ____ 3) 인터넷 ____ 4) 우편 ____ 5) 방송 ____ 6) 포스터, 전단 ____

문18) 귀 시설은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18-1) 웹사이트가 있다면, 홈페이지 주소와 개설연도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주소 _____ / 개설연도 _____

문18-2) 웹사이트가 있다면, 한 달 평균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여명

문18-3) 웹사이트가 있다면, 연간 평균 자체 업데이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1) 5회 이내 ____ 2) 6 ~12회 이내 ____ 3) 12~16회 이내 ____ 4) 16회 이상 ____

문18-4) [웹사이트가 있다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자체 운영 ____ 2) 외부기관 의뢰 ____ 3) 외부기관과 공동 운영 ____

■ 다음은 귀 시설의 재정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 시설은 정기적인 연간 예산편성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20) 귀 시설의 연간 지출액 중에서 시설유지관리비로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지출액
1) 인건비 (청소, 관리 등)	약 _____ 원
2) 임대료	약 _____ 원
3) 각종 공과금 (전화, 전기, 수도 등)	약 _____ 원
3) 청소관리비	약 _____ 원
4) 시설보수비	약 _____ 원
5) 인테리어비 (조명, 바닥재, 창문, 벽 등)	약 _____ 원

문21) 귀 시설은 시설운영 수익 외에 별도의 지원 기금을 받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22) 귀 시설의 기획전시 혹은 특별전시 관람시 입장료가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22-1) 있다면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 기타에 요금을 기입하시오.)
1) 100원이상 1000원미만 ____ 2) 1000원이상 2000원미만 ____
3) 2000원이상 3000원미만 ____ 4) 기타 _____

문23) 귀 시설은 금년도(2006.1.1 ~ 2006.12.31)에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1) 중앙정부	건 수	건
	총 액	원
2) 지방자치단체 (도, 시, 군)	건 수	건
	총 액	원
3) 기업 (메세나 포함)	건 수	건
	총 액	원
4) 개인후원자 (기부금)	건 수	건
	총 액	원
5) 문화재단 등 재단	건 수	건
	총 액	원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 수	건
	총 액	원
7) 기타	건 수	건
	총 액	원

문23-1)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의 항목을 기입해주십시오.

※ 7) 기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_____)

문24) 귀 시설은 지원기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신문 ____ 2) 잡지 ____ 3) 인터넷 ____ 4) 우편 ____
5) 지인, 동료 ____ 6) 알아본 적 없다 ____

문25) 현재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단체의 지원정책 중 만족스러운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1) 문예진흥기금 ____ 2) 복권기금 운영방식 ____ 3) 미술은행 정책 ____
4) 조세 정책 ____ 5) 기타 ____ (_____)

문26) 현재 공공기관 및 기타 지원 단체의 지원정책이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입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지원 금액 ____
2) 분배의 방법 ____
3) 지원신청 정보획득의 용이성 ____
4) 신청절차 간소화 ____
5) 심사과정 투명화 ____
6) 기타 (_____)

문27) 귀 시설이 공공, 민간 지원 단체에 지원신청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시설 운영비 ____ 2) 인건비 ____ 3) 웹사이트 운영비 ____
4) 간행물 발간비 ____ 5) 기타 (_____)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의견은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2006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주관] 김달진미술연구소
[조사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

안녕하십니까?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각예술분야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예술현장의 실상을 기초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정성껏 응해주신 내용은 시각예술 정책에 대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내용은 본 조사의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1월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12월 1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본 설문에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연구원 김미령 | 주 소 : (110-040)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1-26
전화 : 02-730-6214 | 팩스 : 02-730-9217 | e-mail :bluerain93@hanmail.net / cloverel@hanmail.net

학교명/학과명			
연 락 처		이 메 일	
학교위치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작성일자	_____ 월 _____ 일		

■ 먼저 귀 미술대학시설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다음의 해당 란에 표기하십시오.
1) 미술학부 ____ 2) 서양화과(회화과) ____ 3) 동양화과(한국화과) ____ 4) 조소과(조각과) ____

문2) 귀 대학의 미술대학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_____ 년

문2-1) 각 학년의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문3) 귀 미술대학은 각 학부 학생들의 실기실이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3-1) 있다면, 각 학생당 평균 공간은 몇 평입니까? (학부)
약(_____)평 혹은 (_____ 명/ _____ 평)

문4) 귀 미술대학은 각 대학원(석사.박사) 학생들의 실기실이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4-1) 있다면, 각 학생당 평균 공간은 몇 평입니까? (대학원)
약(_____)평 혹은 (_____ 명/ _____ 평)

문5) 귀 미술대학은 학생들의 전시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5-1) 있다면, 몇 곳이며 전시장 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 _____ 곳 2) 전시장 명: _____

문5-2) 전시장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시고 기타란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졸업전, 학위청구전 ____ 2) 기획전 ____ 3) 국내외교류 ____
4) 기타 _____

문5-3) 전시장 상근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큐레이터 ____ 명 / 테크니션 ____ 명 / 관리인 ____ 명 / 기타 ____ 명

문6) 귀 대학은 대학소속의 미술관이 있습니까?
1) 예 ____ (미술관 명 : _____) 2) 아니오 ____

문6-1) 소속미술관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_____ 년

문6-2) 미술관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해 주시고 기타란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졸업전, 학위청구전 ____ 2) 기획전 ____ 3) 전시대관 ____
4) 국내외교류 ____ 5) 기타 _____

문6-3) 귀 미술관의 유급 상근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학예원구원(큐레이터) ____ 명 / 테크니션 ____ 명 / 관리인 ____ 명 / 기타 ____ 명

문6-4) 수장고 및 창고가 있다면 작품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7)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귀 대학의 전시장이나 미술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7-1) 이 경우 기본 사용료가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8) 귀 대학의 각 공간별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면적
1) 실기실	약 _____ 평
2) 전시장	약 _____ 평
3) 미술관	약 _____ 평
4) 수장고 및 창고	약 _____ 평

■ 다음은 귀 미술대학시설의 활동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 귀 미술대학은 학부 졸업전시를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 교내(校內) ____ 2) 교외(校外) ____

문9-1) 교내(校內)에서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절감 ____ 2) 학교, 학과 홍보 ____ 3) 외부공간 확보의 어려움 ____
4) 전시장 규모 ____ 5) 기타 (_____)

문9-2) 교외(校外)에서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시장 규모 ____ 2) 관객의 접근성 ____ 3) 공간의 인지도 ____
4) 기타 (_____)

문10) 귀 대학의 전시장 혹은 미술관은 최근 1년간 (2005.11~2006.10) 몇 차례의 전시를 개최하셨습니까?
(※ 전시 명과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문10-1) 귀 대학이 주로 전시를 개최하는 달은 언제입니까?
(※ 해당되는 달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월 ____ 2월 ____ 3월 ____ 4월 ____ 5월 ____ 6월 ____
7월 ____ 8월 ____ 9월 ____ 10월 ____ 11월 ____ 12월 ____

문11) 귀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시관련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십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11-1) 있다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 명칭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문12) 귀 미술대학은 최근 1년간 (2005.11~2006.10) 국내외 다른 학교들과 전시 교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_____) 건 2) 아니오 ____

문12-1) 교류한 적이 있다면, 교류명과 기간을 기입해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문13) 귀 미술대학은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13-1) 홈페이지 주소와 개설연도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주소 _____ / 개설연도 _____

문13-2) 각 과별로 진행되는 전시현황과 미술계 동향 등 그 밖의 자료들이 등재되고 있습니까?

1) 예 ____ 2) 아니오 ____

문13-3) 연간 평균 자체 업데이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1) 5회 이내 ____ 2) 6~12회 이내 ____ 3) 12~16회 이내 ____ 4) 16회 이상 ____

문13-4)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학교기관 운영 ____ 2) 학과자체 운영 ____

문14) 귀 미술대학은 전시 및 행사가 있을 경우 어떤 홍보수단을 이용하십니까?

1) 미술전문지 ____ 2) 우편 ____ 3) 인터넷 ____ 4) 포스터, 전단 ____ 5) 기타언론 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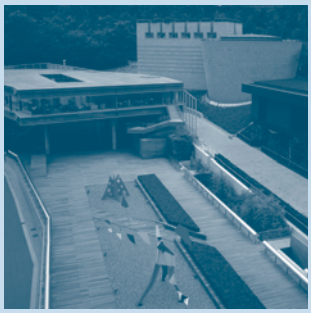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의견은 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부록

3. 설문 참여시설 목록







미술관		
가림미술관	가원미술관	가일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기당미술관	김종영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마가미술관	모란미술관	문신미술관
바탕골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북촌미술관
상원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선바위미술관	성곡미술관
소마미술관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신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아주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영은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월전미술관
일민미술관	임립미술관	전혁림미술관
토탈미술관	포스코미술관	한국미술관
향암미술관	환기미술관	황진현미술관

문예회관		
공주문예회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금산다락원	담양문화회관	당진문예의전당
대구대덕문화전당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서산시 문화회관
속초시문화회관	안동시민회관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주문예회관	예산군문예회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태안군문화예술회관	홍천문화예술회관

화랑		
가나아트갤러리	가람화랑	가산화랑
가인화랑	가진화랑	갤러리가이아
갤러리고도	갤러리나우	갤러리노마
갤러리담	갤러리더스페이스	갤러리도스
갤러리도올	갤러리드맹	갤러리룩스
갤러리북	갤러리분도	갤러리상
갤러리서종	갤러리선컨템포러리	갤러리세줄
갤러리소헌	갤러리수	갤러리스케이프

갤러리신라	갤러리쌈지	갤러리아트링크
갤러리아트싸이드	갤러리안단태	갤러리영
갤러리예가	갤러리온	갤러리올
갤러리와	갤러리우덕	갤러리이비단의방
갤러리인	갤러리잔다리	갤러리정
갤러리진선	갤러리쿤스트독	갤러리토마토
갤러리토포하우스	갤러리현대	갤러리K
갤러리M	고토갤러리	공간화랑
공갤러리	공근혜갤러리	관훈갤러리
구올담갤러리	그로리치화랑	금산갤러리
김내현화랑	김영갑 갤러리	김영섭사진화랑
김진혜갤러리	김현주갤러리	나인갤러리
대동갤러리	대백프라자갤러리	더뉴게이트이스트/아트포럼뉴게이트
덕원갤러리	동덕아트갤러리	동산방화랑
동원화랑	두산아트센터	두아트갤러리
두인갤러리	드루아트스페이스	렉서스갤러리
로댕갤러리	롯데화랑(광주)	롯데화랑(대전)
롯데화랑(안양)	리사갤러리	맥향화랑
모란갤러리	모로갤러리	모인화랑
무심갤러리	문화공간 G	박여숙화랑
박영덕화랑	백송화랑	본화랑
빗트폼 서울	빛갤러리	사간갤러리
삼일로창고갤러리	서신갤러리	서울갤러리
선화랑	성남아트센터	세종갤러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송은갤러리	스페이스바바
스페이스아침	스피돔갤러리	신한갤러리
갤러리쌈지	아라리오갤러리	아라리오서울
아트뱅크갤러리	아트파크	알파갤러리
엄갤러리	에스파스솔	영광도서갤러리
예맥화랑	예송화랑	예화랑
유아트스페이스	유연갤러리	이공갤러리
이목화랑	이현갤러리	이화익갤러리
인사갤러리	인사아트센터	일주아트
자미갤러리	조선화랑	조현화랑
진화랑	진흥아트홀	충무갤러리
카이스갤러리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C	큐브스페이스
크래프트하우스	표갤러리	필립강갤러리
학고재	한기숙갤러리	한전플라자갤러리
해반갤러리	현대예술관갤러리	PKM 갤러리

대안공간		
갤러리 팩토리	대안공간 건희	대안공간 눈
대안공간 반디	대안공간 배	대안공간 싹
대안공간 팀프리뷰	대안공간 풀	브레인팩토리
쌈지스페이스	정미소	아트스페이스C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창작스튜디오		
가나아틀리에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금호창작스튜디오
양산동미술창작스튜디오	오궁리미술촌	의재창작스튜디오
장안문화예술촌	장흥아트파크	정선호촌미술관
진안예술창작스튜디오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오픈스튜디오
팔각정미술창작스튜디오	해오름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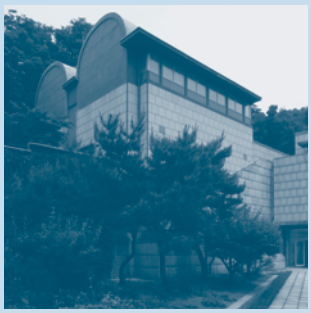
미술대학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

부록

4. 참고문헌








단행본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2001, 예경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2005, 예경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2000, 김영사
이영두, 『미술관 경영 어떻게 할것인가』, 1997, 삶과꿈
이영진, 『박물관 전시의 이해』, 2000, 학문사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2004, 살림
조명계, 『문화예술경영』, 2006, 도서출판 띠앗
한미애, 『큐레이터, 그리고 미술관』, 2001, 정주
김달진,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1995, 발언
게리 에드슨 저, 이보아 역, 『21세기 박물관 경영』, 2001, 시공사
닐 코틀러 저, 한종훈 역,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2005, 박영사(양영각)
다니엘 지로디 저, 김혜경 역, 『미술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1996, 화산문화
데이비드 딘 저, 전승보 역,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1998, 학고재
보니타 M. 콜브,『새로운 문화소비자를 위한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2004, 김영사
세계박물관협회, 하태환 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2001, 궁리출판
앙드레 말로 저, 김웅권 역, 『상상의 박물관』, 2004, 동문선
조셉 M. 몬타너 저, 이경훈 역, 『현대박물관』, 1996, 태림문화사
조지 엘리스 버코 저,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2004, 김영사

보고서, 연구자료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백서』, 2006
_____, 『미술관 진흥 비전 2020』, 2007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2005
문화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_____, 『2004 문화예술통계』, 2005
_____, 『2004 문화산업백서』, 2004

_____, 『2005 문화정책백서』, 2006
_____, 『2006 문화정책백서』, 2007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6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7
_____, 『창의한국』, 2004
문화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위원회 위원 합동 워크숍 자료집』, 2005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팀, 『문화산업통계조사』, 2004
_____, 『문화산업통계조사』, 2005
_____, 『문화산업통계조사』,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2006
_____, 『문화시설의 건립 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_____, 『2005 국립예술단체/기관운영평가』, 2006
_____,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2006
_____,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6
_____,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_____, 『예술시장 조사 설계 연구』, 2005
_____,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2005
_____,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2004
_____,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2004
_____, 『전문예술법인 · 단체 백서 2002』, 2003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개선방안』, 2003
_____, 『2003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연구』, 2003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 『국내 사립미술관 홍보실태조사 및 성공적인 홍보방안』,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시각예술정책포럼 1-3차〉, 200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2001
문화체육부,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1997, 피아
한국박물관협회 편,『2006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전문교육』, 2006, 사단법인 한국박물관 협회
최종호, 「박물관학과 박물관전문직」, 『 98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 연수1』, 1998, 문화예술진흥원
서울역사박물관, 『21세기 박물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서울역사박물관 국제학술강좌 1)』, 2005, 서울역사박물관

석사학위 논문

정은영, 『공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2003
민소영, 『한국 화랑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김상희, 『문예회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강재현, 『한국 현대미술시장에서의 상업화랑의 비즈니스모델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5
최진영, 『화랑의 성격에 따른 공간구성과 그 실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민소영, 『한국 화랑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황정현, 『문예회관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2003
서지형, 『한국 미술시장 지원제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6
이성환, 『문예회관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임예진, 『대학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2004
오희영, 『미술관정책과 신설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 수립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6
조정란, 『현대미술의 또 다른 대안 : 대안공간-한국대안공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서명혜,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s)의 현황과 발전 방안』,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2001
최경원, 『사립 미술관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광주 · 전남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송은주, 『경기지역 박물관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활성화 방안-부천교육박물관, 토탈야외박물관, 이영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박현숙, 『지역 박물관 ·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연구-경기지역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최정선, 『지역문화공간의 전시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인근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오성희, 『아트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2002

박사학위 논문

김성희, 『갤러리 브랜드와 만족 패러다임 중심으로 본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정기간행물 기사

「대안공간 9곳에 묻는다-대안공간에 대한 이유있는 발언」, 월간미술, 2004. 2
김성희, 『한국 대안공간의 실태와 정체성』, 미술평단, 2002, 봄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호』, 도서출판재원, 1997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관」, 『미술사학보 제17호』, 미술사학연구회, 2002

해외문헌

Carol Duncan and Alan Wallach,『The Museum of Modern Art as Late Capitalist Ritual:An Iconographic Analysis』, 1978, Marxist Perspectives
Fundaci Antoni Tàpies, 『The End of the Museum』, 1996
Germain Bazin, 『The Museum Age(trans. Jane van Nuis Cahill)』, 1967, Universe Books
Peter Wollen, 『Introduction』, Visual Display:Culture Beyond Appearances(eds. Lynne Cooke and Peter Wollen), 1995, The New Press
Timothy Ambrose, Crispin Paine. 『Some Definition of Museum』, Museum Provision and Professionalism, 1994

웹사이트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index.jsp)
국제문화정책 연계(http://www.incp-ripc.org)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http://www.nacac.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정책연구소 (http://www.cpnet.or.kr)
한국사립미술관협회 (http://www.artmuseums.or.kr)
한국화랑협회 (http://www.koreagalleries.or.kr)

김달진미술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